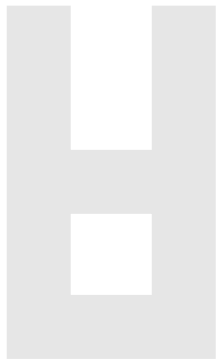


보보담

걸으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步步談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6, Spring 2015









아웃도어 명가 - 몽벨

mont  bell



WINDSTOPPER® 윈드스토퍼 초경량

[트레킹 자켓] **EVEN**이븐

-  경량성
-  활동성
-  휴대성



「보보담」 2015년 봄호(통권 16호)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6, Spring 2015

등록번호 용산 바 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1102

주간. 구자열
총괄. 김연재
실무. 손호영, 전유니

편집장. 이지누
기획. 무병재
편집. 김경미
디자인. koodamm
사진. 이지누, 유동영, 김동진, 이동은

발행처. (주)LS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발행인. 김승동
발행일. 2015년 4월 30일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튼실한 느낌의 무게에 설레는 마음으로 펼친 「보보담」. 서릿발 가득한 사진을 한 장 두 장 서서 보다가 곧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봤습니다. 이렇듯 땅을 자세하게 쳐다본 적이 있었던가 싶네요. 질서정연한 논바닥 밑으로 파란 새싹이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한반도 지도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어요. 한반도 옆으로 구부러져 들어가 있는 중국 대륙. 일본의 속셈이 보이는 지도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 줘서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사진마다 눈이 내리네요. 사진 찍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 문경후(서울시 영등포구)

「보보담」 15호 잘 읽었어요. 특히 이번 호는 서천과 군산! 저희 아빠 고향이 서천 비인편이거든요. 원래 혼자 읽는데 반가운 마음에 보여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네요. 선도리 사진을 보고 우리 집에도 같은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며 기뻐하시고요. ‘사진가가 멈춘 자리’에 나온 이화미용실,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참 좋았어요. 미용실에서 김치도 나눠 먹고 자장면도 시켜 먹고 아들 자랑도 하고… 그 모든 게 다 함께 한 긴 세월이 있기에 가능한 것일 테죠. 할머니들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사람 냄새 나게 말이죠. 옥산집! 다음에 서천 가면 한번 구경이라도 가 보고 싶어요.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는 가게, 할머니가 살아오신 세월이 느껴져요. “가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법, 할매도 가고 옥산집도 문이 닫히면 그 뒤에 무엇이 올까?” 이 구절을 읽으며 코끝이 찡했어요. 「보보담」은, 세것도 신기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 김은영(대전시 동구)

신문에 난 「보보담」 기사를 보고 꼭 읽고 싶은 마음에 구독 신청은 했지만 그 흔한 경품 한번 당첨되어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바쁜 일상에 잊고 지냈는데 며칠 전 우체통에 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책이 오다니! 얼른 집에 들어가 박스를 뜯어 보니 내용도 좋고 편집도 좋고, 바로 쪽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퇴근하고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건 그날이 처음인 것 같네요.
— 나종만(충남 아산시)

퇴근 후 책상 위에 놓인 흰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 만져 보면서 ‘이런 이런…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오지…’ 했습니다. 첫 장 넘기는 순간 하얀 서리를 뒤집어쓴 밭. 흰 가루로 곱게 화장한 늙으신 엄마 같은 배추. 어릴 적 추수가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벼단 속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낮에 짝둑 잘려 나간 벼 밑둥치가 들쭉날쭉한 게 이상했는데 아버지는 그리셨어요. “위는 다 잘렸어도 아직 제 삶이 남아서 저렇게 더 크고 싶은 게지.” 그런 말씀 해주시던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십니다. 더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식사하라는 아내 말에 밥 대신 추억 더듬으며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몇 페이지 못 넘기고 아끼다가 맨 뒷장을 살포시 보니 이번에는 청아한 텃밭에 앉은 흰 눈에 눈이 부서 그냥 덮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일기예보에서는 내일부터 꽃샘추위가 시작되는데 흥! 하고 싶더군요. 책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서. 16호를 보려면 또 부지런히 세월이 가길 바라야겠습니다. 만드는 분들은 너무 바빠 세월 가는 줄도 모를 것 같습니다만.
— 심익성(포항시 남구)

독자 의견을 보내 주세요
「보보담」을 읽고 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 주세요. 의견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LS네트웍스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제품(프로스펙스, 몽벨, 잭울프스킨, 스케처스)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독자 의견
www.lsnetworks.com
[사이버 홍보실] >> 보보담

LS Networks

「보보담」은 LS네트웍스에서 연 4회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유가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하동 화개면

편집실에서

봄에 다시 생각하는 순리

봄이다. 가지마다 새 움과 꽃이 환하게 터지는 창가에 앉아 이규보의 〈꽃샘바람(妬花風)〉이라는 시를 읽었다. 시는 하필이면 꽃이 아름답게 필 때 거친 바람을 불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조물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이었다. 그 몇 구절이 이렇다.

꽃필 땐 거친 바람이 많으니	花時多顛風
사람들 이것을 꽃샘바람이라 했다	人道是妬花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愛惜固應多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豈反妬其艷
도리어 거친 바람 보냈는가	而遣顛風加
만약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惜花若停簸
그 꽃 영원히 성장할 수 없으리	其奈生長何
꽃피는 것도 좋지만	花開雖可賞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람	花落亦何嗟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開落總自然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지	有實必代華

거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꽃이 오히려 더 실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성장통을 겪으며 피어난 꽃들은 가지에 피어 있어도 꽃이고, 이미 떨어져 땅에 있어도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니 봄꽃 흐드러지게 피어난다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니고, 꽃 진다고 아쉬워할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창을 내다 보니 꽃도 꽃이고, 새순으로 환하게 빛나는 연두색 잎도 꽃 못지않다. 찬란한 봄날에 그 무엇이 아름답지 않을까.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그 아래를 거니는 사람은 사람대로 아름답다.

그러나 인간이란 미혹하여 창가에서는 사는 일이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 놓고는 책상에 앉아서는 이 책 한 권에 그러한 생각을 모두 담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책도 여전히 부족하다. 애를 쓴다고 썼지만 이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순리를 찾아가는 이 책 「보보담」 한 권이 나에게 여유이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넉넉한 여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

편집주간 **구 자 열**



하동 진교면

보보담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6, Spring 2015

구례·하동 求禮·河東

- 20

여는 글
강 건너 저곳, 산 아래 그곳
구례와 하동 바라보기
글. 사진. 이지누
- 42

고릴라 아저씨의 봄나들이
구례·하동의 절집 구경
글. 그림. 김중석
- 46

사진가가 멈춘 자리
사람과 함께 늙어진 오일장
구례 산동장
채록. 사진. 김동진
- 56

말썽말썽한 이야기
머리뻥이 애릴려면 벼람뻥이 애리고
구례 잔수농악 상쇠 김용현
글. 박형진, 사진. 유동영
- 68

두 마을 이야기
“봄 되면 꽃 보고 살아서 좋아”
구례 산수유마을과 하동 매화마을
채록. 정리. 김경미, 사진. 김동진
- 84

소박한 밥상
“보릿고개에 섬진강 사람들
얼굴은 멀끔했어”
하동군 고전면 진도리 박승영
채록. 사진. 김동진
- 88

묵은 마을길을 걷다
마을과 마을, 그 사이로 흐르는 것들
구례 농평마을과 하동 목통마을을 잇는 당재길
글. 이성아, 사진. 유동영
- 100

고개를 넘다
그 길 위에 다시 서다
회남재 옛길
글. 안지운, 사진. 유동영
- 114

길게 들은 이야기
“나 김삿갓 좋아요.
방랑자 스타일 좋아요”
북한의 백두대간을 답사한 로저 셰퍼드
글. 이지누, 사진. 로저 셰퍼드

지리산과 섬진강이 품은 문화

- 140

천년 묵은 아름다움
지리산 화엄사와 연곡사의 석조 미술
글. 소재구, 사진. 이동은
- 156

지리산 기슭 섬진강변의 큰 소리
악양 들판에 울리던 동편제
글. 최난경, 일러스트. 김진이
- 162

섬진강 물결에 씻어 내린
해탈과 깨달음의 노래
화개동천에 울려 퍼진 범패
글. 최현, 사진. 이동은
- 인문 풍경
人文風景
- 174

흙길과 돌길 그리고 물길을 걷다
이상향은 마음속에 있고,
돌길 곁에는 물길이 있다네
호도협 - 리장 고성 - 봉황고성 - 쭈저우
글. 사진. 이지누
- 214

동파문자의 아름다움
현명한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쓴 문자
아름다운 글씨 동파문자
글. 사진. 홍희
- 222

사가원림을 거닐다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산수화,
중국의 정원 예술
쭈저우와 항저우의 사가원림(私家園林)
글. 박희성, 사진. 유동영

구례 · 하동
求禮 · 河東









구재봉에서 본 섬진강과 하동 약양면

여는 글 _ 구례와 하동 / 글,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강 건너 저곳, 산 아래 그곳 구례와 하동 바라보기

구례군과 하동군을 보려고 술한 고민을 했다.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서 지역들은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도를 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택한 방법은 구례의 산동면에서 섬진강을 따라 그 강이 끝나는 곳까지 가자는 것이었다. 또 그 길을 가면서 오를 수 있는 곳은 모두 올라서 내려다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아래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 또 강 건너가 궁금했다. 그래서 섬진강을 건너 망덕포구까지 오가기를 예닐곱 차례 되풀이했다. 강 건너이거나 산 높은 곳마다 멈추면서 말이다. 그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봄을 맞이하는 구례와 하동의 산야는 찬란하기 그지없었다.

어느덧 봄이 깊었지만 구례에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새벽이면 서리가 내렸다. 그 새벽에 매화꽃 그늘에 찾아들면 한기를 머금은 매향은 더욱 짙었다. 그렇게 매향을 머금은 구례와 하동은 나라 안 여느 고을들과 달랐다. 두 지역이 나뉘는 곳들은 대개 큰 고개를 사이에 두거나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마련이다. 그러나 드물게 구례와 하동은 강을 따라가거나 산 능선을 따라가도 결코 서로 마주 보는 법이 없었다.

그저 섬진강과 지리산 줄기는 두 고을의 곁을 유장하게 흐를 뿐이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아예 강을 건넜다. 구례읍에서 문척교를 건너 861번 도로를 따라서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전남 광양의 망덕포구까지 달려 보기도 했다. 강 건너에서 구례와 하동 혹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건너다보면서 말이다. 구례와 하동을 떠나자 비로소 그들이 조금이나마 보였던 셈이다.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수평으로 거리 두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수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다. 섬진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노고단은 물론이거니와 구례의 오산, 하동 약양면의 형제봉(1115m)이나 구재봉(767.6m) 또 진교면 금오산(849m) 마루나 광양의 무동산(275m)에 오르자 지리산 기슭을 에돌아 흐르던 강이 하동읍을 거쳐 이육고 바다에 다다라 몸을 푸는 장면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것처럼 강가에서 산을 바라보고 산마루에서 바다로 향하는 강을 바라본 후에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넓고 작아서 더 정겨운 산동 오일장

전북 남원과 밤재를 사이에 둔 구례의 산동면에서 시작했다. 상위마을과 원좌마을은 멀리서 봐도 노랗게 물든 듯 산수유가 한창 흐드러지게 피던 때이긴 했지만 면소재지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하필 산동장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넓고 퇴락한 함석지붕을 한 장막(場幕)은 그 자체로 시선을 끌었고, 시장 규모는 더더욱 발길을 붙들었다. 1.5m×4m 남짓한 크기의 장막이 서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산동장은 비록 손바닥만큼 작은 장이지만 산동 들녘을 가득 메운 산수유꽃보다 아름다웠다.

거기에 불박이 신발가게와 만물상 그리고 철물점과 함께 더러 노점들이 펼쳐져 있기는 했지만 나라 안 어디에 이만한 오일장이 또 있을까 싶었다. 공부방으로 돌아오고 난 후, 한눈에 들어오고도 남는 그 작은 장이 눈에 밟혀서 서둘러 다시 찾아갔지만 장속으로 불쑥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길 건너 보견소 마당이나 농협 마당을 서성이거나 장이 뻥히 바라다보이는 곳에 세워 둔 자동차에 앉아 이른 새벽부터 점심 나절까지 장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장은 그 규모가 비록 작지만 끊임없이 움직였다. 인근 마을 사람들조차도 밤재를 넘어 남원장으로 간다며 산동장은 이미 죽었다고 했지만 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산동장은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수에 맞는 규모를 갖췄고 그에 알맞게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산동장은 손바닥만큼 작지만 봄꽃보다 아름다웠다.

극락으로 날아가는 용 두 마리

산수유와 매화가 시들해질 무렵, 화엄사에는 홍매가 피어났다. 붉은 꽃에 눈개[●]가 방울져 달린 날, 시 한 수를 읽었다. 1910년 나라가 국치를 당하자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으로 자결한 매천(梅泉) 황현(1855~1910)이 쓴 〈저녁에 화엄사에 들르다(暮投華嚴寺)〉라는 것이다. 그는 화엄사와 가까운 광의면 만수산 기슭에 서실인 구안당(菊安堂)을 짓고 은거했는데 짬이 날 때마다 화엄사나 구충암을 찾았다.

그의 고향은 광양이지만 구충암에서 공부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영신(永信)이라는 사미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충암에 다시 올라 보니 그 사미승이 암자의 주지가 되어 있었다. 그 인연으로 그는 1899년 〈구충암 중수기(九層菴重修記)〉를 남겼다.

그러나 그는 화엄사와 같은 큰 절보다는 구충암을 좋아했고, 그보다 더 봉천암(鳳泉庵)을 아꼈다. 그가 1902년 4월 어느 날, 시인인 유당(酉堂) 윤중균(1861~1940)을 찾아 봉천암에 올라 이틀 동안 묵으며 그와 함께 시를 수창했는데 그중 한 수가 지극히 아름답다.

●
눈개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꽃비가 내리더니 눈이 내린 듯 길은 꽃으로 덮여 있었다. 일 년에 한 철 꽃길을 걸어 볼 수 있는 봄이다.

꽃다운 숲 씻겨 주듯 아침 해가 뜬는데
 芳林如沐上暾暉
 고개 중턱 갠 구름은 흰 명주옷을 걸친 듯하네
 半嶺晴雲掛縞衣
 소나무 아래로 찾아갈 제 희미한 길이 익숙한데
 松下敲門微路熟
 꽃 사이서 객을 맞던 옛 승려는 안 보이네
 花間迎客舊僧稀
 산 빛은 그대론데 나는 이미 늙었거니
 山光不改我已老
 봄이 다 갔는데 그대 어이 돌아가지 않는고
 春盡胡然君未歸

물론 나라 잃은 울분을 견디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며 항거할 만큼 강직했던 그가 이렇듯 아름다운 시만 남긴 것은 아니다. 그가 남긴 「매천야록」에는 한말 위정자들의 비리 행태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외세의 악랄한 침탈과 광분한 일제의 만행을 낱알이 밝히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또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가 이렇듯 「매천야록」을 집필한 집터에는 지금 그를 배향한 사당인 매천사(梅泉祠)가 들어섰다.

매천사에서 지리산으로 오르면 이내 천은사(泉隱寺)가 나타난다. 천은사는 절집보다도 원교(圓嶠) 이광사(1705~1777)의 글씨가 더 알려졌다. 일주문에 걸린 천은사 현판은 물 흘러가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수체(水體)라고도 한다. 사찰에 잣았던 화재를 막기 위해 수체를 사용하여 세로로 썼다고도 한다.

그래서 천은사를 찾는 사람들은 그의 글씨는 물론 그의 제자인 창암(蒼巖) 이삼만(1770~1847)이 쓴 보제루와 회승당 편액을 찾고 본다. 그러나 천은사의 진짜 보물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하튼 천은사를 찾아서 글씨를 모두 봤다면 반드시 극락보전을 들러야 할 일이다. 물론 법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으면 밖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극락보전의 어간 문 위에 걸린 편액도 이광사의 글씨니까 말이다.

극락보전은 극락전이나 무량수전과 같은 곳이며 아미타불을 모신 곳이다.

꽃다운 숲 씻겨 주듯 아침 해가 뜬데, 꽃 사이서 객을 맞던 옛 승려는 안 보이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인데 서쪽이란 흰색을 상징하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공덕을 쌓는다. 그리하여 드디어 극락으로 향할 때는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탄다. 용처럼 생긴 그 배에는 지장보살이 요즘 말하는 키를 쥐고 있다. 용이란 바다나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이기도 하지만 바람과 비를 일으키는 신령한 힘을 지니고 있다. 바람과 비를 관장한다는 것은 곧 하늘을 지배한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처럼 상서로운 동물이 극락보전 곳곳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천은사 극락보전은 여느 사찰의 그것들과는 달리 용이 전각 전체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비록 설정이긴 하지만 천은사 극락보전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극락보전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용머리가 지붕의 양쪽 모퉁이 아래 서까래와 보 사이의 화려한 포작 속에 웅크리고 있다. 그것을 찾았으면 용머리가 있는 쪽으로 에돌아 건물 뒤로 가면서 어스비슷한 위치를 바라보라. 그러면 건물 뒤에 용의 꼬리가 보일 것이다. 전각 앞에는 용머리, 뒤에는 용의 꼬리가 있다면 건물 내부에 용의 몸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용이 전각을 떠받들어 하늘을 날고 있는 형상인 셈이며, 그렇게 하늘을 날아서 극락정토로 가는 중인 것이다.

벚꽃이 바람에 난분분 흩날릴 때쯤 묵은 나무들이 잎을 피우기 시작했다. 샘이 좋다고 전해들은 구례 용방면 가동마을에 들어서다가 동구에서 걸음을 떼지 못했다. 결국 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돌아온 까닭은 동구에 버티고 선 거룩한 느티나무에 연한 잎이 꽃처럼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산동면의 구만제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많은 사람들이 떡봉어를 뜯채로 잡아 올리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이른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빛나던 저수지 가냘[●]의 묵은 느티나무만 보였다. 매화부터 복사꽃까지 피었다간 이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터여서인가. 오히려 꽃보다 잎이 더 고와 보였다.

하동의 화개골에는 벚꽃이 떨어지고서야 들어섰다. 축제라고 할 즈음에는 벚나무만큼 자동차가

많고 꽃잎만큼 사람이 많았다.

더구나 그들이 입고 온 나들이옷은 꽃을 무색케 할 정도로 갖가지 색을 뽐냈으니 어지러운 정도였다. 그들을 한가득 태운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그 안에서 나는 음악 소리 때문에 심장이 뛰었다. 그것도 격정적으로 말이다. 수년 동안 뛰고도 남을 만큼 박동 수가 올라갔다. 버스는 서 있어도 흔들렸고, 그 곁에 서 있는 나도 흔들렸으니 꽃 또한 흔들리지 않았을까. 심지어 강 건너에 관광버스가 등장해도 그 강한 파동 때문에 심장이 뛰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꽃을 즐기고 간 자리에 꽃이 지고 있었다.

골골살살 아름다운 마을들

이른 새벽, 철불사로 오르는 길에 만난 하동 화개면 범왕마을의 정경은 눈 닿는 곳마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목통마을로 가는 길썰에는 떨어진 벚꽃이 오솔길에 가득하고, 아랫녘에서 농익어 가던 봄이 철불사 앞마당에는 이제 시작이었다. 밤새 절마당을 환하게 밝히던 목련 큰 나무가 동살[●]에 빛나는 모습을 보았으니 부처인들 이만하겠는가. 연두색 새순과 백옥같이 흰 목련이 에워싼 절마당을 서성이고 나니 나의 탁한 마음조차도 맑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부처를 본 듯 목련을 대하고 산을 내려와 하동 화개면 단천마을로 올랐다.

구례와 하동의 지리산 산중 마을은 대개 길의 끝에 있다. 섬진강을 따라가다가 문수골, 피아골 혹은 화개골이니 하는 큰 골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골에서 다시 작은 골을 따라 급한 경사를 올라야만 마을에 다다를 수 있다. 드물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산중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흔치 않다. 곧 되돌아 내려와서 큰 골을 따라가다가 다시 작은 골을 따라 급한 경사를 올라야 하는 마을이 태반이다. 단천마을도 다르지 않다. 철불사에서 내려와 삼거리에 있는 신흥마을에서 의신마을로 향하다가 급경사를 올라야 한다. 그런데 굳이 단천마을에 오른 까닭은 서늘한 계곡의 차밭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양지 뜸의 비탈밭을 일궈서 작은 차밭을 가꾼 이는 죽어서 스스로 일군 차밭에 묻히기도 했으며, 계단식으로 만든 차밭에는

지리산 산중 마을은 대개 길의 끝에 있다. 그 때문에 산중 마을끼리 이어지는 길은 흔치 않다.

● 동살 새벽에동이 틀 때 비치는 햇살

천은사 극락보전은 용 두 마리가 지붕을 떠받친 채 극락으로 날아가고 있는 형상이다.

● 가냘 가장자리의 순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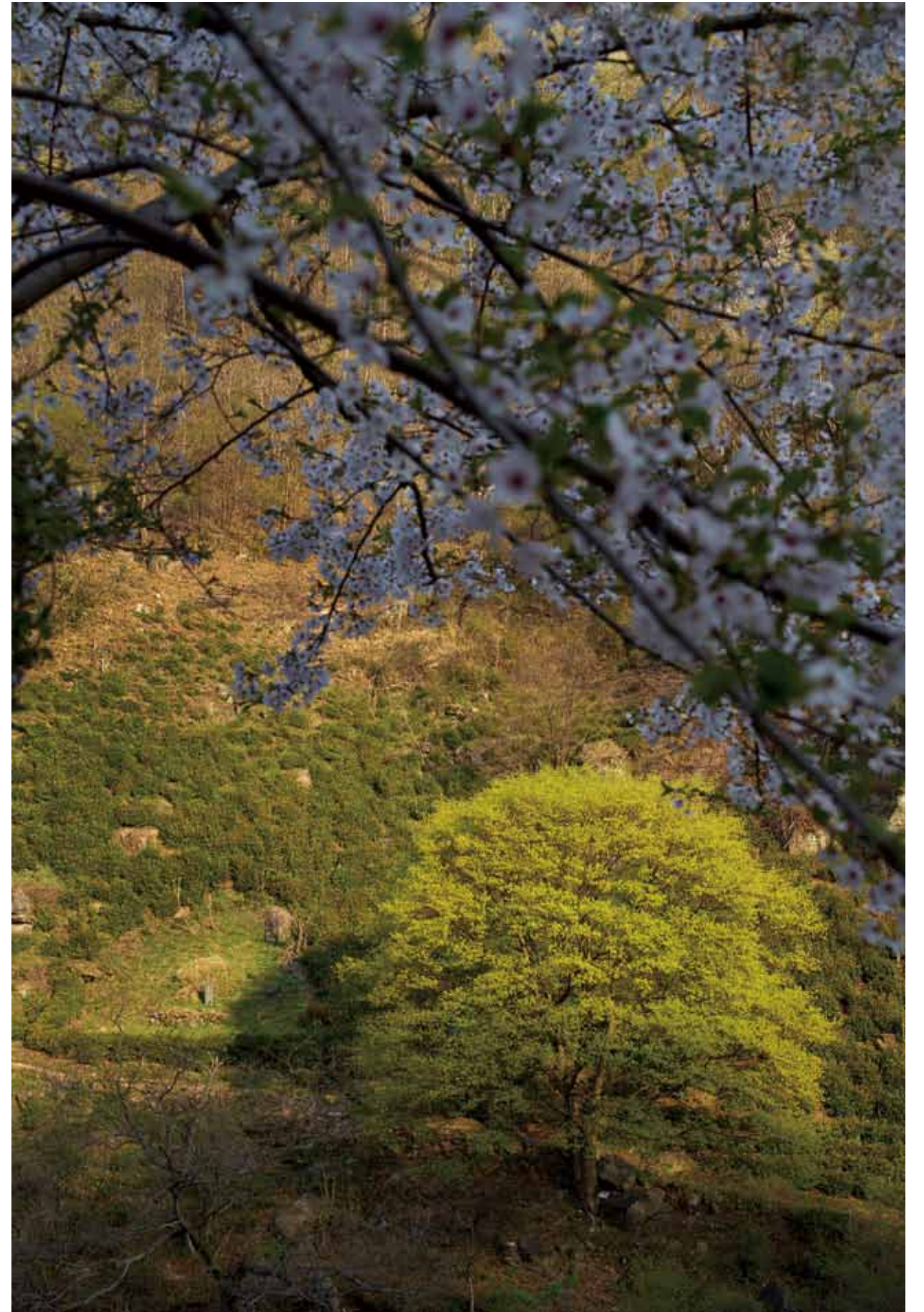
분홍빛 살구꽃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기도 했다.

단천마을에서 내려와서는 자동차길이 끝나는 곳, 의신마을로 향했다. 동구의 성황당 아래 정자에 앉으니 멀리 가느다란 길이 보였다. 지난해부터 청허(淸虛) 휴정대사(1520~1604)의 출가 사찰이라고 알려진 원통암이 있기 때문인지 ‘서산대사 출가길’이라고 이름 붙은 둘레길이다. 길은 의신마을에서 신흥마을까지 이어지지만 나는 길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았을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득한 그 길 위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인 탓인지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서넛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러고는 끝이었다. 이튿날 새벽 다시 같은 자리에서 그 길을 보고 있었다. 며칠 전 섬진강 건너에서 구례와 하동을 보듯이 그렇게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있었을 뿐 결코 길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다.

어떤 이들은 울긋불긋한 옷을 갖춰 입고 지나가고, 또 다른 이들은 집에서 입던 운동복에 배낭만 걸친 채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잠시 걸다가는 땅에 주저앉아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움직이곤 했다. 시간이 지나 길을 에돌아 내 걸을 지나가던 그들을 보니 가족들이 나물도 뜯을 겸 운동 삼아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아직 오기 전부터 길 아래 들판에는 붉은색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꿈지럭거리고 있었다. 두어 시간 만에 그이가 드디어 길 위에 올라서서 계단을 오르는데 지팡이를 짚었는데도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오전 내내 나물을 뜯었다는 그이에게 그렇게 많이 뜯어서 뭐 할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딸네가 하는 식당에도 주고 자신이 내일 하동읍장에 들고 나가 팔기도 할 거라며 웃었지만 등에 진 배낭의 크기가 버거워 보였다.

골을 빠져나가 하동읍 흥룡리 먹점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먹점재를 넘어 악양면 미점리 개치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여간 아니기 때문이다. 먹점재에서 구재봉 활공장으로 올라서 바라보는 섬진강도 아름답지만, 봄이면 개치마을의 매화꽃 그늘에서 바라보는 평사리 들판과 섬진강 백사장 또 굽이진 물길이 어우러져 내놓는 풍경이 압도적이다.

의신마을의 서산대사 출가길.
아득한 그 길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보고 싶었다.



비탈진 밭을 일궈서 차밭을 만든 이는 눈을 감고 난 다음 자신이 만든 양지바른 차밭에 묻힌 것인가. 이른 아침 동살이 무덤에 가득하다.





의신마을 서산대사 출가길



더구나 먹점은 매화나무가 많아서 매화꽃이기도 하고, 개치 또한 매화 많기로는 먹점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벗과 함께 서북서북 걷는다면 서로에게 취하고 말 것이어서 바람에 실려 오는 매향이나 눈 가득 차오르는 섬진강 풍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길에 나설 차례다

개치로 내려서서는 하동읍으로 향한다. 읍에서 섬진교를 건너면 광양이지만 무등암이 있는 무등산에 올라야 한다. 그곳에서는 하동읍이 섬진강 물굽이에 아늑하게 에워싸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등산에서는 아직 섬진강만 보이지만 금오산으로 오르면 섬진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인다. 이윽고 몸을 풀어 버린 섬진강은 다도해 작은 섬들 사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 구례읍에서부터 집요하게 강의 흐름을 따라온 걸음도 끝난다.

앞에서 말했듯 구례군과 하동군의 행정구역은 지리산 기슭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 곁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넓은 것이 아니라 길게 느껴진다. 그곳을 골골살살 다 살피고 본다는 것은 만만찮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말한 곳들을 오르내리거나 건너다니다 보면 구례와 하동의 깊은 속살 한쪽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며, 섬진강이나 지리산 산줄기가 유장하게 흘러가는 모습 또한 가늠할 수 있지 싶다. 더구나 그렇게 다니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 스스럼없어야 한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반드시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득하게 듣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렇기에 본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아닌 너에게 온갖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보보담」은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진 구슬들을 내놓을 뿐이다. 이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보보담」이 미처 가지 못한 골짜기를 드나들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 더욱 아름다운 책으로 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자, 다 읽었는가. 이제 길에 나설 차례다. ☁



구례 토지면 오미리의 운조루



구례 용방면 가동마을의 당산나무



하동 화개면 신흥마을의 아침



하동 화개면 단천마을의 차밭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雲鳥樓)는 조선 영조 때 류이주(柳爾宙)가 낙안군수로 있으면서 건축했다고 한다. 오미리마을은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노고단의 옥녀가 형제봉에서 놀다가 금가락지를 떨어뜨린 금환낙지(金環落地)의 형상이라고 전한다.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마을 위쪽에 금거북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의 금구물니(金龜沒泥), 중간에 금환낙지, 아래쪽에 다섯 가지 보석이 모여 있는 형상의 오보교취(五寶交聚)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느티나무 잎이 꽃처럼 피는 구례읍 용방면 가동마을은 임진왜란을 피하기 위하여 하동 정씨(河東鄭氏)가 정착한 후 형성되었다. 냇가에 가재가 많다 하여 ‘가재골’이라 칭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방면 신도리 ‘가동’이라 칭했다. ‘가재’를 ‘가(柯)’로 ‘골’을 ‘동(洞)’으로 뜻 옮긴 하여 한자로 표기했다. 마을 안 회관 앞에 150여 년이나 된 우물이 있는데 아직도 사용한다. 정월 보름날 달집을 태우며 당산제를 지낸다.

신흥마을은 쌍계사에서 올라와 칠불사와 의신골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다. 예전에 신흥사가 있어서 신흥마을이 되었다. 마을 앞 화개 초등학교 왕성분교 교문 앞에는 푸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는 쌍계사에 머물던 최치원이 신흥사로 올라가면서 꽃아 둔 지팡이가 자란 것이라고 전한다. 최치원은 “이 나무가 살아 있으면 나도 살았고 이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라 말했다고 전한다. 나무는 살았는데 그는 어디에 있을까.

단천마을은 가골막진 곳에 있다. 한눈에 봐도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골짜기에 발을 들이고 나면 빠져나오기 싫을 만큼 아름답다. 마을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 차밭에는 차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 차나무 사이로는 두릅나무가 길쭉하고 군데군데 흰 살구나무가 윤치를 더한다. 마을에 다다라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산골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이 정겨워 오래 머물고 싶다.

고려라 이자씨의
남자들이



고령과 아저씨의
여름 나들이

하동

불일폭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은
보물 500호로 지정된 귀한 건축물이지
진강국사가 중국에서
불교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만든 곳이야

화엄전
많은 불경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쌍계사 마애불

쌍계사는
불교음악의
발상지입니다

왜 아자방이지?

아자방 (방모양이
표자 모양이다)

대웅전

한 번
불을 때면
한 달을
간다네

이 연못은
뭐지?

칠불사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이 절에서
놀다해 모두
성불해서
칠불사라고 한다

영지
(그림자못)

놀기한 왕자들을 보러온
김수로왕 부부가 왕자들을
못 만나고 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지

하동은 재첩국이
유명하지! 맛있다

하동송림

하동송림은 천연기념물 445호야
그 길이가 2km에 달한대
강바람이 불어서 시원하지~

쌍계사

최치원이
선글로
알려진 석문이야

쌍계사는
들어가면 길이
멋진 사찰이야

한국의 아름다운 길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를 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래빛 차나무야

하동 정금리 차나무

쌍계사
녹차밭

팔상전
팔상탱이
있어. 1365년
보물 지정된
귀한 불화야

진강사암비
국보 47호
꼭 보라~
공다.

최치원이
왕실과 관련된 비.
불사를 기록한 비.

금강문

이주문

멋지다

전남 하동
→

나물사세요

비비백반

자전거로
알리니까
좋다~

벚꽃이 하늘을
덮었네~

섬진강 따라
시원하다

커피맛
좋네~

차가와 이리
마히노

카~ 벚꽃

섬진강

오일장인 산동장이 시작된
것은 대략 59년 전이다.
장막(場幕)을 슬레이트로
허술하게 지어서 시장 집을
‘널널이집’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모두 함석지붕으로
변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로
장사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쇠전, 돼지전,
곡물전, 신발가게, 옷가게
는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술집도 흥청망청이었다.
장이 열리는 날은 사람이
붐비고, 활기가 넘쳤지만
시장 거리를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어느새
다 자라서 마을을 떠났다.
이제 고요해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늙어서인가. 마을도 늙고
시장도 덩달아 늙어진다.
장터 거리랄 것도 없는
아이 주먹만 한
산동장은 어르신들만이
‘그들만의 리그’를
아름답게 펼치고 있다.

사람과 함께 늙어진 오일장 구례 산동장



허순이(77) 씨는 시어머니가 하던 건어물가게를 물려받았다. “인자 노인잉께 허제, 뭘 벌 할 일 있는가, 노인이....”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장사는 별로 안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게, 기냥 보존만 하고 재미로 하는 거지, 돈 벌려면 허덜 못해. 애들도 다 나가 불고, 친척 중에는 남자가 나 하나여. 모두 날 의지하고 살지. 삼거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오후가 되면 많이들 샀았다 가고 해. 그래도 전예보다 사람 살기는 좋아졌는데 세상이 무서워졌어. 옛날엔 길도 험하구 걸어 다닐 때는 장이 서면 하루 종일 술을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했지.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 차가 있으니 하나 사면 팽 하고 가 버리고 말지.”
철물점을 하는 최영일(76) 씨는 장이 점점 쇠락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나 교통이 좋아진 때문에 그런 걸 누구 탓을 하겠느냐고 했다. 좋아지는 만큼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세상 사는 일이라고 했다.



남원
Narwon
산동면사무소
↑
산수유마을
지리산온천
Jirisan Spa

처음에 슬레이트로 허술하게 지었다 해서 '닐닐이집'이라고 불렀던 산동장.



강명옥



박춘자



신정희



조정숙, 윤상호



허순이



형정숙



전청일

강명옥(77, 야채와 곡물) “여기가 고향이라. 서른 살 넘어서 시작했어. 남을 때는 남아도 밭가는 장사가 많아. 농사꾼들이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내가 남는 게 없어.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서 열두 시간 되면 장이 끝나.”

박춘자(72, 생선 좌판) “한 30년 했지, 요새는 생선이지만 그전에는 딱 것 팔았어, 닭 같은 거. 그때그때 수지가 다르니까 업종도 바꾸는 거지, 근데 여기는 장이 작아서 밥 먹을 데가 없어. 그게 힘들어.”

허순이(77, 전어물가게) “이거? 시어머이가 하던 거 반아서 하는 거제, 이 장에서 35년은 됐을 거라 아마, 인자 내가 노인 아니요. 그래 헐 것이 없으니깐 하는 것이여. 돈이 뭐 마이 되겠어, 그래도 쪼끔은 되니께 하제.”

형정숙(68, 야채 좌판) “나가 이 장에서 막내여, 인자 1년이나 됐는가 모르겠네. 오늘도 사람들이 없네, 마트 생기는 바람에 다 죽었어. 맨 마트로 가니까, 교통이 좋은게 전부 구례읍장으로 가서 장을 봐.”

신정희(73, 신발가게) “우리 집이 바로 여기여, 시장 한복판이제. 사람들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오니께 집 앞예다가 신발을 늘어놓는 거지 뭐. 지나다니다가 눈으로 봐야 욕심이 생기지.”

조정숙(68, 옷가게)·윤상호(70) “우리는 집에서 새벽 두 시에 만나서 장에 나와야 해. 옷을 거는 데만 서너 시간이야. 그래도 우리 나이에 딱 거는 하지 못하겠구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전청일(73, 만물상) “여기서 술값이 했어. 40년은 더 됐을 거야. 그런데 물건이 팔리들 앓음게 문제여. 노인네만 있으니 더 안 되지. 장사는 물건을 파는 재민데 팔지를 못하니 뭘 재미야. 이제 할 사람도 없는데.”



강명옥 할머니 가게와 허순이 할머니 가게는 '널널이집' 안에 있다.



전정일 할아버지 만물상에 오늘따라 손님이 들지 않는다.

을미년 정월 초사흘날,
구례읍 잔수마을에서
당산제만곳*이 벌어졌다.
나라 안에서 소문난 상쇠인
김용현이 쇠를 잡고, 마을
사람들이 제각각 악기 하나
씩 잡거나 역할 하나쯤
맡는 곳이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더구나 누구에
게 보여 주려고 하는 곳이
아닌 자신들의 마을을
위하여 스스로 치는 곳은
드물기에 한달음에
달려갔다.

●
당산제만곳
매년 정월 초사흘날 농악대가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굿을 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굿을 마친 후에 농악대는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밧이를 하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관습으로
이어진다.

머리뺨이 애릴려면 벼람뺨이 애리고 구례 잔수농악 상쇠 김용현

●
상쇠
쟁과리를 치는 사람 중 가장 우두머리

극노인
아주 늙은 노인

누백 년
수백 년

치배
쟁과리, 징, 장구, 북 따위의
악기를 메고 치는 사람들

“비 온다고 굿판을 접을 수 있간디”

구례 잔수농악은 전라도 동부 지역의 농악을 대표하는 것으로 호남좌도의 가락을 친다. 같은 호남좌도의 굿이라도 잔수농악은 남원이나 임실, 곡성, 화순 농악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가락의 특색이 남달라서 2010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6호로 지정되고 2014년에 임실, 삼천포, 익산, 평택, 강릉 농악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그 자리가 드러났다. 허나 그런 것은 다 길의 옷에 불과하고 여기 정녕 속살이 있으니 상쇠*를 치는 김용현 할아버지다.

김용현 상쇠는 우리 세는 나이로 올해 여든아홉의 극노인*이다. 그러나 허리 하나 굽어지지 않고 귀 넓고 얼굴 온화한, 자전거를 타고 읍내를 다니시는 분이다. 내가 잔수의 제만곳을 보러 가면서 더욱 마을 설렘것은 사실은 굿가락이 아니라 89세의 할아버지가 쇠를 잡고 굿판을 끌어 가는 모습은 대체 어떠한 것인지가 궁금해서다. 노인이 뽐아내는 그것은 시골이라는 물리성과 함께 정신의 그 깊은, 고향이라는 누백 년*의 정서가 떡시루처럼 오롯이 담겨 있을 것 아니겠는가? 굿은 먼저 노인정 뒤편에 있는 가운데 당산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당산 중에 가장 신격이 높은 중앙 당산이어서인지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데 굿가락이 짧고 간단하기만 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쇠가 “네 군디 당산을 다 잘 돌아서 오겠습니다.” 하고 우선 문안 드리는 굿이었으니까. 네 군데 당산은 감나무밭 속에 든 북쪽 당산을 빼고 나머지는 마을을 싸고도는 길 옆에 있다.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극히 의례적인, 다섯 군데 당산을 돌아다니면서 치는 이만저만한 굿가락이나 여러 형식은 굳이 설명하지 말기로 하자.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서둔 덕분인지 한 시간 반 남짓 만에 제만곳은 다 마칠 수 있었는데 술과 떡, 간단한 안주를 나누며 잠시 숨을 돌릴 때서야 겨우 치배*들과 안면을 트고 나는 그들의 굿판에 몸을 섞을 수 있었다. 사실 굿은 이제부터 놀아질, 집집마다 다니며 치는 마당밧이굿과 노인정 마당에서 벌일 판굿이 그 정수가 아니겠는가?

“다른 굿패들은 빨간색 띠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로, 노란색은 왼쪽 그리고 남색 띠는 허리에 두르는데 여그서는 노란색으로 허리띠를 허네요잉? 뭘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요, 여그서는 옛날부터 다 이렇게 메등만요.” 쇠를 치는 일곱 분 중 유일하게 여성인 김옥심(57) 씨에게 이물 없이 말을 붙였다.

“비 땀시 장구 소리가 안 나서 영 심드시졌구만요. 나중에 저것 말리는 것도 큰일이고...”

“궁게요, 어지께까지만 히도 날이 참 좋아 주었는데 해될 오늘사 말고 날이 앙그요 이...”





굿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마을에 울려 퍼지자 각기 다른 옷차림만큼 다른 길에서 농악패들이 모여들었다. 마을회관 앞에서 잠시 어슬렁어슬렁 오가던 일련의 패거리들은 굿 시작을 알리는 쟁과리 소리에 순식간에 대오를 만들었다. 쟁과리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징과 장고가 다음으로 소고와 북이 섰으며, 후미에는 각설이, 포수, 양반, 할머니 등이 차례를 이루었다. 추적추적 스산하게 내리는 이른 봄비 때문인지, 아니면 농악패의 평균 연령 탓인지 움직임은 느렸고 가락은 차분했다. 대오가 만들어지자 상쇠 김용현 어른은 농악패를 마을회관 옆에 있는 중앙 당산으로 이끌었다. 상쇠 어른이 앞에 서서 패를 이끄니 가락에 흥이 돋기 시작했고 덩달아 사람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중앙 당산에서 굿을 마친 상쇠 어른은 북쪽 당산으로 향했다.



당산을 돌며 하는 굿이라면 그 대상은 마땅히 당산나무와 같은 기운을 뿜는 대상을 향한 것이어야 할 텐데 건물에 둘러싸여 웅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서쪽 당산나무 빼고는 당산나무는 없었다. 대신 이만저만한 돌과 바위들이 각 방향에 놓여 있었다. 남쪽에 놓인 돌은 겨우 사람 머리 두 개 크기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마을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언젠가 큰 홍수가 나 당산나무가 쓸려 내려간 뒤 그 자리를 돌과 바위로 대신했다고 한다. 오방을 돌며 하는 제만굿을 마치고는 마을회관 앞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집집마다 마당 뚫이굿을 이어 갔다. 집 마당에서 벌이는 굿은 그 흥이 제만굿과는 제법 달랐다. 상쇠 어른이 남겨 둔 힘을 쏟아 부은 탓인지, 작은 공간이 만드는 분위기 탓인지 포수나 양반, 각설이 같은 바람잡이들의 어깨춤이 커졌고 덩달아 구경꾼들의 몸도 덩실거렸다.

정말이지 날만 좋았다면 장구 소리가 뽕뽕 터져서 치배들 모두 심 덜
들 것이다. 생각해 보자, 눈으로 땀 들어가지 말라고 테머리●질끈 동이
고 중우적삼 반쯤 걷어친 장구잡이들이 왕방울 같은 눈을 부릅뜨고 두
줄로 늘어서 마주 보며 니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고 서로 밀고 당
기는 미지기●라는 곳을 할 때, 가락은 가장 빠른 휘모리요 그 구음은
‘덤벼라 덤벼라 양장구 덤벼라 덤벼라 덤벼라 니 에비 가족 아니다’인
것을. 이것은 니 에비 가족 벗겨서 배운 장구 아니니 찢어질 것 걱정하
지 말고 힘껏 쳐 대서 치배들은 물론 구경꾼들 모다 신나게 하라는 말
이다. 그러나 비에 젖은 장구는 퍼떡거리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어쨌
거나 상쇠는 가락을 이렇게 절정에 올려놓고서야 자반뒤집기●를 하며
보푸리짓(부포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든아홉의 상쇠는 부포를 쓰
지 않았다. ‘한창 힘이 있셀 때닌 보푸리짓도 허고 자반도 뒤집었지만
인자는 어지럽고 기운 없어서’ 못 하신단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치배들
을 놀리는 수단만은 아직 특별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잡귀잡신을 몰아내고 명과 복만 쳐 들이소”

어느 지역의 굿이든 마당밧이를 할 때는 먼저 대문간에서 굿을 치고 들
어가 조왕(정지)굿을 치고 철룡(장독)굿을 치고 곡간굿, 샘굿을 치고 마
지막으로 마당에서 작은 판굿을 벌이는데 이것은 다 갖추고 사는 집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굿, 조왕굿, 마당굿 정도만을 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잘사는 집 못사는 집 가릴 것 없이 새로 지은 현대식
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다●보아라. 예전처럼 치배들이 들어설 정재가
있는 것도 아니요 울 안에 샘이 있는 것도 아니요 장독은 슬라브 욕상
이기 십상이니 어디다 머리를 두르고 굿을 친단 말인가? 그저 이도 저
도 아닌 곳에 상 하나 펴서 겨우 물 한 대접 쌀 한 대접 술 한 대접 올려
놓고 거기에 머리도 조아리고 축원도 드린다. 그러니 시방 여기처럼 본
보기로 하는 마당밧이는 훈김●내며 사는 집, 옛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집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격식 갖춘 곳도 굿이지만 이
런 집에서는 설에 장만한 좋은 음식들이 상에 양껏 차려지게 되므로 치
배들은 신명이 난다. 하여 그 집의 대주●와 가모●가 흠족하게끔 치성을
드리고 흥겨우게 놀아 주는데 잔수마을 상쇠와 치배들은 이제 시작한
어떤 집 조왕굿에서 똑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매구여- ”

“예-이-”

“잡귀잡신을 몰아내고 명과 복만 쳐 들이소!”

여기서 상쇠가 소리 높여 부르는 매구여- 소리는 나쁜 귀신들을 땅에
묻어 버리자는(埋鬼) 뜻이지만 치배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
채살
상모의 한 가지로서 한지를 여러 겹 이어
붙여 1m쯤 되게 만든 꼬리를 단 것.
이 꼬리를 길게 만든 것이 열두 발 상모

“땅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꼬방에 배
암 들어간다 장독 뚜껑 닫아라.” 이것은 철룡굿 축
원이고,
“어따, 그 물맛 좋구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말세.” 이것은 샘굿을 칠 때 물 한 두레박 퍼 올
려놓고 하는 축원이다. 이 물 먹고 아들 낳고 딸도
낳게 해 달라는 지극히 인간적이며 농경적인 바람을
더 설명해서 무엇 하리.

앞서 잠깐 상쇠의 치배를 놀리는 수단이 특별하다 했는데 그것이 뭘고
하니 굿판을 더 신명나게 하기 위해서 상쇠가 무시로 치배들 앞에 바짝
다가서 눈을 끔적끔적 고개를 절레절레 하기도 하고 곱사등이춤을 추
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굿이 조금 가라앉는다 싶을 때마다 어김없이 앞에
나서 판을 끌어가는 그 솜씨는 전국의 하고많은 농악패들의 정형화된
기예들, 예컨대 화려한 부포짓이나 채상●놀음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
게 격이 다른 것이어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마을 농악의 한 전형이
라 아니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관객에게 보여 주기 식의 웃
음거리가 아닌 삶의 진정성이 담긴 웃음이고 기교의 뽐냄이 아닌 원초
적 신명에서 우리나라오는 멋이었다. 잔수농악이 지금껏 이런 원형질적
인 모습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특별한 것은 단기 4287년, 그러
니가 1954년부터 당시 계원 28명으로 시작하여 지금껏 내려오면서 마
울의 대소사를 치러 낸 농악위친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두 집째 마당밧이를 마치고 나서 치배들은 상에 둘러앉아 술을 마
실 때 빗방울이 더욱 굵어졌다. 집 앞으로 난 마을 둘레길을 섬진강이
휘돌아 나가고 있는데 물결 하나 일지 않는 잔수여서 그런지 빗방울의
파문이 점점이 수놓아지는 게 평화롭고 아름답다. 아마도 한 달 후쯤엔
저 강 건너 매실나무에 꽃이 피었다가 난분분 난분분 강물에 떨어져 흘
러가리라. 그리고 보니 특이하게도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 구례구역 쪽
은 온통 매실나무인데 이 마을은 매실은 눈에 띄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감나무밭이다. 예전에는 무, 배추 따위 채소 농사로 유명했으나 35년
전부터 감 농사로 바꾸었다. 잠깐 치배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
는데 비 때문에 서둘러 한 집만 더 치고 마쳐야겠다며 장구를 둘러메고
상을 중심으로 모여 액막이타령을 부르기 시작한다.

“매구여- ”

“예-이- ”

“정지 구석 니 구석 잡귀잡신 다 몰아냈씨니 인자
우리 액이나 한번 막어 보세.”

“예-이-”

“정월 이월에 드는 액은 삼사월로 막어 내고. 어기
영차 액이로구나.”(후렴)

●
안조
아주

애릴
상처가 찢르는 것처럼 아프다.
아리다의 전라도식 표현

벼람빱
바람벽

수벽구
소고를 치는 사람 중에서 기예가
가장 뛰어나 앞에 선 사람

전립북
상모를 전립이라고도 함
(전립을 쓰고 하는 북놀이)

채상소고
채상을 돌리면서 하는 소고

전소매통
오줌통

“삼사월에 드는 액은 오뉴월로 막어 내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아조● 재미난 액막이가 있다. 사람 몸에 대
한 액막이인데 소란스러워서 우리가 미처 새겨듣지 못한 노래 내용을
쇠를 치는 김옥심 씨가 들려주었다.
“머리빱이 애릴●려면 벼람빱●이 애리고.”
“액 막자 액 막자.”(후렴)
“앞 쪽지가 애릴려면 솔뚜방 쪽지가 애리고.”
“눈구멍이 애릴려면 문구멍이 애리고.”
“귀구멍이 애릴려면 담뱃대 구멍이 애리고.”
“모가지가 애릴려면 장구통 모가지가 애리고...”

젓통, 배꼽을 거쳐 저 아래 거시기까지 내려가면 너무도 민망하여 도저
히 말할 수가 없단다. 그것이 궁금하기 짝이 없지만 짐작이나 해 볼 뿐
여성분에게 차마 더 물을 수 없는 게 아쉬웠다.

잔수농악 상쇠로 사는 일

김용현 상쇠는 서학현(1889~1968), 이성옥(1920~)에 이은 이 마을 삼대
상쇠다. 그 아버지 김재일은 구례 최고의 수벽구●로서 발로 차고 도는
전립북●을 체계화하여 퍼뜨렸으며 채상소고●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
었다. 하지만 술이 너무 과하여 아들 용현이 한 동네의 임삼순(80)과
혼인하려 할 때 가난과 술버릇은 대물림한다고 처가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결국 5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혼인을 했다. 그가
상쇠를 맡아 한 것이 대략 예순 살 무렵부터였다.

“그러면 당시는 장구통이나 가죽은 어떻게 만들었
던가요?”
“통은 모르겠는디 가죽은 말 잡아서 말가죽, 노리
가죽을 썼어.”
“소가죽이 아니고요? 개가죽은요?”
“여거년 말가죽 썼어. 말 잡아서 소금에 좀 절꺼다
가 손질히서...”

상쇠를 모시고 옛날 이야기를 물으니 불현듯 내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
버지는 목수였다. 선달이 돌아오면 아버진 좋은 암캐 수캐를 잡아서 가
죽을 벗겨 미리 불에 구워 빵아 둔 굴 껍질 가루를 발라서는 돌돌 말아
측간의 전소매통●에 담가 놓으셨다. 그러고는 장구통을 파신다. 소나
무다. 톱으로 자르고 끌로 파기 십수 일, 통이 다 되면 개가죽을 꺼내서
무두질을 하시는데 고무장갑이 있을 턱이 없으니 맨손으로 바닷가 바
윗돌 위에서 굴 껍질에 삭고 오줌에 절은 털과 기름을 벗겨 내고 바닷
물에 씻으셨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몰래 어머니 뒤로 다가가 그 지린내에 절은



“악기 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어떻다 하는 것을 알아요. 몸이 안 좋다거나 기분이 안 좋다거나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설로 그리
로 가서 치지라. 조금만 치다 보면 금방 풀어져 버리요. 농악을 뒹 땀시 허간디요. 마을 사람들끼리 다투는 거 없이 잘 지내자고, 농
사일하는 디도 힘을 합쳐서 한 해 농사 잘 짓자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요. 요거이 단합이재. 우리 잔수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좋은 거 아니라 그것으로 농악이 안 끊어지고 이어 갈 것인 게 좋은 것이지라. 농악이 있으면 힘도 모태지고 뚝도 모태진 게로...”
우리나라 최고령 상쇠 김용현. 농악판에서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존경을 받는 데는 단지 그가 쇠를 잘 쳐서만이 아니다. 읍내에 나가
강의를 해서 수강료가 나와도 자기 주머니에 따로 챙기는 일이 없다. “살 만치 사는디 땀이 더 필요허겠냐”고 한다.

손을 코에 대면 철색팔색을 하며 도망치던 어머니와 껄껄 웃으시던 아버지 모습이 어른의 얼굴에 자꾸만 겹쳐진다. 장구는 수캐 가죽은 소나 무궁통에, 암캐 가죽은 채통에 메워서 방문 닫고 북 쳐 댈 때 밖의 문고리가 바르르 떨어야 제대로 된 장구라 하셨다.

그 한 끄트머리를 따라 자꾸 옛날을 물어가다가 아, 이를 어찌할 거나! 어르신은 딸 넷에 가운데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이 그만 서른 조금 넘어서 사고로 죽었다. 그것도 당신은 아버지에게 질려 평생 입에 대지 않는 술을 먹고, 손자 손녀 한 명씩만 남기고, 그때가 그이의 나이 예순 무렵이라고만 할 뿐, 그 말 없음에 앞으로 할 모든 질문이 하얗게 휘발되어 버림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아내 임삼순 또한 10여 년 전에 넘어져 그때껏 하던 ‘할매’라는 잡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겨우 소고를 친다.

잔수농악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국가로부터 다달이 돈이 나온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쥐꼬리만 한 보조금이 선심이나 쓰는 듯 주어지니 그 밥그릇 싸움으로 많은 농악패가 깨져 나갔다. 여기는 어떠할까?

“내 허는 동안이는 십 원짜리 하나라도 모다 똑같이 나와.”

저 멀리 1954년 농악위천계를 만들면서부터 그래 왔듯이, 굵이치고 여울져 흐르던 섬진강물이 이 마을 앞에서는 잔잔해지듯이 어르신의 대답은 결연하기 이를 데 없고 얼굴은 평온하고 순하다. 그래서 상쇠분이고 연로하시다고, 그리고 농악대를 30년 동안 이끌어 온 공을 생각하여 보존회가 생기던 6년 전부터 용돈하시라고 월 10만 원씩 드렸단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지 이 어르신은 그것을 일 년 내 모았다가 100만 원을 채워서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이곳 읍사무소에 되갚다 주었다. 그것도 6년 동안. 혹시나 죽은 아들 생각해서인가? 어느 한구석, 살아오는 동안에 잠시라도 가슴에 묻은 상처를 잊었을 턱이 있었으리요만 마지막 안타까움으로 그걸 묻는 젊은 것에게 잠깐 눈시울을 붉히다가 먼 산을 본다.

잔수농악 상쇠 김용현! 평생 사오십 명 굿패들과 함께, 때론 그들 앞에 서서 동네의 무사안녕을 위하여 매구여- 잡귀잡신을 몰아내고 명과 북을 쳐 들렸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쳐 들렸던가?

그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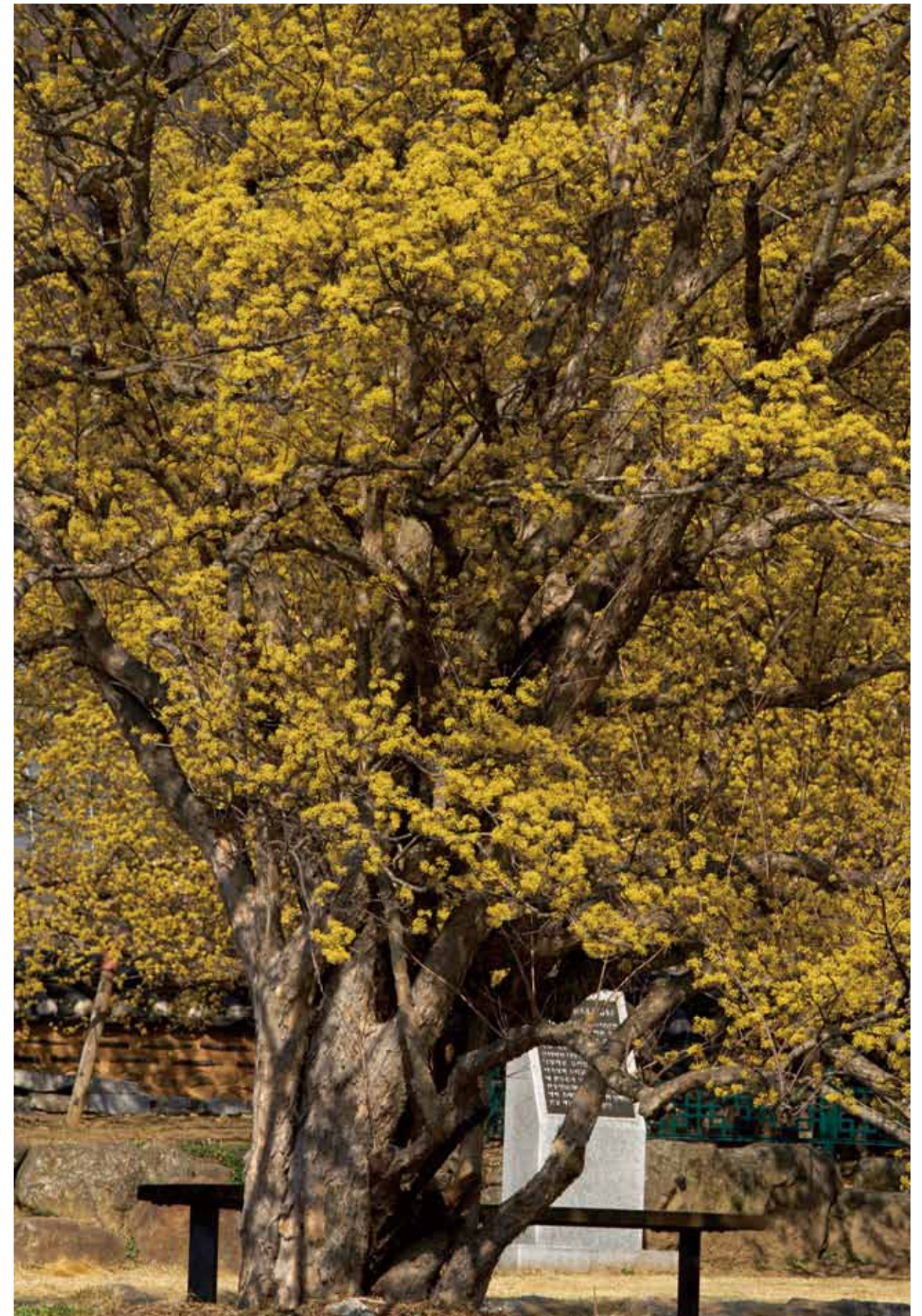
●
잡색
농악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



김용현 어른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를 통해 ‘가르치는 것 없이 가르치는 이가 참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꽃이 피었다. 구례에는
노란 꽃, 하동에는
하얀 꽃이다. 그 꽃 아래를
거닐다가 마을 토박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삶은 비록
처연했을지라도 그들이
살아오면서 꿈은 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꽃그늘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 또한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무딘 손으로
꽃밭 같은 삶을 일군 이들.
그들이 사는 마을은
활짝 핀 꽃 아래를 거니는
그들이 있어 더욱
아름다웠다.

“봄 되면 꽃 보고
살아서 좋아”
구례 산수유마을과
하동 매화마을



나라 안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하는 산수유나무다. 천 년이나 되었다는데 그 나이는 아무도 모른다.



계척마을에 열린 특산물 시장. 왼쪽에서 두 번째 모자를 벗고 웃는 이가 구매자 할머니다.

산수유와 함께 시작된 샛노란 봄 - 구례군 산동면 계척마을

구례의 봄은 노란색이다. 겨울을 막 벗어나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산수유가 샛노란 꽃술을 드러내고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성큼 다가온 봄에 절로 춘심(春心)이 동한다. 산동면에는 산수유마을이 여러 곳 있다.

산수유는 보통 3월 중순부터 만개하기 시작해 하순에 절정을 이루는데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상위마을을 시작으로 그 아래 하위, 반곡, 달전, 계척, 현천 마을이 유명하다. 이곳 마을들은 산비탈과 계곡, 골목 사이사이 돌담길까지 해마다 봄이 되면 마치 꽃 사이에 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산수유꽃이 노란 꽃물결을 이룬다. 그중에서도 계척마을은 구례군에서 북쪽에 있어 남원을 지나 구례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산수유꽃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마을이자 산수유 시목(始木)이 있는 곳이다.

“나무 수령이 천 년을 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몽실 몽실 꽃을 잘 피우는 게 참 이쁘제? 이따 12시 넘으면 노란색이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더 이쁘거든. 그때 다시 와서 보면 느낌이 또 다를 거여.”

매끈하게 포장된 길을 따라 산수유꽃이 만개한 계척마을로 들어서 시목 주변을 서성이는데,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건넨다. 전국 어디를 가나 지명과 관계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법, 이 마을도 예외는 아닐 터. 더욱이 산동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무 중 계척마을의 산수유가 시목이 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나무는 할마니고, 저 원달리 달전마을이라고 있어, 거기 있는 나무가 영감 나무여. 수락폭포 밑에 여기보다 더 큰 산수유나무가 있었거든. 원래는 군에서 그 나무를 시목으로 할라고 했는데 나무가 집 안에 있었어. 주인이 집이랑 나무를 다 팔아야 하는데 집을 안 팔아. 그리고 나무가 커서 집을 덮어 버리니까 주인이 베어 버렸어. 여기는 전부 밭이랑 논이었으니까 개발하기가 좀 쉬웠지. 10년쯤 됐어. 3월 돼서 산수유꽃이 피고 시목 앞에서 풍년 기원제를 지내고 나쁜 꽃축제가 시작돼. 산동에 산수유가 워낙 유명하니까 군에서 산수유테마파크 조성하면서 제사 지내고 축제도 열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됐지.”

어르신을 따라 마을길을 걸으며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5대째 이곳에서 터를 잡아 살고 있다는 왕현상(78) 할아버지는 ‘산동’이란 이름은 중국 ‘산둥 성(山東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했다.

“산동면에는 어느 부락을 가든 산수유나무가 없는

곳이 없어. 말하자면 중국 산둥 성에서 한 처녀가 지리산으로 시집을 올 때 산수유 씨를 품에다 품고 와서 고향 생각나면 불라고 심은 게 산동면 전체에 퍼진 거지. 그래서 이 마을 조성할 때 시목 주변에 만리장성처럼 성곽도 쌓고 한반도 지도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

그리고 보니 시목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중국의 만리장성과 닮아 있다. 산수유나무 한 그루가 연결해 놓은 한·중 화합의 모습이랄까. 계척마을이란 이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터지자 전쟁을 피해 들어온 오씨와 박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시냇물이 흐른다 하여 계천(溪川)이라 부르다가, 다시 마을을 가로지르는 냇물이 계수(桂樹)나무처럼 생겼다 하여 계(桂)자를 따고 임진왜란 때 벼를 바위 안에서 베를 짜 자(척)로 재었다 하여 척(尺)자를 써서 ‘계척(桂尺)’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어르신 집에 다다랐다.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서자 마당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는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상위마을에서 열아홉 살에 시집와 할아버지와 8남매를 낳고 58년간 부부로 살고 있는 구매자(77) 할머니. 할아버지께 듣지 못한 산수유 이야기를 이번엔 할머니에게 듣는다.

“산수유? 겁나게 심어 졌지.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 안 지어도 다 그거 갖고 먹고살어. 새끼들 공부도 갈키고 산수유가 효자지. 나도 산수유로 8남매 다 갈렸어. 아들들은 다 대학까지 갈키고, 딸들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갈렸지. 상위마을서 살다가 여기로 시집와서 내내 산동에서 살았으께 산수유하고 평생 산 거나 마찬가지지. 등구 마천 큰애기는 꽃감 깎기로 다 나가고, 구례 산동 큰애기들은 산수 까기*로 다 나간다는 그런 노래도 있자네. 그만큼 산동에 산수가 많아.”

평생을 산수유와 함께 했다는 할머니는 산수유가 사랑스럽다고 했다. 봄이 되어 꽃이 피면 꽃이 예뻐서 사랑스럽고, 가을이 되어 빨갭게 열매를 맺으면 식구들 먹여 살릴 돈 만드는 재미에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행복하디는 할머니. 지금은 산수유를 따고 말리는 기계가 있어 농사일이 좀 수월해졌지만 예전엔 모든 작업이 손으로 이루어졌다.

“산수 농사 짓기 참 힘들었지. 나무에 올라가 전부 손으로 따고 건조기도 없어서 방바닥에 늘어놓고 군불을 때서 쪼글쪼글하게 쪼려* 갖고 손으로 입으로 까고 그랬어. 씨를 빼야 하니까. 그냥 하면 또 안 까져. 뜨거운 물에 담가 가지고 뜨걸 때 까야 잘 까지지.

● 산수 까기
산수유 씨를 빼는 일

쪼려
산수유 씨를 빼기 위해 쪼글쪼글하게 살짝 말리는 작업



(왕현상, 78)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이 동네서 살았지. 나 어렸을 때는 동네에 산수나무가 몇 그루 없었어. 산수유 농사는 할아버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아버지가 하고 내가 물려받아서 3대째지. 논농사나 밭농사보다 산수유가 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논이랑 밭이랑 다 갈아서 산수유를 숨근 거여. 첨에는 우리 집하고 요 밑에 집하고 서너 집만 있었지. 쌀 한 가마니에 16만 원인데 산수유는 1키로에 3만 원씩 하나께 너 나 할 것 없이 땅이 있으면 산수유를 숨근 거여. 시방은 농사 못 지어. 나도 2000평 정도 논농사 짓다가 지금은 전부 나무 심어서 없어. 농사 안 지어도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니께. 큰 나무에서는 120근씩 나오고 그래. 예전에는 산수나무 하나로 대학 갈킨다고 했응께. 산수유나무 100그루만 있어도 부자지. 조합에 내다 팔기도 하고 서울 경동시장 같은 약재상들이 마을로 사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 재작년에는 금이 별로 안 비싸서 재미를 못 봤는데 올해는 금이 좀 비싸구만.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산수 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중국산은 싸고 국산은 비싸니께. 전부 손으로 하던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기계가 생겨서 좋아 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힘들지. 늙어서 기계를 쥘어지딜 못해. 산수유 딸 때 기계를 목에 걸고 흔들거든. 기계가 돌아가면 모가지 빠져.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산수유 딸 사람이 없어. 따서, 쪼려서, 썬 빼서, 건조시키는 데 공이 많이 들어. 가을에 열매가 빨갭게 익으면 그냥 생산수를 팔기도 하고 그래. 10월부터 수확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내려와 봐. 봄에는 온 동네가 노란 꽃인데, 가을에는 온통 빨갭게 물드니께. 봄에는 노랗고 가을에는 빨갭고, 우리 마을이 그렇게 이뻐.

●
금
시세나 흥정에 따라 결정되는 물건의 값



(임삼점, 87)

여수에서 살다 와서 사람들이 나를 여수덕이라고 그래. 돌산 항일암 밑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논이 없어서 보리랑 고구마 농사만 지어. 쌀밥 먹으라고 구례로 이사를 왔지. 그때가 제국시대였는데 큰애기 공출하고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나를 열여섯 살에 시집을 보내더라구. 쌀밥 먹으라고 구례로 왔드만, 시집이라고 와 본게 가난해서 손가락만 두 개 있더라. 양식도 없지, 옷도 없지. 홀애비 살림이 그렇지 뭐. 시아방●이 홀애비였어. 우리 영감 세 살 때 혼자 돼서 딸 하나랑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산 거여. 그때만 해도 암것도 모르니께 방 한 칸에서 시아방이랑 신랑이랑 다 같이 자고 그랬어. 시방 갔으면 좋기지.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께 친정 아버지 댁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어. 시집온게 논문 네 마지기 있더라. 그래도 영감이 부지런해서 농사짓고 소 먹이고 나는 길쌈하고 열심히 하나께 살림이 조금씩 불어나더라구. 산수유 농사가 많이 도움 됐지. 10월부터 따기 시작하면 음력으로 동짓달까지 비가 와도 따고 눈이 와도 따고 암튼 추울 때까지 따. 아까운게로 어떻게든 따서 쪼리고 썬 빼고 팔리고 그러지. 힘들어도 돈 바꾸면 재밌어. 그 때는 재밌지. 조합에 가서 돈 잘 받으면 좋고 값을 조금 적게 주면 서운하고 그러지. 농사짓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 영감 있을 때는 영감이 산수유도 따 주고 그랬어. 여든두 살에 저세상으로 떠났는데 죽기 전에 풍을 맞아 갖고 7년 동안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 하고 그렇게 누워 있다 갔어. 둘이 12남매 낳고 중간에 아들 하나 죽어서 11명이여, 첨에 딸을 내리 다섯 낳고 그다음에 딸 쌍둥이를 낳았더니 넘부끄러 댁가지도 못하겠다고 밥도 안 해 주고 드러눕더라고. 우리 영감 하나도 안 보고 잡은디 새끼들 먹여 살릴라고 고생한 게 불쌍해. 가난해서 가진 게 없으니까 식구들 밥이라도 안 굶기고 먹일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만 하다 갔지. 가끔 생각은 나지. 봄에는 나물 캐고, 가을에는 아들이 와서 산수 따 주면 그걸로 조금씩 용돈 벌어 쓰면서 그렇게 살어.

●
시아방
남편의 아버지

그렇게 씨를 빼서 벌에서 말려 갖고 산동장에 갖다 팔았지. 그래서 이빨도 다 상했어. 산수가 산(酸)이 강해 갓구 이빨이며 입술이며 다 망가졌지.”

5년 전 산수유 따는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 산수유 수확은 사람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휘어잡고 따야 했다. 그렇게 딴 산수유는 함께 떨어진 잎사귀며 잔가지를 골라내고 알맹이만 쪼려서 씨를 골라내 건조시켜 내다 팔 때까지 수없이 많은 손을 거쳐야 완성된다.

“산수가 무지하게 된 거여. 인자는 따는 기계, 쪼리는 기계, 까는 기계까지 다 있지, 건조기에 넣어 버리면 금방 말라 버리지. 그때는 벌에다 말리니까 한 달을 말려도 잘 안 말라. 그렇게 힘들여 맹글어도 우리는 먹도 못 해. 싹 내다 팔아 부려서.”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이어 가는데 할아버지가 말린 산수유 한 주먹을 들고 나오며 맛을 보란다. 쪼글쪼글하게 말린 빨간 산수유 한 알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자 새콤한 맛이 입 안 가득 퍼지며 기분까지 상큼해진다. 한껏 좋아진 기분으로 산수유꽃이 활짝 핀 계천길을 따라 걷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산수유밭에 앉아 있다. 여수에서 시집와 ‘여수덕’이라 불리는 입삼점⁽⁸⁷⁾ 할머니다.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뭘 하긴… 쭈도 캐고 냉이도 캐고 민들레도 캐고 그러지. 봄나물이 지천이여.”

산수유나무에도 봄이 오고, 땅 위에도 봄이 올라와 앉았다. 봄나물이 지천이라는 말에 밭으로 들어가서 할머니 곁에 앉아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쭈과 냉이가 한가득이다.

“정말 많이 캐셨네요?”

“조금 있다 정•때 되면 저 앞길에 장이 서거든. 다 들어서 내다 팔아야지….”

산수유축제와 함께 산동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목지로 알려진 계척마을 역시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맘때면 관광버스가 들어오면서 조용한 시골 마을이 잠시 들쭉거린다. 봄나물을 가득 담아 놓은 할머니 가방을 들고 마을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안내하듯 앞장선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복실이. 복실이의 길 안내를 받으며 다시 마을 큰길로 들어서자 어느새 할머니들만의 좌판 행렬이 만들어졌다. 봉지봉지 들어 있는 산수유, 취나물, 호박고지, 둥글레를 펼쳐 놓으며 해맑게 웃는 할머니들의 미소가 봄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인다.

● 정
오후의 전라도 방언

매화꽃이 피면 웃음꽃도 핀다 - 하동군 하동읍 먹점마을

매화와 함께 하동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다. 매화 하면 대부분 섬진강 건너 전남 광양의 섬진마을을 떠올리지만 하동에도 숨어 있는 매화촌이 있다. 악양면 미점리, 화개면 부춘리 그리고 구재봉(767.6m) 중턱에 자리 잡은 먹점마을이 하동의 대표적인 매화마을로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먹점마을은 고즈넉한 산골 마을 풍경과 함께 매화가 주는 봄 향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먹점마을은 섬진강을 따라 19번 국도에서 아랫마을인 호암과 흥룡마을을 거쳐 들어간다. 3km쯤 좁은 시멘트길로 산길을 타고 올라가면 산 중턱부터 순백의 매화로 뒤덮인 마을이 눈앞에 펼쳐진다. 구불구불 신비탈을 따라 층층이 이어진 다랑이밭과 야트막한 돌담, 마을 고샅길[●]과 개울가까지 온통 매화꽃으로 뒤덮여 있다.

산 위에 이렇게 넓은 매화 마을이 있다니.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놀라울 뿐이다. 비탈진 마을길을 따라 조금 더 산등성으로 올라서자,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고스란히 눈에 담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다.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윽한 매화 향이 가슴 깊숙이 빨리 들어간다. 흰 꽃으로 연결된 나무와 나무 사이 꽃향기를 맡으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걷다가, 지게 위에 나무 한점을 가득 지고 산비탈을 내려오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하동에서 매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 먹점이여. 꽃피는 3월도 좋지만 매실 수확하는 6월은 또 얼마나 좋다구.”

먹점에서 나고 자란 조기찬⁽⁷⁵⁾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말대로 하얀 매화마을이 초록빛 마을로 변하면 또 어떤 모습일까? 봄이면 매화꽃으로 아름다운 정경을 만들어 내고, 초여름이면 열매를 맺어 고단한 산골 살림에 힘을 보태 준다. 효자 나무도 이런 효자 나무가 없다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 밑으로 함께 걸음을 옮긴다.

“처음엔 매화보다 밤나무가 많았어. 근디 밤 값이 안좋은니께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했지. 한 30년 넘었을 거여.

처음 강 건너 섬진마을에서 나가 매화나무를 가져다 심었응께. 방송 같은 데서 매실이 몸에 좋다고 여기 저기 나오면서 매실 금이 뛰니께 너도나도 밭에다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매화골이 된 거지.”

매화골. 먹점마을의 새로 지정된 도로명 주소에는 ‘매화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마을은 ‘묵점(墨店)’이라고도 불리었던단다.

“먹점이 아니라 묵점이라고 불렸지.

● 고샅길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양옥희, 79)

봄 되면 꽃 보고 살아서 좋지. 이 마을로 시집와서 벌써 50년 넘게 살았어. 악양에서 먹점재 넘어서 스물네 살에 여기로 시집을 왔지. 흥한 소리 하나 해야겠네. 내가 팔자가 사나워 시집을 두 번 왔거든. 본 시집은 열일곱 살에 갔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고. 친정에서 살다가 다시 먹점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이번엔 술 마시고 노름하고 속을 썩이는기라. 말로 다 못한다, 내 고생한 이야기. 친정에서는 그래도 쌀밥 먹고 살 만큼은 되었는데, 시집이라고 오니깐 콩보리밥도 겨우 먹고 살더라고. 집도 움막처럼 생겨 갖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이더라. 그래도 이 집 식구 텔라고 그런가 그게 싫지 않네. 겨울 지나 요때쯤 되면 속캐서 밑에 깔고 밥을 얹혀. 그러면 온 밥이 속 냄새로 진동을 하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라고 하지.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봄에는 쑥밥, 보리밥 엄청 먹고 살았지. 예전엔 여기 매실나무 한 그루도 없었어. 다들 나락 농사 짓고 살았지. 근데 뭐 벼농사가 돈이 되나? 시집와서 몇 십 년 지나니까 매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네. 나도 영감 저세상 떠나고 막내아들이 도회지 살다 들어와서 매실 농사 지은지는 7년쯤 됐어. 작년엔 매실이 풍년 들어서 매실 금이 떨어져 갖고 돈이 별로 안 됐지. 그래도 이 동네가 살기 좋아.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꽃도 좋고. 매화꽃 피고 나면 골짜기마다 밤꽃이 또 억수로 활짝 피거든. 그때 와서 봐도 좋고. 저 산 아래 있는 것들이 전부 물앵두야. 6월에 매실 열매 맺힐 때 앵두도 빨갛게 익거든. 그때 다시 와도 참 좋아.



(조기찬, 75)

나가 창녕 조가인디, 어렸을 적에는 이 마을에 창녕 조씨가 절반을 차지했어. 임씨도 조금 있었고, 신씨도 몇 집 살았는데 자손 번창이 안 되니까 대가 이어지질 못하고 나가 버리더라. 6대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고조 되시지, 그때부터 이 마을에 뿌리내리고 살았어. 그래도 이 산골짜에 땅이 좀 있어서 거기다 이것저것 지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매실 농사만 짓고 살지. 밭으로 하면 3만 2000 평, 그루 수로 치면 한 2500그루 정도 될 거여. 원래 과수 농사가 가지 쳐 주고 슈아 주고 손이 많이 가서 힘든 뱀이거든. 근디 매실 농사는 수월한 편이여. 배나 사과는 알을 굵게 키워야 하니까 일일이 손으로 슈아 주야지 봉지 씌워야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런데 매실은 조금 굵게 키울라든 가지만 잘 쳐 주면 되니까. 매실은 6월에 수확하고 나쁜 여름엔 할 일이 없어. 가을 돼서 풀도 베고 가지도 쳐 주고 퇴비도 주고 그러지. 땅을 기름지게 가꿔 놓아야 또 내년 농사 지으니까. 가지치기는 보통 11월부터 꽃피기 전 2월까지 끝내지. 꽃이 피었을 때 건드리면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잘 안 맺거든. 그때는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먹점 매실은 향이 짙고 단단해서 다른 데보다 맛이 아주 좋아. 평지랑 다르게 산골 마을이라 기온차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 하대. 아랫마을 이랑 보통 3도 이상은 차이 나니까. 과실은 기온차가 크면 당도가 높아지는데 매실은 당도보다 구연산이 높아진다는구만. 매실이 몸에 좋은 거라니까 장아찌도 만들어 먹고 매실청 담가서 잘 숙성시켜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게 바로 매실이여.

검은 흙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도 하고, 난리를 피해 가기 좋은 곳이라 먹으로 점을 찍어 두었다 해서 묵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그만큼 하동에서도 산골 오지 중의 오지였지. 6·25 때도 마을에 피해가 없었으니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만큼 외진 까닭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한적하고 여유로웠던 마을. 지금은 하동의 매화골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꽃피는 3월과 매실 익는 6월이 되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산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 마당에 홍매화가 곱게 피어 있는 집이 눈에 들어온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에 정착해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여태주⁽⁴⁵⁾ 이장의 집이다. 낮은 돌담 밑 할미꽃과 수선화, 오래된 고목에서 꽃을 피운 홍매화까지 꽃잔치가 한창인 마당이 참 예쁘다고 하니, 마을이 예뻐서 그런 거란다.

“봄이면 우리 마을은 꽃이 쉬지 않고 핍니다. 매화꽃 질 때쯤 물앵두꽃 피고, 산벚꽃 피고 나면 배꽃 피고, 살구꽃 피고, 은은한 밤꽃까지 꽃들이 줄지어 피고 지고 하죠. 밤꽃 필 때는 마을이 온통 밤꽃 향기로 아주 달콤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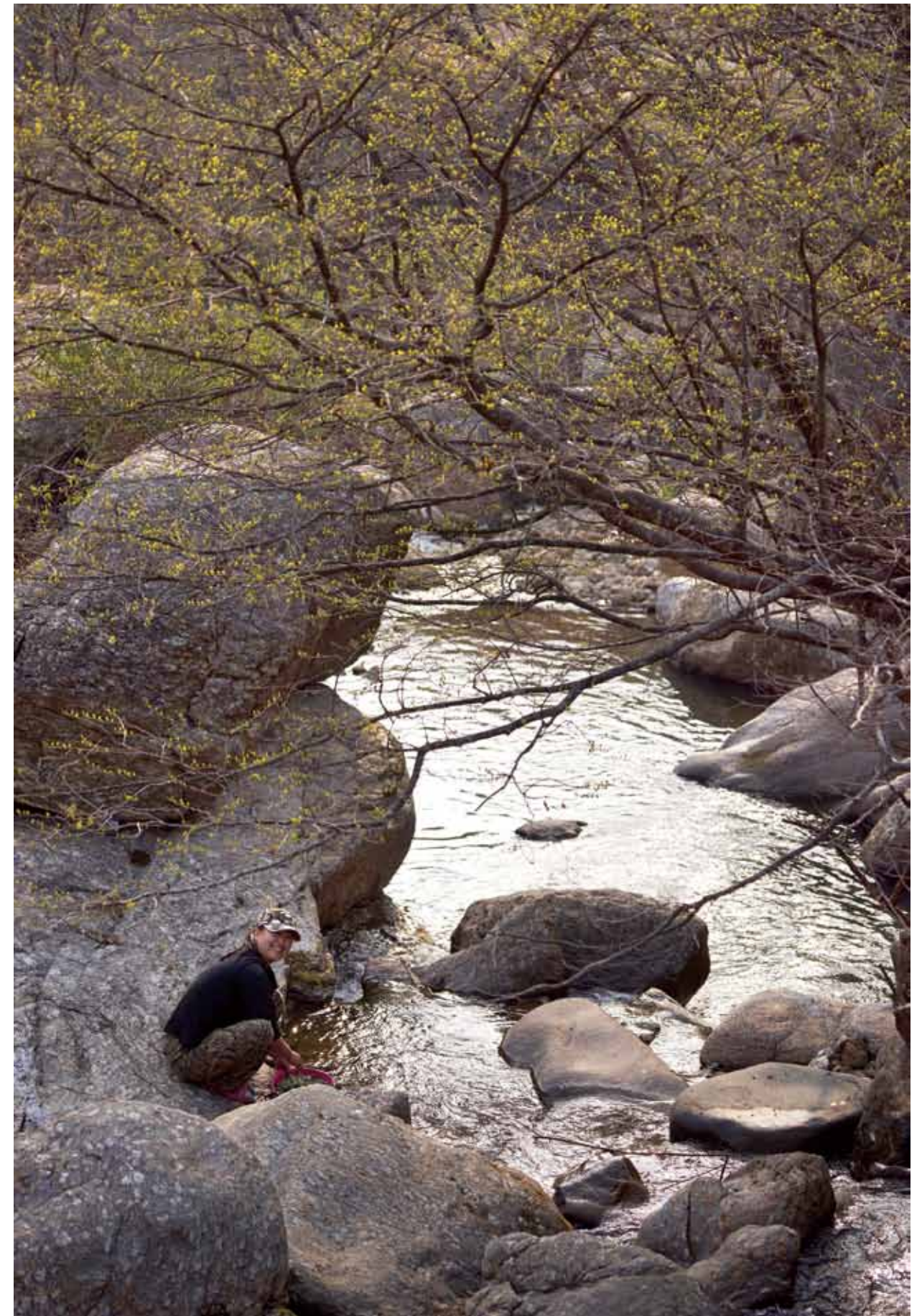
“봄이면 우리 마을은 꽃이 쉬지 않고 핍니다. 매화꽃 질 때쯤 물앵두꽃 피고, 산벚꽃 피고 나면 배꽃 피고, 살구꽃 피고, 은은한 밤꽃까지 꽃들이 줄지어 피고 지고 하죠. 밤꽃 필 때는 마을이 온통 밤꽃 향기로 아주 달콤해집니다.”

꽃들이 줄지어 이어 피는 꽃마을. 그래도 이 마을의 주 수입원은 매화꽃이 맺어 준 매실 농사다. 30가구에 51명. 마을 사람 대부분이 매실 농사에 주력하는 그야말로 순도 99.9%의 매화마을. 한때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15가구까지 떨어졌다가 귀농과 귀촌으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한층 젊어져 버렸다.

“고향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도시 생활 정리하고 귀농과 귀촌으로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우리 마을의 경우 40~50대가 13명 정도 되는 편입니다. 시골 가면 60대만 해도 젊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장님 이야기를 듣고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개울가에서 누군가가 쭈을 췌고 있다. 3년 전 부산에서 부부가 이곳 먹점마을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들어왔다는 최정희⁽⁴²⁾ 씨. 3월엔 마당에 올라온 쭈으로 쭈국도 끓이고 쭈떡도 해 먹고, 5월엔 고사리, 6월엔 매실 따면서 시골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단다.

마을을 내려오는데 아쉬움이 컸다. 노을에 젖은 매화 향기가 더욱 짙어졌기 때문이다. 꽃 진 자리에 초록 매실 알알이 열릴 때 다시 찾고 싶어진 까닭은 오늘 채 못 들은 이야기들이 코끝에 감도는 매화 향기처럼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이다. ☺



3년 전 부부가 부산에서 이곳 먹점마을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들어왔다는 최정희 씨.



‘재치국’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재치’로 끓인 국이라는 말이고 주로 부산에서 쓴다. 또 ‘갱조갯국’은 ‘갱조개(羹貝)’로 끓인 국인데 섬진강 주변에서 쓴다. 이는 둘 다 아주 작은 조개인 ‘재첩(在妾貝)’을 일컫는 말이며, 거기에 국이 들어가면 그 작은 조개로 끓인 맑은 국을 뜻한다. 박승영(76) 씨는 당신이 스물다섯 남짓 할 때부터 갱조개를 캐었니까 어느덧 50여 년을 섬진강 물에 몸을 담근 셈이다. 그이가 직접 강에서 건져 올린 갱조개로 끓인 재첩국을 얻어먹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또 신라 때부터 하동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배다리시장(舟橋場)과도 비슷한 섬진강에 들어섰던 강 위의 오일장 이야기도 들었다.

“보릿고개에 섬진강 사람들 얼굴은 멀끔했어”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박승영

•
기랭이
부채 모양의 굵개가 달린 ‘손틀방(도수방)’
으로 강바닥의 재첩을 긁어 올리는 도구

부황(浮黃)
오래 끓주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본디 재첩국이 보릿고개 넘던 음식이라”

요새는 재첩이 없지. 재첩은 좀 더 있어야 되는 데…. 보자, 강에 이실라나 모리졌네. 재첩은 번식이 워낙 좋아서 하룻밤만 지나도 조개 하나가 세 개가 돼 있을 정도라. 그러이 오늘은 줍쌀만 해도 내 일이라 벌써 손톱만 하이 커요. 나는 여서 태어났지. 지금 이 마을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저쪽에 섬 같은 거 보이죠, 그 너머에 있는 다리 아래가 우리 집이었지.

내가 40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식량이 지금 처럼 흔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래 갱조개가 구황 음식이라. 요새가 작년 추수한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좀만 있으면 보릿고개라. 그럼 갱조개가 그때 켈 마이 잡히고 맛이 난다 말이오. 산에 사는 사람들은 보릿고개 힘들 때 나무뿌리 뜯어 묵고 산다 이 카는데, 우리는 여서 갱조개 캐서 묵고 보릿고개 넘었지. 그때는 강에 갱조개가 천지라. 집집마다 한 사람씩만 나와서 캐도 되는데 삼으로 퍼 담았단니까…. 그래 그걸 삶아 가지고 무쳐 먹거나 국으로 먹고 죽도 췌 먹고 그래 먹는 거지, 광양제철 들어 오고 여 수위가 이래 높아져서 강이 깊어진 거지, 전에는 허리도 안 왔어. 그때는 강에, 이 앞이 전부 백사장이라. 모래톱이 짝 있었지. 그런 모래톱을 등이라 했는데 갱조개가 그런 데 마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집 있는 데 저 섬 같은 거, 저거 이름이 갱조개섬이고 조갯등이라. 조개가 엄청 많다 이 말이지. 그러이 요새처럼 기랭이•나 이런 거도 필요 없이 그저 텃밭이라. 나가기만 하면 재첩이 지천이라. 무지하게 나왔지. 그때는 굵으면 재첩이고 밟으면 재첩이여. 짜잘한 것도 있어. 그런 거는 일부러 피해 잡았지. 전부 씨알이 굵은 놈만 잡고 그랬는데 인자 또 그런 세상 안 올 거라. 물도 바뀌고 다 변했어.

그래도 옛날에는 여 재첩이 마이 났다 말이라. 그래 섬진강 이쪽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도 얼굴이 전부 다 멀끔했어요. 다른 산골이나 이런 데는 보릿고개에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누리기리하게 부황• 들린 사람들 같은데 섬진강 사람들은 얼굴이 뽕얇고 그래요. 재첩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걸로 국을 끓여 먹어서 그런 거지.



거랭이를 들고 서 있는 박승영(76) 씨, 그는 이십 대부터 재첩을 캐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을 놓지 않았다.

“장배에 한번씩 가 보면 장작, 연탄도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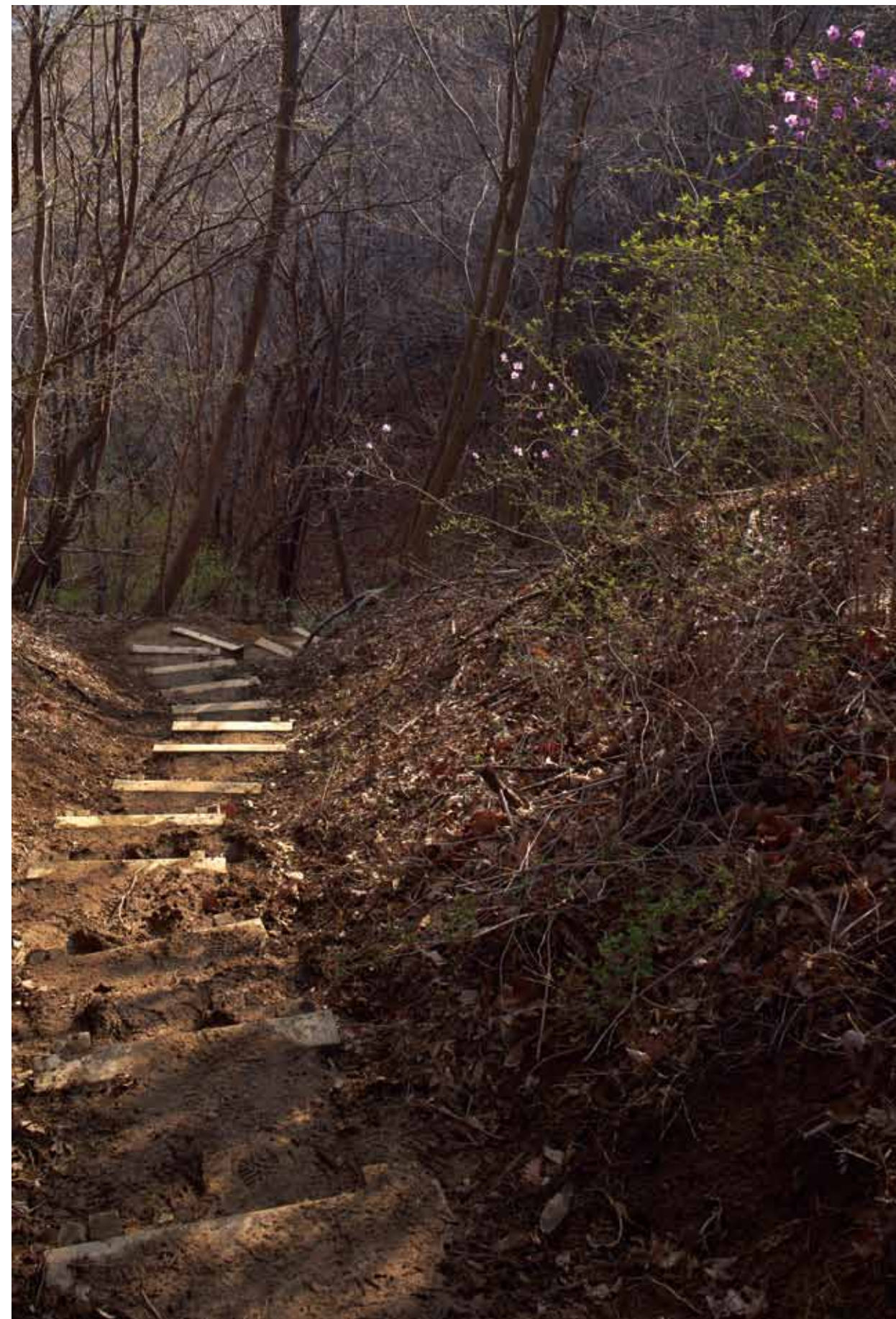
부산 이런 데도 재첩이 있어서 내가 젊을 때 여 재첩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팔아 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여기 장배라는 기 있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읍내 장날 맞춰서 배들이 강에 줄줄이 올라왔지. 그때 그 배를 타고 부산에 나가 팔아 봤는데 운임도 안 나와요. 그래 그만뒀지. 그때는 이 강에 장배 수십 척이 떠 있었는데 볼 만했어요. 읍 장날이 2일, 7일인데 그날이 가깝으마 부산, 충무나 마산, 거제 이런 데서 배들이 올라왔는데 전부 장배지. 30톤짜리, 70톤짜리 크기도 다 다른 배들이 온갖 물건을 다 싣고 올라오는데 읍에도 가고 이 앞에 서 있다가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건들 사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강물이 얼마나 맑았냐 하면 그 배들이 며칠씩 강에 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물을 떠서 그걸로 밥을 해 먹어요. 요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 요새 이 물은 거기다 대면 물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부산까지 배를 타고 다니는 까닭이, 버스가 있어도 그거에는 짐을 마이 못 실는다 이 말이라. 그러이 화물은 전부 배에다가 그래 싣고 다녔어요. 걸리는 시간은 버스나 배나 모두 하루 꼬박 간다고 봐야지. 그때 이 앞이 다 모래톱이라 했잖아요. 그래 배들이 가다가 모래톱 등에 걸린다 말이라. 그런 일도 술하게 있었지. 그럼 급하게 가야 되는 배들은 마을 청년들이 다 나가서 배를 밀고 그러고, 아닌 배들은 그저 물 들어올 때까지 노는 거지 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장배가 다녔는데 대선호, 성룡호, 금길호 이런 배들이 말도 못 하이 많았다 말이야. 그래 마을 앞 등에 걸려서 꼼짝 못 하는 배 서 있고 하면 배에 한번씩 가 보면 장작이나 연탄도 있고 단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옷이나 이런 것도 있고, 문방구 차려도 될 만큼 물건이 많아. 어린 마음에 보면 없는 것이 없고 그랬지. 또 배가 나갈 때는 소는 안 실어도 돼지는 마이 실어서 나갔어요. 그런 배들이 저 아래 광양에 망덕이라는 데 있어, 거기서부터 이 마을 저 마을 강 옆에 있는 마을마다 머무르면서 화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랬다 말이야. 다 지나간 이야기들이야. 국은 어때요. 많이 먹고 가요. ㉠

● 단지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마을과 마을, 그 사이로 흐르는 것들 구례 농평마을과 하동 목통마을을 잇는 당재길

피아골 언저리에서 800m까지 산길을 오르면 길이 끝나는 곳이 구례의 농평마을이다. 또 화개골을 따라 올라가면 칠불사 못 미처에 있는 가장 끝 마을이 하동의 목통마을이다. 화개장터보다 더욱 농밀하게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곳'. 이 두 마을을 이어 준 길은 당마루에 있는 고개를 오가던 '당재길'이다. 그 길 위를 아이들은 토끼를 잡으러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화개재 마루에 펼쳐지던 장에도 갔다. 그뿐일까. 가을걷이를 마친 농평 사람들은 곡식을 이고 지고 목통의 물레방아를 찾곤 했다. 그런가 하면 목통 아가씨는 농평으로 시집을 가고, 농평의 총각은 목통으로 장가를 들기도 했다. 그렇게 두 마을을 잇는 흙길은 긴 세월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져 여태 윤이 나도록 반질거린다. 당재길 길옆에 아름다운 들꽃이 지천으로 피기 시작했지만 길 위에 켜켜이 다져진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못했다.



농평과 목통을 오가는 길은 사람의 발길로 다져진 길이다. 거기에 옛사람들의 마음까지 더해져 흙길이 윤이 난다.



목통마을에서 다시 당재로
되짚어 올라간다.
내려갈 때와는 사뭇 달리 보인다.
지계에 나락을 지고 오르내렸을
이들의 숨소리와 땀 냄새가
어디선가 나는 듯하고, 고사리를
끓으러 다니던 아낙들과, 나무를
하고 풀을 베고 토끼 잡고 가끔은
돌팔매질도 하던 소년들과,
연인을 만나러 한달음에 고개를
뛰어넘었을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가 소곤소곤
들리는 듯하다.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길을 만들며 흐르듯 사람의 길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정과 인심의 흐름이 그리고 사랑의 흐름이 그러할 것이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는 길도 그랬을 것이다. 피아골을 따라 올라가다가 연곡분교 지나서 오른쪽으로 구불구불 더욱 가파른 산길을 치고 올라가면 도로가 끝나는 해발 800고지에 농평마을이 있다. 그리고 화개장터에서 화개골을 따라 쌍계사도 지나고 칠불사도 지나 가장 끝 마을이 목통마을이다. 반야봉에서 삼도봉, 불무장 등을 지나 통쪽봉과 촛대봉을 흐르는 능선이 이 두 마을을 가로지르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뉜다. 그러나 지금처럼 도로가 좋아지기 전에는 형제처럼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두 마을 다 산골 깊숙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립된 두 마을 사이로 길이 흐른다. 고립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끌어당겼다.



농평마을은 가파르게 올라오던 길을 생각하면 뜻밖에 너른 평지 마을이다. 탁 트여 웅색하지 않은 지형에 맞은편 산봉우리가 눈높이에 서 펼쳐진다. 햇빛은 무진장으로 쏟아진다. 햇빛만일까. 달 뜨면 달빛이 별 뜨면 별빛이 거칠 것 없이 쏟아질 것이다. 농평의 농이 희롱할 룡(弄) 자라고 하니, 꽤나 여유가 느껴지고 우주적인 상상력까지 자극한다. 옛날에 길 잃고 헤매던 산꾼들이 이 마을 불빛을 보고 찾아오곤 했다니 불빛마저 별빛인 듯 서로 희롱했으리라. 이장 이인재⁽⁵¹⁾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는데 70년대만 해도 45가구 정도가 살았고, 전교생이 65명이나 되는 분교도 있었다고 한다. 소풍은 6년 내내 당재 너머 칠불사로 다녔는데, 지금은 유리로 막힌 아(亞)자방 구들 밑을 기어 다니며 놀았단다. 외지에 나가 살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2000년, 그때만 해도 5가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은퇴한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 15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당재는 목통골 머시매들과 싸운 장소로 기억된다.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며 싸웠다고 하니, 깊은 산골 어린 학생들까지 지역 감정에 몰들었다는 얘기일까.

“뭐 크게 싸운 건 아니고요. 목통골 애들이 문당[●]에 올라오면 우르르 도망갔다가 돌맹이나 던지고 그랬죠. 처녀총각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분이 나서 결혼도 하고. 우리 고모가 목통마을로 시집갔잖아요. 목통 이장이 고모부 조카예요. 나하고는 사돈 지간인 거죠.”

농평마을은 구례 구간의 둘레길 코스가 끝나는 지점이다. 전봇대도 그곳에서 끝난다. 전봇대 앞에서 다래나무 수액을 받고 있던 박천재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간신히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같지 않은 길을 놓쳤을 것이다. 사업이 다 망해 거지가 돼서 들어왔다는 그는 공산품은 딸들이 택배로 보내 주기 때문에 마을을 내려가는 일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된다고 했다. 그가 알려 준 길 같지 않은 길을 벗어나니 이번에는 갈래길이다. 어찌나 하고 망설이는데 문득 노인 한 분이 스윽 지나간다.

크지 않은 체구지만 곳곳한 허리에 배낭을 멘 노인은 목통마을에 다녀와서 만나려고 했던 장참봉⁽⁸⁶⁾ 할아버지였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늘 새벽같이 밭에 나오신다는 분이다. 당재 너머에 밭이 있어서 가 보는 길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다 이 고개 넘어 다녔어. 우리는 고개 넘어 화개장에 가고 목통 사람들은 구례읍 장에도 가고. 쌀 사러들 많이 왔어. 우리는 고사리, 밀 같은 거 팔러 나가고. 날 받아서 모 심을 때는 서로 오며가며 품앗이해 주고. 경상도 전라도 그런 거 없이 똑 한 동네 사람맹이로 살았어.

농평마을에 햇별이 무진장 쏟아졌다. 달 뜨면 달빛, 별 뜨면 별빛이 거칠 것 없이 쏟아질 것이다.

●
문당
고개의 전라도 방언



농평마을의 장참봉 할아버지. 그의 밭은 당재 너머에 있다. 그래서 매일 배낭에 이것저것 싸서 당재를 오간다.



당재 위로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부신 햇살을 받고 붉은 태를 뿜내는 진달래꽃이 길보다 먼저 보였다. 좁고 구불한 길은 거친 등산화를 신고 길을 길이 아니었다. 시간도 잊은 채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더야 하는 비움의 길이었다. 농평에서 목통으로 이어지는 얇은 계곡인데 작은 물줄기가 쉬지 않고 흘렀다. 길은 물길과 함께 갔고 중간중간에는 그 물길을 잡아 눈을 만든 돌둑이 남아 있었다. 맞은편 기슭에는 집터였음직한 돌 축대가 더러 보였다. 목통마을에 도착해 들은 이야기로는 50여 년 전, 이곳에도 몇 집 살았는데 화전민 이주 정책 때 몇은 목통마을로 내려오고 또 몇은 이사했다고 한다. 걷는 것 같지 않게 걸었다 싶을 즈음 불현듯 이 길을 걷고 걸었던 사람들의 삶이 느껴졌다. 이 길은 골짜기에서 손바닥에 굳은살이 돋도록 팽이질을 하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쉼 없이 오르내린 사람들의 체취였다. 길을 걷도록 해 준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 했다. 몇 발자국 더 걸으니 나무들 사이로 집들이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했다. 목통마을이었다.

물레방아는 현재 목통마을의 이장 집안에서 돌아가며 운영했다고 한다. 1997년 억수 같은 비와 함께 들이닥쳐 흠더리가 쓸려 내려갔던 태풍 ‘사라’ 때도 물레방아가 돌았다고 하니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용을 한 셈이다. 길에서 보기엔 낡고 부서졌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도회지의 어느 방앗간 설비와 구조가 비슷하다. 목통마을의 물레방아는 단지 곡식만 뿜는 데 그치지 않았다. 때에 따라서는 떡방앗간처럼 떡을 빼기도 했으며, 밤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던 마을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역할까지 했다. 그 덕분에 목통마을은 깊은 골짜기 막다른 곳인데도 자가 동력원을 가진 흔치 않은 마을이었다. 그 덕분에 목통마을은 하동군의 저탄소 배출 마을로 지정됐고, 물레방앗간 복원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지정되었다. 물레방앗간 주변에 복원할 방앗간의 기둥과 들보로 쓸 목재들이 쌓인 것을 보니 공사는 곧 시작될 것으로 짐작된다.

꽃사태가 나듯이 피는 꽃보다 숲 속에서 만나는
한 그루 산벚꽃이 더 아련한 파문을 일으킨다.

우리 집안도 할아버지 때 경상북도에서 넘어온 집안
이야. 그렇게 자꾸 접촉하면서 사니까 말씨도 서로
비슷해. 동란 때는 다 소개 나가서 피아골검문소 있
는데 살아서 죽은 사람도 없고, 한 10년 가차이 들락
날락하면서 농사짓고 그러다가 다시 치춤 들어왔어.
그때는 길이 안 좋은께 소로 논 갈고, 경운기 들어
온 거는 여기 도로 생기고 나서야. 한 20년 됐어. 그
전에는 다 지게로 짊어지고 땡겼제.”

이제는 이쪽저쪽 친구들이 다 저세상 사람이 되어 버려서 목통으로 굳
이 넘어갈 일도 없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홀연히 사라진 길을 따라 당
채를 넘었다. 그리고 곧 숲길에 흘러 버렸다. 작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
는 길은 백 년 넘게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져 흙길이 반들반들했고, 인
위적인 설치물이 거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이어져 있는 것이 어디 길뿐이라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구례와 하동을 잇는 벚꽃십리길은 주차장이었다.
피아골이든 화개골이든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절정은 길
지 않아 꽃잎 날리고 꽃 진 자리만 붉게 남은 길에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곳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다. 고즈넉한 산 속에서 조
용히 꽃을 피우고 있다. 꽃사태가 나듯이 피는 꽃보다 숲 속에서 만난
한 그루 산벚꽃이 더 아련한 파문을 일으킨다. 신록의 어린 잎들 사이
로 연분홍 진달래는 또 어찌란 말인가. 바위 틈 여기저기 원추리가 번
져서 군락을 이루고, 비비추 새순은 새 부리처럼 뾰족하다. 방금 들린
새소리가 비비추의 소리인 것만 같다. 층층나무 붉은 가지에 다닥다닥
붙은 초록 잎은 아기 손바닥처럼 앙증맞고, 고사리순은 이 봄이 하냥●
의아해서 물음표만 피워 올린다. 장대를 꽂아 놓은 듯한 두릅나무 새순
은 우주와 교신하려고 안테나를 뽑아 올린 것 같다.

한적한 숲길을 홀로 걷노라니 앙상한 나뭇가지조차도 상형문자처
럼 보인다. 이런 길은 역시 혼자 걸어야 한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내 속에 아주 많은 내가 말을 걸고 자연과 어울려 논다. 엄나무와 두릅
나무 발을 만나자 사람의 마을이 가까웠구나 싶다. 뻑뻑하게 심은 두충
나무 군락은 마치 자작나무 숲처럼 신비롭다. 그 사이로 노란 개나리
덤불과 파랗고 빨간 지붕들과 신작로가 아련하게 보인다.

농평마을에서 목통마을로 넘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물레방아 때
문이었다. 여름에는 보리와 밀을, 가을이면 나락을 쪼으려고 넘어왔다
가 어둡도록 일이 끝나지 않으면 자고 가기도 했다. 농평마을뿐 아니라
철불사 아래 범왕마을, 신흥마을 사람들도 이용했고 수량이 풍부해서
전기도 일으켰다고 한다. 1810년에 만들어졌다니 200년이 넘는 물레방

아다. 이걸 만든 이가 목통마을 이장 김수만 씨 할아버지다.

“이 마을이 천 년도 더 된 마을이에요. 우리는 8대
째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 지금까
지 한번도 외지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
부터 여기가 부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8가구
다 토박이예요. 땅 팔고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풍요로운 이곳에 깃들어 근근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
다. 솥 굽는 이도 많고 화전민도 많아서, 계곡에는 황토물이 흘렀다. 일
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신흥마을까지 도로를 만들어 나무를 실어
가는 바람에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되었다. 이제 계곡에는 그냥 떠먹어
도 좋은 맑은 물이 흐르고 숲도 회복되었다. 목통마을이 저탄소 마을로
지정되면서 부서진 물레방아도 곧 수리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이
마을 이름이 목통인 것은 으름나무가 많아서라는데, 곧 으름꽃 향기도
진동하겠다. 물레방아가 있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화개재다. 이 고개
가 남원, 인월, 장수 등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데다, 화개장터까지
범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1300고지 화개재에서 해산물과 임산물을 교환
하는 장이 열렸다. 목통마을에는 보부상과 소금장수들의 발길이 붐비
고, 산 중턱에 있는 주막들은 며칠에 한번씩 돼지를 잡을 정도로 흥청
거렸다. 마을 사람들도 막걸리를 마시러 한번씩 올라가곤 했는데 밤에
는 호랑이 때문에 못 걸어 다녔다고 한다. 호랑이?

“겨울에 물레방아가 얼어 버리면 전기를 못 일으키
니까 새벽에 계곡물을 막으려고 나오거든요. 그러
면 계곡 건너 바위에서 파란 인광불이 보였어요.”

그게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호랑이인지 표범인
지가 떠난 지금 이곳에는 반달곰이 살고 있다. 이제는 당채를 넘어 다
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가쥌. 여기서 농평까지 차로 40분인데, 당채 넘어
가면 20분이면 가니까요. 옛날에 싸움질한 거야 젊
은 혈기로 그런 거쥌. 그것보다는 토끼 잡으러 뛰어
댕긴 날이 더 많아요.”

목통마을에서 다시 당재로 되짚어 올라간다. 내려갈 때와는 사뭇 달리
보인다. 지게에 나락을 지고 오르내렸을 이들의 숨소리와 땀 냄새가 어
디선가 나는 듯하고, 고사리를 끊으러 다니던 아낙들과, 나무를 하고
풀을 베고 토끼 잡고 가끔은 돌팔매질도 하던 소년들과, 연인을 만나러
한달음에 고개를 뛰어넘었을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가 소곤소곤 들리는
듯하다. 나는 이 길이 둘레길이니 뭐니 하지 말고 부디 지금처럼 고즈
넉하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다. ☁

●
하냥
늘(계속하여 언제나)의 전라도 방언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스스로는 그렇지 않겠거니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다.
반추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내가
더 먼저 변했을 수도 있다.
사람이 걷던 오솔길은
넓어지거나 좀 더 편한
곳으로 새롭게 길이 났다.
그렇게 길은 좋아졌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사람이
걷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걷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닌 스포츠가 되어
버린 지금 그 길에는
사람을 태운 자동차와
자전거만 뽕뽕 다닌다.
지리산은 그만큼 변했다.

그 길 위에 다시 서다 회남재 옛길

경남남도 하동군 군수는 2014년 10월 “지리산이 감싸 안고 백두대간의 끝자락… 푸른 기운… 생명의 젖줄 섬진강이 포근한 품을 내주는 곳… 신비의 땅 하동을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만천하에 선포한다.”라고, 해발 740m의 회남재에서 열린 ‘2014 힐링 시티 하동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에서 크게 말했다.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는 “지리산 자연림 속의 황토 숲길을 따라 소설 「토지」의 무대 최참판택을 연결하는 힐링 관광 코스로” 하동을 “맨발 걷기의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고자 기획됐다.”(「뉴시스」, 2014년 10월 20일자) 회남재 마루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이 고갯길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하동시장 등을 연결하는 산업 활동의 통로이자 산청, 함양 등 지리산 주변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던 소통의 길이었으며, 근대에는 빨치산의 주요 이동 통로 및 활동 근거지로 토벌을 위한 게릴라전이 자주 벌어진 곳으로 우리 민족사의 한이 서린 곳”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지리산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리산은 지금 위기의 절정에 있다. 그것은 하동군을 알프스로 여긴 언어와 옛길을 방기한 표현 속에 있다.

하동군은 이 사업을 위하여 악양면에서 회남재로 올라오는 길의 포장을 끝냈고, 목계리로 나가는 길에 나무 의자 등을 곳곳에 놓아 걷는 이들을 돕고 있다. 이름하여 관광도로가 생긴 것이고, 그 의미는 ‘대한민국의 알프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름으로, 힐링 시티와 슬로 시티 같은 유행하는 외래어로 포장되고 있다. 하동군수가 세운 회남재 고개마루 이정표에는 ‘회남재’라고 우리말로 쓰고, 팔호 열고 ‘회남치’라고 한자어를 덧붙였다. 고개를 뜻하는 접미사에는 큰 고개를 뜻하는 령(한계령), 작은 고개의 현(아현) 등이 있는데, 치(峙, 정령치)는 의미가 비슷한 일본어 상(峠)과 같은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보여진다. 회남재 옛길은 가뭇없이 사라진 유령의 길이다. 하동군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사라진, 은밀한, 매복된 옛길의 복원일 터다. 화려한 언어는 결코 하동군의 언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임도는 결코 하동군의 살덩어리가 될 수 없다.

마음의 안식처였던 젊은 날의 지리산

높이 1915m인 지리산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의 산’ ‘매혹의 산’이다. 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대표적인 산이 지리산이고, 다 보여줄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는 산이다. 또한 지리산은 산의 높이보다는 둘레가 으뜸인 산이다. 경남과 전라남북도의 함양, 산청, 하동, 구례, 남원의 다섯 개 군을 아우르고 있는 최초의 국립공원이고, 산속에 또 다른 산이 술하게 담겨 있는 거대한 산군이다. 골골살살에 사람들이 이처럼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산은 드물다.



이젠 자동차와 자전거가 다니는 회남재 길.



햇빛에 반짝이는 가드레일이 알려 주는 길.



청암면에서 회남재로 가는 길에 만난 그곳 토박이들은 하나같이 곱살콧었다. 스무 걸음이나 걸으면 길게 숨을 내쉬며 한 번은 앉아서 쉬어야 하는 두 할머니가 버스를 타기 위해 앞서 가고 있었다. 두 할머니 모두 이 골짜기에서 나서 혼인을 하고 지금껏 내외가 알콩달콩 살고 있는 순수 토박이었다. 젊은 날에는 약초며 고사리 같은 산나물을 캐다가 50리(약 20km)가 넘는 하동장까지 걸어 나가 쌀을 팔아 먹었다고 했다. 저 하동에라도 나가서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했다. “다 글케 살았어요. 그래 사는 기지. 여가 좋아요”라고 답하는 두 할머니의 얼굴은 그저 편안하고 아름다웠다.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눈이 맑게 빛나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 내는 얼굴 근육은 눈앞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수없이 걸은 길을 타인지 두 할머니 모두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긴 걸음은 어렵지만, 그들이 내는 향기는 이른 봄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매화 향기보다도 더 진했다.



회남재 옛길을 찾는 일은 녹록지 않다. 청학동에 이사를 온 지 40년이 넘었다고 하는 이도 지금의 큰길만 말할 뿐 산죽과 덩불에 덮여 버린 옛길을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옛길은 적어도 5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길인 셈이다. 다행히 밭에서 봄 농사를 준비 중인 76세의 조운학 어른을 만나 그 흔적을 쫓을 수 있었다. 청학동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을 땅을 파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왔다. 어려서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것들을 짚어지고 삼신재와 회남재를 넘어 산청군 시천과 하동군 악양에 내다 팔곤 했다고 한다. 청학동에서 악양으로 넘는 고개는 목계에서 악양으로 이어지는 회남재가 아니고 악양에 거의 다 가서 만나는 삼신재 길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의 말에 따라 목계마을 건너편에 있는 물 공장 오른쪽 옆으로 난 길을 오르자 비구름이 걸히는 사이로 소담한 숲을 닮은 벚꽃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산길을 걷는 즐거움이란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새로움에 있었다.

남한에 사는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하늘과 같은 산이고, 그들의 발길이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이루는 산이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염원이 한결 같은 시원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말로 지리산이라고 쓰고, 한자어로 智異山이라고 하고, 더러 地理山, 地利山, 두류산(頭流山),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쓴다. 아주 오래 전에는 불복산(不伏山) 혹은 반역산(反逆山), 적구산(赤狗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같은 전란들이 이곳을 휩쓸었고, 1948년부터 1955년까지는 빨치산과 군경토벌대의 전쟁이 역사 of 고통을 안긴 산이기도 하다. 숭고한 의병의 역사가 이 산 곳곳에 있고, 동학과 같은 민중의 저항이 살살이 용솟음치던 산이기도 하다. 15개의 큰 능선과 15개의 계곡을 흐르는 크고 작은 물의 흐름은 살아 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한 산이다. 동천, 담, 소, 비폭이 얼마나 많은 곳인가! 산중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낙원인 산이다. 지리산 850리 둘레길을, 100여 리 주능선을 하염없이 걷고 걸은 것은 내 젊은 날의 열정으로 이뤄 낸 으뜸 되는 일이다. 지리산 옛길을 다니면서 듣고 배운 골과 마을 이름들은 우리말의 어원을 알게 한 언어학 공부의 출발이었고, 머물렀던 산속의 집들과 삶의 형태는 인문 공간과 지리를 알게 해 준 최고의 참고서였고, 지리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베풀어 준 심원의 아름다움은 술하게 싸우고 미워하며 고통받아 만신창이가 된 몸과 영혼의 안식처와 같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젊은 날 뽐족한 바위산이 많은 설악산 바위에 올라 저 아래 시대와의 전의를 불태웠다면, 지리산에서는 오르기보다는 마냥 걷고 누워 하늘을 보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았다. 달궁이며 고운동, 논골, 목통, 두지터, 농평, 불당, 범왕 마을에서 보낸 날들은 얼마나 따듯하고 소박했던가? 지리산에 복종한 세월이었다. 지리산이 육체에 새겨진 여행이었다.

하필 지리산을 걸으라니...

2015년 봄, 다시 지리산으로 간다? 왜 지금에서야 혹은 할 수 없이(?) 돌이켜 보면 2000년대 들어 지리산에 가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큰길은 뚫리고 연결되어 서울에서 구례나 함양, 산청 혹은 하동으로 가는 길은 편해졌지만 산길로 들어가는 마음과 발길은 무거웠다. 지리산은 지자체들의 본격적인 투자에 의해서 집, 삶, 언어에 있어서 집단적인 표준화가 거세졌다. 산을 관통하는 관광도로가 난폭하게 만들어졌고, 산업의 예측화는 확장되었다. 지자체와 행정의 우두머리들은 그것을 치적으로 여겼다. 지금도 문정리 댐, 지리산 공비 토벌 루트 개발, 케이블카 설치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예부터 역사의 격랑이 많은 산이라서 산림의 황폐화가 심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제석봉 일대의 고사목 지대가 지리산 산림 수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은 지자체의 광포한 행정과 개인들의 무한한 욕망의 난립으로 산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어 앓고 있다. 지리산 순환도로 개발처럼 성삼재, 정령치 종단도로에 이어서 회남재 길 포장과 같은 관광도로의 확장, 양수발전소 건립 등이 그것이다.

청암면으로 가는 길, 하동호에 우뚝 세워진 비바체 콘도 건물은 자연환경과 크게 어긋나는 건물이다. 부춘리에서 활공장이 있는 형제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모두 포장되어 거침없이 차로 가 닿을 수 있고, 평사리에서 회남재 꼭대기까지도 멈춤 없이 아스팔트길을 따라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지리산은 사람들에게 의한 인공의 학대로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관광, 개발, 대중은 허구가 아닌가! 그것들에 의해서 지리산이 산업의 전형으로 규범화되어 간다. 그런 이유로 지리산에 오랫동안 갈 수 없었고, 이번 회남재 길을 걷는 제안도 마땅치 않아 불안하게 받아들였다.

사라져서 더 그리운 옛길의 흔적

지리산이 어느 정도 일상의 삶 혹은 욕망들과 등지고 있을 때, 화개의 쌍계사에서 내원골을 지나 내원마을 내원재에서 청학동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 시루(리)봉으로 발길을 옮겨 회남재에 이르는 산행을 즐겨했다. 산길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는 노래와 같았다. 시루봉에서 내려다보는 산 아래 악양면의 너른 평야는 놀랄 만한 풍경이다. 그 시선의 황홀감은 시루봉에서 왼쪽 능선을 따라 형제봉으로 이어 가도 충분했고, 시루봉에서 앞으로 나아가 지천 몸으로 회남재에 닿을 때 더 열렸다. 육체의 극한점에서 몸과 풍경은 서로 잘 접속되고 교환되었다. 시선의 매혹은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고 평온했다. 지리산은 언제나 이렇게 몸이 텅 빌 때 가장 잘 기억된다.

회남재에 이르게 되면 갈등이 시작되곤 했다. 회남재삼거리에서 왼쪽 청학동, 오른쪽 묵계로 내려가는 두 개의 임도 가운데 어떤 길을 따를 것인지, 그런 다음 묵계에서 다시 원묵계 고개를 가로질러 고운동 계곡으로 내려갈 것인지를 고민하곤 했다. 아니면 회남재에서 사태골 옛길을 따라 등천리, 동매리, 매계리, 중대리, 정동리, 입석리, 신흥리, 선성리, 신대리, 축지리, 평사리 너른 들판으로 가서 길 건너 섬진강에 가 닿을 수도 있었다.

그로부터 한 세월이 흘렀다. 그 길에 머물던 스무 살의 반사회적 청년은 곧 환갑을 맞게 되는 사회적 장년이 되었다. 과거와 같은 나이들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낯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타동사적 특성이다.

청학동보다 더 오래된 마을인 원묵계로 오르는 고갯길은 포장이

되었고, 그 길 밑으로는 삼신봉 터널이 생겨 거림과 내대리로 이어졌다. 청학동은 이미 관광지 마을로 변했고, 원목계는 사뭇 사려 깊지만 소원한 곳, 궁벽한 곳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높은 봉우리는 삼신봉과 삼신봉(1284m)보다 더 높은 내삼신봉(1354m)이다. 그 아래에 청암면과 악양면이 자리 잡고 있다. 청암면의 목계와 악양면의 등촌리에서 평사리까지를 이어 주던 고개가 회남재이고, 내삼신봉에서 아래로 굽어 내려오다 잘록한 허리를 이룬 내원재는 쌍계사와 목계를 이어 주던 고개다. 회남재 옛길은 평사리에서 시작하는 포장된 임도와 회남재에서 청학동으로 가는 임도, 목계리로 가는 임도 탓으로 그 흔적이 사라졌다. 글 맨 앞에 소개한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는 이 옛길의 자취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내원재 길은 청학동과 맞닿아 있는 삼성궁에서 길을 막아 사람들의 등반이나 산책이 불가능해졌다.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다녔던 쌍계사, 불일폭포, 청학동, 고운동 계곡으로 이어지는 산행은 내원재 고갯길이 막힌 터라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라진 회남재 옛길을 찾아 걷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인심이 순박했던 지리산 마을들을 실처럼 잇는 옛길들은 사라졌거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자동차길로 변해 죄다 반질반질해졌다. 높고 깊은 산은 거의 모두 터널이 뚫려 있는 터라 산길과 마을 풍경이 지니고 있었던 옛 풍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회남재를 오르고 내리는 옛길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오랜만에 본 지리산은 이런저런 이름의 관광도로가 산과 마을, 계곡을 포획한 터라 거미줄 속에 갇혀 있었다. 행장을 꾸리면서부터 그것이 걱정이었다. 뭘 볼 것인가? 지리산의 변화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말이다. 가기 전부터 잠을 설쳐야 했고, 하동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는 더욱 그러했다. 오늘날 지리산을 둘러싼 길들은 화려하게 뚫려 있고, 가지런히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잔뜩 화장한 얼굴과 같다. 골골살살 귀촌한, 귀농한 이들의 알뜰살뜰한 집들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자재들은 ‘지리산’답지 않고, 가히 ‘현대’적이다.

같은 길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물길이 하나로 합쳐 흐를 때가 있다. 삶과 길은 서로 합류한다. 회남재 옛길은 악양면에서 청암면으로 넘나드는 간결한 길이다. 악양면에서 청암면으로 가는 산 아래 길은 섬진강을 따라가다가 황천강과 만나 상이리, 목계리, 청학동으로 올라가는 길고 에둘러 가는 길이다. 목계리를 비롯한 청암면 사람들이 하동장, 화개장터 혹은 구례에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타야 했고, 그 길이 회남재였다. 지리 공간으로 보면 악양면은 평지라서 곡식이 풍요했던 터라, 이 옛길은 악양면 사람들 입장에서 물건을 지고 청암면으로 팔러 가는 길이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사

러오기 위해서 산을 넘는 지름길이었던 셈이다. 짐작해서 말하면 물자가 풍요롭지 않았던 청암면 사람들에게 더욱 소중했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걸어 보면 풍경이라는 그림, 과거라는 소리, 걸어 다녔던 이들의 육체, 이 길을 노래한 이들의 언어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옛길의 매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깡그리 묻혀 있다. 길이 주던 심장의 박동, 호흡의 리듬이 사라진 것이다.

악양면에서 포장된 13km의 길(지방도 1047호)이 회남재 마루까지 이어져 있고, 회남재에서는 청학동과 목계리로 내려가는 10km 정도의 임도가 좌우로 이어져 있다. 회남재 옛길에 이르렀을 때, 봄은 이미 발밑까지 혼연했다. 악양면 등천리 덕기마을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집 앞에서 회남재에 이르는 사태골은 곧추 이어져 있다. 옛날 주막 터가 있던 곳을 지나 한 시간 정도 오르면 회남재 고갯마루에 오를 수 있다. 회남재에 이르러 그 너머 산으로는 삼신봉이, 마을로는 원목계와 그 너머 거림이 있고, 그 위로는 세석평전이 이어져 있다. 고개에서 목계로 가는 옛길은 두 임도가 갈라지는 곳에서 목계 쪽으로 50m쯤 내려가다 왼쪽으로 나 있는 회남이골에 있다.

문헌을 보면 회남재는 한국전쟁 중 이 너머에 있던 빨치산들이 곡식이 많았던 악양면에 와 식량을 얻기 위한 보급 투쟁의 거점이었다. 회남재 고갯마루에는 정자가 마련되어 있어 악양의 너른 들판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다. 이념에 정신을 묶고 육체의 배고픔을 이겨 냈던 빨치산들의 시선으로 악양면의 너른 평야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야가 꿈꾸던 질서는 아니었지만, 풍요로움이라는 유혹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공출에 이끌려서부터, 전쟁 중에는 빨치산이 빼앗은 곡식을 등짐에 지고 이 고개를 오르고 내렸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고개였을 것이고, 다시는 오르고 싶지 않은 고개였을 것이다. 빨치산을 잡기 위해서 이 고개에 올라야 했던 토벌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 고개는 아군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전쟁터였을 것이다. 또 청학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 험한 고갯길을 오르고 내려야만 가족이 연명할 수 있었던, 허리가 끊어지고 발바닥이 갈라지는 고통을 안긴 필연의 고개였을 것이다. 생의 길이는 이런 옛길을 우연히 발바닥으로 스칠 때, 떨어는 몸에 있을 것이다. 아주 천천히, 단숨에 비우지 않고. 회남재 옛길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어둠 속에 있다. ㉞



로저 셰퍼드, 그는 뉴질랜드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남한과 북한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남한과 북한의 백두대간을 모두 걸었기 때문이다. 아직 북한 쪽은 더 많은 봉우리를 올라야 하지만 그래도 삼분의 일 남짓한 봉우리를 올라 그 열개를 꺾고 있었다. 남한의 봉우리들 또한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으며, 아예 지리산 자락인 구례군 산동면의 작은 마을에 터를 잡고 산다. 집 거실 벽에 걸린 ‘산정표’에는 이미 오른 봉우리와 아직 오르지 못한 봉우리를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고 날마다 바라보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 김삿갓 좋아요.
방랑자 스타일 좋아요”
북한의 백두대간을
답사한 로저 셰퍼드

“크레이지 산수유”

자동차들이 도로에 꽉 차 있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악 소리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지리산을 뒤흔들 기세로 쿵쾅거렸다. 그 속을 쫓보다 더 꽃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 다녔고, 그들이 나무 사이로 지나다니면 옷 색깔의 기세에 눌린 노란 산수유꽃 정도는 아예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말이 좋아 산수유축제이지, 실상은 ‘아웃도어 웨어’ 축제인 것만 같을 정도다. ‘아웃도어 웨어’라고 하는 장르의 옷들은 현란한 배색을 뽐내고, 그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면 과연 쫓보다 사람이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걸친 옷일 뿐 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다.

더구나 축제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나라 안 어디를 가도 같은 패턴이다. 축제의 이름만 바뀔 뿐 그게 그것일 뿐인 셈이다. 충청도나 강원도, 전라도나 경상도같이 서로 다른 지역을 찾아가도 먹거리장터는 늘 같은 음식에 노래자랑은 절대 빠지지 않는 행사 중 하나다. 그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다. 심사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찬란한 형광 원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 움직이기 전인 이른 아침에는 여느 마을들처럼 고즈넉했다. 그때는 꽃도 쉬는 듯 제 본디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그 시간의 노란 산수유꽃은 한낮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새벽부터 그가 사는 마을 근처를 맴돌며 동살에 빛나는 산수유꽃의 진면목과 마주하다가 그에게 전화를 했다.

떠들떠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리말로 “나 집에 있어요. 어서 오시오. 그러나 지금 산수유축제 있어요. 크레이지 산수유. 괜찮아요? 어서 오시오.”라고 대답하는 그는 로저 셰퍼드(Roger Shepherd)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우리나라에 온 지는 여섯 해 남짓하다. 그는 특이하게도 2012년부터 줄곧 속리산 법주사 앞에서 살았다. 그러다 구례군 산동면 원좌리로 이사 온 것은 2014년 6월이다. 처음에는 속리산이 그의 거처였고, 이번에는 지리산 근처를 거쳐 삼았으니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

“나는 6년 전 뉴질랜드 경호원, 폴리스 경호원이었어요. 그때 휴가 있어요. 한국에 왔어요. 외국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에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년 있었고, 8년 동안 잠비아에서 사파리 가이드 해 봤어요. 모잠비크에도 있었어요. 아마도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있었어요. 뉴질랜드 왔어요. 1년 공부했어요. 아~~~ 공부 안 좋아요. 여행 좋아요. 그래서 한국 왔어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대구에서…. 아마도 2000년 1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 왔어요. 경찰 됐어요. 8년 했어요.

“나 집에 있어요. 어서 오시오.
그러나 지금 산수유 축제 있어요. 크레이지 산수유.
괜찮아요? 어서 오시오.”



2012년, 북한 쪽의 백두대간을 답사한 로저 셰퍼드다. 그는 구례군 산동면 작은 농가에서 살고 있다.

경찰 하는 일 많아요. 저는 경호원 경찰이었어요. 좋아요. 2년 했는데 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등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는 우리 나이로 49세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말은 서툴다. 대개 2~3년이면 제법 말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말이다. 그건 아마도 그가 등산을 좋아한 때문일까? 그는 혼자 산에 가는 일이 잦다. 그것도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인 백두대간(白頭大幹)을 따라서 말이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적은 것도 한국말이 서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또 속리산에는 나이 든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을 기피하기도 했고, 자신 또한 그들과는 나눌 이야기들이 마땅치 않았던 까닭일 것이다. 그가 산동면으로 옮겨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구례에는 속리산 법주사 앞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아서이다. 그는 ‘영 피플’과 ‘아티스트’가 없는 속리산에서 외로웠다고 했다. 그러나 구례로 옮겨 온 후로는 비로소 그들과 어울리며 서로 다른 관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고, 더불어 기본적인 문화 시설이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런데 설악산이나 한라산과 같은 산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백두대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대한민국에 왔어요. 백두대간, 이 뭐야?”

“대한민국에 왔어요. 백두대간 있어요. 이 뭐야. 그 때부터 백두대간 알고 싶어서 한반도 지도에다가 산 봉우리들을 따라 라인을 그렸어요. 이 뭐야, 그때가 2006년입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안내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오케이. 백두대간 등산해요. 어떻게... 몰라요. 그냥 해요.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국말 있지만 내가 한국말 몰라요. 단 지도 있어요. 산 이름 있어요. 천왕봉, 노고단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썼어요. 한국말 리딩 몰라요. 스피킹 못 해요. 가끔 백두대간 산에서 한국 사람 만나요. 놀라요. 외국 사람 여기 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끔 영어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산 문화, 역사, 민속, 단군, 풍수지리, 유교, 도교, 불교, 마고할미, 산신령 블라블라(blah-blah-blah) 휴~~~ 백두대간 이야기 많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 흥미 있어요.”

“대한민국 왔어요. 백두대간 있어요. 이 뭐야. 백두대간 안내 없어요. 그 때부터 백두대간 등산했어요.”



(위) 함경남도 부진군 옥련산(2164m)에서 바라본 개마고원의 북동쪽(2012년 7월)
(아래) 양강도 삼지연 백두산에서 바라본 백두고원(2012년 7월)

참 별난 사람이지 않은가. 그렇게 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구해 볼 수 있는 책을 구해서 읽고 난 다음, 2007년과 2009년에 고향의 친구들과 함께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다. 순전히 백두대간과 정맥을 알기 위해서였다. 2007년에는 남한 쪽 백두대간을 모두 걸었다. 그렇게 대간과 정맥을 찾아다니고는 친구인 앤드루 도치(Andrew Douch)와 함께 책을 썼다. 외국인들에게 백두대간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영어 책자다. 다시 2009년에는 대간이 아니라 지맥인 정맥을 6개월 동안 찾아다녔다. 대부분 캠핑을 하면서 말이다.

“대간도 그렇고 정맥도 그렇고 아주 신선해요. 방랑자 좋아요. 프리덤해요. 한국의 산 문화 좋아요. 나와 어울려요. 그래서 산 문화 공부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폴리스 그만해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갈라졌어요. 북한 백두대간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방법 찾아요. 2011년에 갔어요. 다시 2012년에 갔어요. 나라는 갈라졌어요. 남북한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산은 잘리지 않아요.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신청을 했어요. 한국 사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난 외국 사람. 갈 수 있어요.”

잠시 약이 올랐다. 나는 갈 수 없는데 자기는 갈 수 있다니 말이다. 산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한반도의 등허리 같은 백두대간을 걸어 보고 싶어 할 것이며, 또 백두산으로부터 지리산까지 걷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는가. 나는 1994년부터 4년 동안 휴전선 일대를 탐사했으며, 가장 최전선에서 북쪽 땅을 보면서 다녔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자유롭게 북한을 다녀 보지 못했다. 물론 공식적인 행사로 두어 차례 다녀오긴 했지만 그것은 완벽한 통제 속에 다닌 일정이었을 뿐 자유란 없었다. 그러니 두 차례나 백두대간을 다녀온 그가 빠가지는 않았지만 나 스스로 샘이 나서 질투를 한 것이다.

“북한에는 모두 여섯 번 갔어요. 그중에서 두 번 백두대간 갔어요. 2011년, 2012년 두 번 갔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나 꿈 있어요. 북한 백두대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어요. 휴~~~ 나는 다행히 북한 백두대간 가기는 했지만 못 간 데가 더 많아요. 올해 꿈, 못 가 본 봉우리 30개 가 보는 겁니다. 저기 붙어 있는 거 그겁니다.”

8월 15일 평양에서 남북 백두대간 사진 전시

그는 농가 주택 한 채를 빌려서 살고 있는데 거실이 제법 크다. 그 벽에는 백두대간 산경표가 두 장이나 걸려 있고, 책장의 한 칸이 모두 남한

백두대간이나 북한 백두대간의 지도들이다. 벽에 걸린 산경표 중 한 장에는 빨강거나 초록색의 작은 스티커가 붙었는데 초록색은 자신이 이미 가 본 곳이며, 빨간색은 아직 오르지 못한 봉우리를 표시해 둔 것이다. 백두산부터 금강산까지 그가 오르지 못한 봉우리는 모두 서른 곳이라고 했고, 이미 오른 곳은 서른네 곳이라고 했다. 그러니 절반 가까운 봉우리는 이미 오른 셈이다.

아직 오르지 못한 봉우리들은 양강도의 삼지연에 있는 북포태산(2228m)을 시작으로 가장 남쪽의 강원도 고성군 무산(1319m)까지다. 그곳을 모두 다녀온 후 영어로 된 백두대간 안내서를 쓰는 것이 그의 꿈 중 하나다. 벌써 집필을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더욱더 북한 쪽 백두대간을 다시 한번 더 가고 싶어 한다.

“이번 광복절, 8·15에 평양에 다시 가요. 거기서 백두대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 한라산까지 남한 백두대간 중요 포인트마다 다시 가서 촬영했어요. 한라산 좋아요. 북한에 눈 쌓인 한라산 백록담 사진 선물할 거예요. 2013년에 이미 평양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는 북한 백두대간만 합니다. 이번에는 남북한 백두대간 전부 합니다. 장소는 다시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은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거는 나 개인이 아니라 ‘조선뉴질랜드친선협회(Korea-New Zealand Friendship Society)’라는 단체 있어요. 거기서 합니다. 거기로 초청장이 왔어요. 전에 북한 백두대간 갈 때도 ‘조선뉴질랜드친선협회’가 도와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 백두대간 아니고 ‘백두대산줄기’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백두대산줄기 사진 전시회’ 합니다.”

‘조선뉴질랜드친선협회’는 순수 민간 단체라고 했다. 정치 차원의 일이 아닌 문화 관광 같은 분야의 일을 서로 협력하는데 다행히 자신이 북한 백두대간 탐사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때 순조롭게 허락이 되었다고 했다. 두 차례의 백두대간 탐사도 협회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고, 전시 또한 그들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길도 없는 산을 다녔는지 궁금했다.

“협회 사람들 평양에서 만나요. 거기서 자동차 줍니다. 자동차 드라이버와 행정가이드, 산악가이드도 한 명씩 갑니다. 그렇게 넷,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미리 올라갈 봉우리들을 정하면 행정가이드가 로컬 가이드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착하면 로컬 가이드와 만나서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산악가이드 있어도 지역은 잘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 백두대간 아니고 ‘백두대산줄기’입니다. 평양에서 백두대산줄기 사진 전시회 합니다.”





두류산에서 물 있는 곳을 알려 주고 산 너머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남매.



(위) 개마고원에서 본 북한 농가(2012년 6월)
(아래) 개마고원의 작은 부락(2012년 6월)

(위) 함경남도 독성군 회사봉(2117m)에서 본 농가
(아래) 양강도 백암군 두류산(2309m)에서 본 작은 부락





(위) 두류산에서의 캠핑. 왼쪽부터 황성철, 한명수, 로저 셰퍼드, 박금철, 황철영
(아래) 양강도 호치령에서의 캠핑. 함께 잔 텐트와 타고 다닌 자동차(2012년 7월)

(위) 백두고원(2012년 6월)
(아래) 양강도 백암군 두류산 정상(201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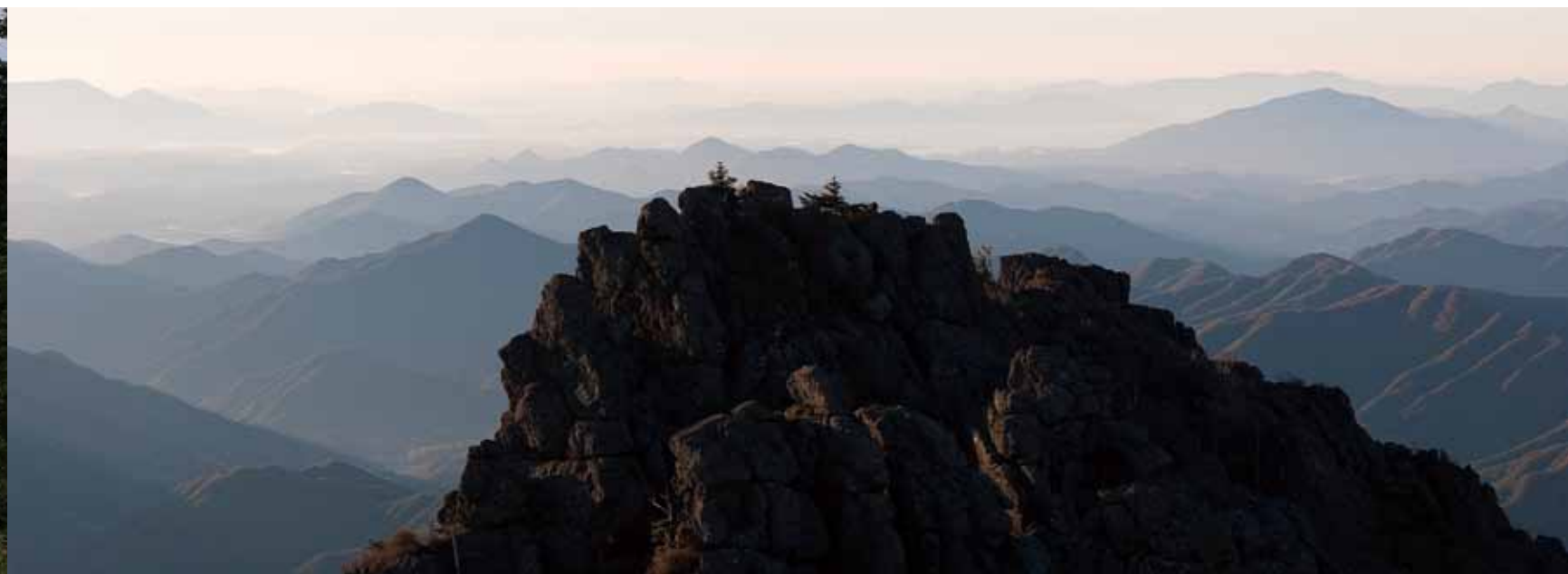
함경남도 단천군 두류산 정상



전라북도 장수군 봉화산의 진달래



함경남도 부전군 고대산(1766m)에서 본 백두대간 줄기



이른 아침 일출봉에서 본 지리산 백두대간 줄기



함경남도 부전군 옥련산(2164m)에서 본 개마고원의 북동쪽(2012년 7월)



지리산 백두대간 줄기



북한 쪽 백두산 능선에서 바라본 천지

백두산 천지다. 어느덧 백두산
천지 사진은 식상한 사진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의 사진은
독특하다. 흔히 보지 못하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북한 쪽에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찍을 수 있어 구도가
그동안 보아 온 천지 사진과는
색다르다.

그래서 로컬가이드 꼭 필요합니다. 남한 백두대간 길 좋아요. 하이웨이 같은데 북한 백두대간 길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또 군사 시설 많아요. 그래서 로컬가이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다가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잠도 자고 비가 오면 쉬고 밥도 먹었어요.
마을이 없으면 텐트 쳤어요. 밥 없으면 감자도 구워 먹고 밤에는 도토리소주도 마셔요.”

그는 협회에서 내준 사륜구동 차에 북한 쪽 기사와 행정 담당 안내원 또 산악 지형을 잘 아는 전문가와 자신 이렇게 넷이서 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산악 지형을 잘 안다는 안내원도 전체 열개만 알 뿐이지 지역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전부 평양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평안남도 신양군의 백산(1449m)을 오르겠다고 결정하면 행정 담당 안내원이 미리 그 지역 산림청이나 관공서 혹은 산 아래 마을에 연락을 해서 일대를 껴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다고 한다. 대개 북한의 산에는 등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지역의 가이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마저 되지 않으면 지도와 나침반이 전부였다고 했다. 하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면 산에서 비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먹을 거라고는 감자를 굽거나 추위를 달래려 도토리소주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마을 없으면 텐트 쳤어요. 밥 없으면 감자도 구워 먹고 밤에는 도토리소주도 마셔요.”

“북한 백두대간 좋아요. 그런데 사람 좋아요. 집 좋아요. 등산하기 전 마을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 사람 있어요. 좋습니다. 집 있어요. 밥해요. 빨래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 좋아요. 산골 사람 순수해요. 나 배고파, 먹을 거 줘요. 목말라, 물 줘요. 그 사람 없으면 힘들어요. 그 사람 있어서 편해요. 보통 사람들 고마워요.”

그가 이야기를 할 때 눈과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흥분해 있었으며, 마치 당시를 연상하듯 그렇게 흥겹게 말을 잇고 있었다. 아무리 힘이 들었더라도 그것을 힘이 들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모습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비록 힘들어 보일지언정 스스로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난 후에 지나는 표정인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시를 생각하면 전율이 일어서 저절로 흥분되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대구의 팔공산에 가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했다.

“한국 산, 공부 많이 필요해요. 이거 하면 저거 또 필요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휴~~~”

“이번 주 토요일 팔공산 가요. 대구 팔공산 알아요. 거기서 저 지도, 산경표 만든 사람 만나요.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번에는 팔공산입니다.”

군소리 없이 알았다고 했다. 본디 금요일에 일이 있어서 서울로 가야 했지만 그를 산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날 새벽 일찍 도착한 나는 염불암에 자동차를 세우고 동봉 석조약사여래 입상까지 올랐다가 신선봉으로 내려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 때가 되어서 그가 올라왔는데 이진 한두 명이 아니었다. 많아야 예닐곱 명 정도겠거니 했는데 웬걸,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화들짝 놀라서 같이 걸으려던 계획을 접고 산을 내려와 일주일이 지난 후 그의 집에서 다시 만났다. 그가 ‘크레이지 산수유’라고 고개를 가로젓던 시끌벅적한 축제도 끝나고 마을은 평화로웠다.

“남북 사람들 친해지는 것, 나의 꿈입니다.”

그의 집에서 마주 앉아 한국의 산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러다 우리나라의 민속적 제의와 같은 이야기까지 이어졌는데 그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체계적인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상당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였다. 백두대간에 속하는 대관령에서 치르는 산신제와 성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 성황당, 그거 뭐예요? 산신각은 알아요. 성황당 안에 뭐가 있어요? 돌, 종이 그런 겁니까? 그림 봤어요. 산신각과 집은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 달라요. 산신각에 그림 있어요. 성황당에는 없는 곳 많아요. 대관령에는 있어요. 한국 산에는 많아요. 산신각, 성황당, 봉수대, 산성, 암자 블라블라(blah-blah-blah)~~~ 공부 아주 많이 필요해요. 이거 하면 저거 또 필요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등산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북한에 없어요. 한국전쟁 무서워요. 부서졌어요.”

사실 그는 한국에서 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싶느냐고 물었다. ‘하이크 코리아(Hike Korea)’라는 것인데 백두대간을 비롯한 한국의 산들을 외국에 소개하고, 외국인들을 모아서 가이드를 하는 일이다.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그는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특하면 “나 김삿갓 좋아요. 그런 방랑자 스타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았다.

“지금은 작아요. 그런데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또 한라산까지 연결하고 싶어요. 지금은 한국전쟁으로



지리산 중봉에서 바라본 새벽녘의 반야봉

그의 꿈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그리고 또 한라산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은 남북이 가로막혀 오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백두대간 마루금을 걸어 남북한을 넘나드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는다.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난 꼭 하고 싶어요. 백두대간 마루금으로 걸어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 올 거예요. 내가 처음 그 일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도 가고 외국 사람도 가고 그렇게…,
그게 꿈입니다. 한국 사람들 어려워요. 나 외국 사람, 그 일 할 수 있어요. 그 일로 남북 사람들 친해지면 좋습니다. 또 내 고향 뉴질랜드, 마우이족 있어요. 그 사람들 옛길도 찾고 싶어요. 백두대간이 나 마우이 옛길 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걷는 일, 그런 일 좋아요. 관광 트레킹 아니고 오리지널 트레킹 비박, 캠핑 이런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의 인상은 부드럽지만 걷는 일을 좋아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천생 야인(野人)이다. 그러나 그의 거침은 속이 깊다. 백두대간이 좋아서 낯선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고, 남북으로 갈라진 현실을 이해하려고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핏박과 분단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만큼 알고 있으며, 더구나 가슴 아파 하는 특이함도 지니고 있다. 대어섯 차례 그를 만나면서 든 생각은 다만 한국말이 서툰 뿐 그의 생각이 한국에 대하여 서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즈음은 한국말을 배우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말은 금방 나아질 것이며, 그의 생각 또한 느는 말처럼 쑥쑥 자라서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이 그렇다. 특히 인문 지리인 경우 남쪽의 것만을 우리 것으로 배운 탓에 어찌면 불구의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임진강에 대한 원고를 쓸 일이 있었다. 임진강은 발원지가 북한이며, 강줄기는 군사분계선을 지나온 후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따라 들쭉날쭉하며 서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예민한 강이다. 원고를 마치고 난 후 발원지가 문제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 본 적이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러니 예전 자료와 함께 최근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가 그 근거가 되었을 뿐이다.

백두대간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진조차 구경할 수 없었을 것이지 않은가. 백두대간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척추와도 같은 백두대간을 그의 눈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그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찍은 것들이다. 물론 그는 걷는 일을 좋아하는 트레커(Trekker)일 뿐 사진작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심으로 사진을 찍었고, 우리들 앞에 내놓았다. 그러면 되지 않았는가.

집 앞에서 손을 흔드는 그를 보니 백두대간의 한 점인 대관령에서 벌어지는 국사성황제에 함께 가기로 한 날까지 그를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그는 매력적이다. ☺



그의 다른 사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onekoreaphotography.com

천년 묵은 아름다움 지리산 화엄사와 연곡사의 석조 미술

지리산 자락의 사찰들은
제각각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중 화엄사와
연곡사에는 눈여겨
봐 두어야 할 성보 문화재가
가득하다. 천년을
이어 온 문화재들은
대개 돌로 만든 것이며,
통일신라시대부터
돌을 찰흙 주무르듯이
매만져 놓은 석조 문화재
들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때로 전율이 일고
경외의 마음이 생겨난다.

전라북도 임실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남원과 곡성을 거쳐 커다란 강줄기를 이루고 구례와 하동의 지리산 자락을 끼고 돌며 남해 바다로 흘러든다. 끝없이 펼쳐지는 강변의 야생 대나무 숲과 망망 드넓은 백사장을 품은 채 맑은 햇살에 물방울마져 영롱한 강물을 따라 봄이 되면 꽃향기 흐드러지고 달밤에는 재첩 조개들의 속삭임이 강 물결을 타고 들려오는 이 고장은 아름다운 강 풍경을 이룬다.

내정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녹수로구나
녹수야 흐르건만 청산이야 변할소냐
아마도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
빙빙 감고 돌아가는구나

우리의 대표적인 남도 민요 〈육자배기〉에서 가장 많이 불리어지는 대목이다. 필시 섬진강과 지리산이 마주한 광경을 넘과 나 사이의 정경으로 읊은 대목이리라. 하여 섬진강의 길손은 저절로 지리산으로 인연의 발길을 옮기게 된다. 지리산은 태곳적부터 온갖 산물을 내주며 대대손손 인간을 품어 온 남도의 신령스런 명산이다.

그 안에 구례의 화엄사와 연곡사, 하동의 쌍계사와 칠불암, 산청의 대원사와 단속사, 함양의 벽송사, 남원의 실상사 등 골짜기마다 보석처럼 알알이 박힌 명찰들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의 역사를 이어 오며 값진 문화유산을 전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리산과 함께 떠오르는 첫 번째 사찰은 단연 화엄사다.

석탑의 틀을 깬 효행의 탑, 사사자삼층석탑

이미 통일 전부터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화엄종단의 활약은 신라의 삼국 통일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에 ‘화엄십찰’이라 불리는 소속 사찰들이 창건되기에 이르렀다.

구례 화엄사, 공주 갑사, 서산 보원사, 부산 범어사, 합천 해인사 등 지금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찰들이 바로 그때 세워진 화엄십찰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찰은 단연 화엄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끝에 이 불경은 화엄사의 연기(緣起)대사가 제작했다고 적혀 있어 어쩌면 화엄사는 적어도 불국사보다 앞서 이미 창건되어 있었고 그 창건주는 연기대사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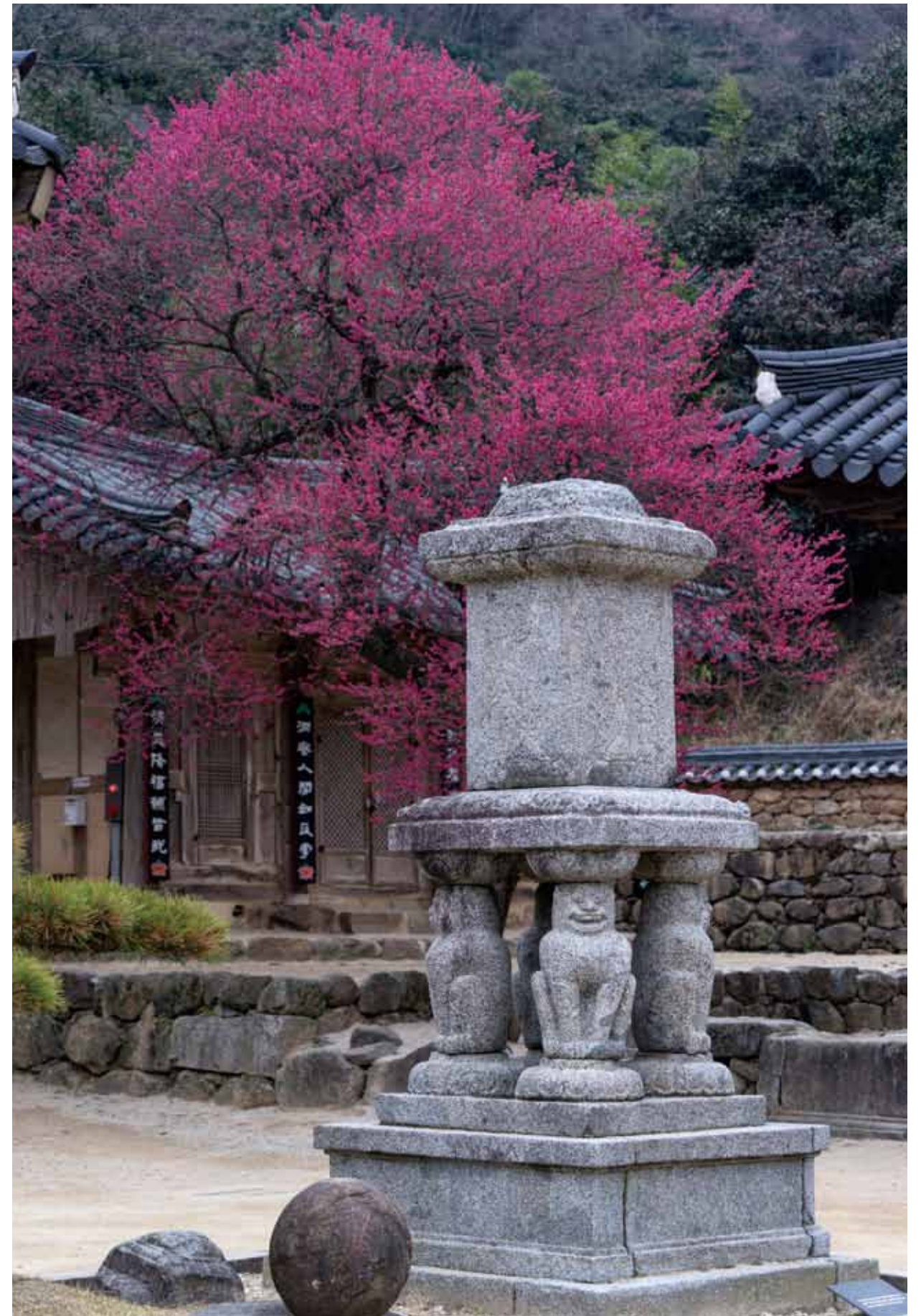
절 안에 들어서면 웅장한 법당과 석탑, 석등 등이 즐비하여 어디서부터 관람을 시작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가장 큰 건물인 서원의 각황전(국보 제67호)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각황전으로 오르는 스님들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다. 국내 현존하는 석등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통일신라의 석등이다.



화엄사 원통전전사자탑(보물 제300호)이다. 네 마리 사자가 상부를 받친 탑의 형태지만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탐방객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오히려 각황전 뒤편 언덕에 솟아 있는 사사자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 국보 제35호)을 향하게 된다. 이 사사자삼층석탑이야말로 화엄사의 상징적 문화재이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화엄사의 전경은 장관을 이룬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세워진 위치도 유별나지만 그 모양새 또한 정말 특이하다. 탑의 받침대에 해당하는 기단부 아래쪽에는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조각상이 두루 새겨지고 기단 윗부분에는 네 마리 사자가 기둥처럼 탑을 받들고 있다. 또 기둥 안쪽 중심부에는 합장하고 서 있는 스님 모습의 인물상이 서 있다. 그 위로는 탑의 본체인 삼층의 탑신이 얹혀 있는데 그중 맨 아래층 탑신에는 자물쇠가 달린 탑문이 있고 그 양쪽에서 수호신상이 탑문을 지키고 있다. 탑 꼭대기는 원뿔형 기둥 위에 구슬 장식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일반형 신라 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다.

일유봉은 해 뜨는 곳, 월유봉은 달 뜨는 곳
동백나무 우거진 숲을 울 삼아 둘러치고,
네 사자 호위받으며 웃고 서 계신 저 어머니! (후략)
— 이은상

寂滅堂前多勝景
적멸당 앞에는 빼어난 경치도 많은데
吉祥峯上絕纖埃
길상봉 위에는 한 점 티끌도 끊겼네
彷徨盡日思前事
온종일 서성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薄暮悲風起孝臺
날은 저무는데 효대에 슬픈 바람 이누나
— 대각국사

아주 오래 전부터 탑이 서 있는 이 언덕을 화엄사에서는 ‘효대’라 불렀던 것 같다. 아마도 네 마리 사자에 둘러싸인 인물상이 바로 화엄사를 창건하고 불경을 제작한 연기스님의 어머니라는 전설이 일찌감치 퍼져 이은상 시인은 물론 고려시대에 활약한 대각국사도 이 탑을 효행의 탑으로 보았으리라.

그러나 사실 이 석탑은 연기스님의 생존 시기보다는 많이 늦은 9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탑의 구조가 워낙 특이하고 탑 안에 인물상까지 있는 데다 탑 앞에는 석등을 머리에 이고 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이 마치 아들인 연기대사가 무릎을 꿇고 탑 속의 어머

니를 향하는 것 같아 이 탑이 효행탑으로 미화되었을 것이다. 이 사사자삼층석탑의 아이디어는 이미 전통적인 석탑의 틀을 깨고 기둥만으로 개방 공간을 마련해 화려하게 변신, 발전한 불국사 다보탑에서 시작되었고, 훗날 그 영향이 화엄사 사자탑으로 전해져 네 마리 사자가 개방 공간의 기둥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탐기단과 1층 탑신에 각종 부조를 새겨 마치 벽화로 건물을 치장한 듯한 효과를 내고 탑 앞에 석등을 이고 있는 공양상이 배치되는 새로운 복합 설치 방식과 무엇보다도 탑이 절 마당을 떠나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세워지는 파격의 배치 방식 등도 불교가 한층 무르익어 간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라 하겠다. 한편 화엄사 원통전 앞에는 또 다른 사자석탑(보물 제300호)이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은 사사자삼층석탑을 흉내 내고 약식화한 후대의 석탑이지만 그 형태가 독특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화엄사가 품고 있는 찬란한 불교 예술

탑 아래에는 화엄사의 가장 큰 법당인 각황전이 자리하고 있다. 각황전은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과 함께 한국의 3대 대형 사찰 건축물로 유명하다. ‘각황’이란 ‘깨달음의 황제’ 즉 부처님이다. 따라서 각황전은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다. 그런데 원래의 이름은 ‘장육전’이었다고 한다. ‘장육’이란 1장 6척의 길이를 뜻한다. 1장은 10척이므로 ‘장육전’은 16척, 즉 열여섯 자 크기의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이처럼 거구의 불보살상을 모시기 위해서는 법당의 내부 공간 또한 매우 넓고 높아야 하는 까닭에 2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황전 벽에는 통일신라 후기 정강왕 때 방대한 화엄경을 일일이 석판에 새겨 붙였으니 창건 당시 각황전에 들인 엄청난 공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쉽게도 이 화엄석경은 임진왜란으로 각황전과 함께 소실되고 그 잔편(보물 제1040호)만 전해 오고 있다. 현재의 각황전은 조선시대 숙종 때 다시 지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황전 앞에는 크기가 6m나 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등(국보 제12호)이 세워져 있다. 각황전이 워낙 큰 건물이라 여기에 세우는 석등도 웬만한 크기가 아니면 비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황전 앞 석등은 그 품새가 매우 뛰어나다. 일반형 석등과 달리 기둥에 꽃잎과 떠 무늬 등으로 오목조목 치장을 하여 단순한 거대함을 탈피했는데 역시 통일신라시대 후기 석조 예술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화엄사에는 또 하나의 법당이 있다. 본당인 대웅전(보물 제299호)이다. 역시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건물인데 각황전보다 앞서 조선 인조 때 지었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 사찰에서 대대적인 중건 사업이 일



구층암 석등이다. 석등보다 다듬지 않은 모과나무 두 그루가 기둥으로 버티고 선 요사채가 더 인상적이다.

어났고 이때 최고의 감독자는 벽암대사였다. 내부에는 화려한 단청과 불단이 모셔지고 외부의 처마 장식은 단정하여 품격을 잃지 않았으며 불단에는 조선시대 목조 삼신불좌상(보물 제1548호)과 조선시대 후기에 크게 활동한 의겸스님과 그 일행이 제작한 삼신불 탕화(보물 제1363호)가 걸려 있다. 또 화엄사 절 마당에는 두 기의 오층석탑이 있어 마치 쌍탑이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두 탑의 위치는 서로 상당히 어긋나 있다. 쌍탑이 아니라 하나는 대웅전 탑이고 또 하나는 각황전 탑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중에서 각황전 쪽의 서오층석탑(보물 제133호)은 십이지신상이 새겨져 좀 더 장식적이고 대웅전 쪽의 동오층석탑(보물 132호)은 아무런 장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결코 흔하지 않은 오층석탑이며 특히 서편의 석탑에서는 많은 사리장엄구(보물 제1348호)가 발견되었다.

화엄사 뒷길로 조금 올라가면 ‘구층암’이란 암자가 나오는데 이곳은 탐방객들이 대부분 놓치고 가는 곳이다. 이곳에도 부서진 삼층석탑이 하나 있는데 그 맵시가 아주 야무져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층암의 요사채에는 모과나무의 원목 기둥 두 그루가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자연스러움에 탄성을 발하게 된다. 또 이 암자의 법당인 ‘천불보전’ 처마에는 ‘토끼와 거북’의 실화를 연상시키는 민예적인 목조각상이 있어 방문객을 즐겁게 한다.

꺼지지 않는 법등, 연곡사의 승탑

화엄사에서 나와 섬진강을 따라 내려가다 다시 지리산 단풍으로 유명한 피아골 계곡으로 들어가면 연곡사란 유명한 사찰이 있다. ‘연곡’이란 ‘제비 굴짜기’란 뜻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중요문화재인 연곡사 동승탑, 북승탑, 소요대사탑, 석비 두 기 그리고 삼층석탑이 있다. 규모가 작은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것은 이 사찰이 한 때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절정기를 지낸 당시의 통일신라 후기 왕조에서는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귀국 승려들에 의하여 참선과 문답수행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선종 불교가 퍼지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교리 해석도 중요하지만 스승으로부터 전수받는 선법수행과 사제 간의 계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자연히 스승의 승탑 조성에 더 공을 들이게 되었는데 연곡사에 당시의 승탑과 탑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찰이 적어도 신라 후기에 선종 사찰로서 크게 이름을 얻었던 듯하다.

그중에서도 연곡사 동승탑(국보 제53호)은 기단 밑 부분부터 구름과 용을 새기고 그 위로는 역동적인 사자와 연꽃받침 그리고 탑신을 두르는 난간까지 표현하며 탑신과 지붕에도 섬세한 장식이 표현되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연곡사 동승탑(僧塔)에 새겨진 부조들이다. 승탑은 부도라고 불렀던 것으로 스님들이 입적하고 난 후 다비를 치른 후 나온 사리들을 수습하여 모시는 사리탑이다. 그렇기에 대개 승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승탑 곁에 따로 탑을 세워 승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승탑은 탑이 없거니와 탁본도 남아 있지 않아서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앞에 말했듯 사리탑이기에 왼쪽 사진처럼 향로를 새기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갖가지 상스러운 동물들로 장식했는데 사진에 보이는 인두조신(人頭鳥身)을 한 동물은 대개 가릉빈가(迦陵頻伽)다. 그러나 가릉빈가는 목소리 자체가 부처님의 목소리를 닮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조는 악기를 불고 있어 의아하다.

특히 지붕 위의 봉황 장식은 연곡사 승탑에만 등장하고 전승되는 특별한 기법이다. 바로 이 승탑 앞에 조성된 연곡사 동승탑비(보물 제153호)는 승탑의 주인공이었던 선승의 업적을 기록한 석비로 추정된다. 비신이 사라져 그 내력을 알 수 없지만 비석을 받치는 돌거북과 머릿돌의 조형 역시 생동감 있는 수작이며 여기에 날개까지 달린 모습은 가히 환상적으로 연곡사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이 승탑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승탑과 탑비에 들인 공력으로 보아 상당한 지위의 선승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북편 언덕에는 연곡사 북승탑(국보 제54호)이 세워져 있는데 이 승탑은 동승탑을 모방하고 있으나 조형 기법은 다소 떨어져 아마도 동승탑 주인공의 선맥을 이어받은 제자의 승탑으로 추정된다. 불행하게도 10여 년 전 이 승탑은 도굴범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진 사건을 당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승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에는 지하에 장엄구를 모신 석관을 묻고 그 위에 승탑을 세웠던 사실을 도굴범이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이 승탑과 짝을 이루는 탑비는 여기서 좀 떨어진 아래쪽에 있다. 이 탑비가 바로 연곡사 현각선사탑비(보물 제152호)인데 그 제작 기법은 많이 후퇴되어 있다. 이 석비로 인하여 연곡사 북승탑의 주인공은 고려시대 초기에 활동한 현각선사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승탑과 탑비의 위치가 멀리 떨어진 이유는 산중 사찰에서 탑과 비를 한곳에 세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연곡사 서편에는 같은 형식의 승탑인 연곡사 소요대사탑(보물 제154호)이 세워져 있다. 이 승탑은 조선시대 효종 원년(1650)에 세워졌다. 세월이 많이 흘러 조선시대 후기에 세워진 승탑이기에 그 조형 역시 조선시대 풍으로 목직해지고 지붕 꼭대기의 봉황 장식도 민예적인 수탉으로 변하여 오히려 민화를 보는 듯한 정감을 자아낸다. 소요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한 서산대사의 제자다.

이 밖에도 연곡사 입구에는 연곡사 삼층석탑(보물 제151호)이 세워져 있는데 기단부의 맨 밑바닥이 높이 솟아 마치 탑이 삼층의 기단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조탑 기법 또한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옮겨 가는 시기의 흔치 않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곡사는 창건 당시부터 상당한 격을 갖춘 선종 사찰로 부각되어 고려시대까지 발전하고 조선시대에도 법등이 꺼지지 않은 명찰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의 후손이자 구한말 의병장이었던 고광순이 끝까지 일본 침략에 항거하다 순절한 곳도 연곡사다.

지금도 연곡사 뜰 옆에는 동백나무 한 그루가 외로운 그의 순절비를 지켜 주고 있다. 연곡사는 오랜 세월을 지켜 오며 남아 있는 많은 문화재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겠지만 지금은 고즈넉한 산사의 향기만을 간직해 오고 있다. ☸



연곡사 동승탑이며, 높이는 3m다.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뽐낸다.

동편제는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섬진강을 경계로 그 동편에서 전승되던 소리제를 말한다. 섬진강 동편에 해당하는 남원, 구례, 곡성, 순창, 하동 지방의 소리를 일컫는데, 흔히 곱상곱상하고 차근차근한 서편제가 여성적이라면, 동편제는 웅장하고 씩씩한 남성적인 소리로 부침새와 시김새 같은 기교가 적어 담백한 느낌을 준다.

지리산 기슭 섬진강변의 큰 소리 악양 들판에 울리던 동편제



19세기, 양반들이 판소리의 주된 청중으로 등장하면서 판소리는 양반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무뚝뚝하고 담백한 동편 소리가 양반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었고 19세기는 동편제가 서편제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억눌린 한을 품고 살아가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 애조 띤 계면 선율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 결국 동편 소리는 서편 소리에 우위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웅장하고 씩씩한 동편제와 애조 띤 선율의 서편제

동편제는 19세기에 송흥록이 창시했다고 한다. 송흥록은 판소리의 가왕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판소리에다 속도가 느린 진양조 장단을 도입했고, 우조와 계면조를 오늘날과 같은 예술성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길목인 전북 운봉 비전마을에 살면서 경상도, 전라도, 서울까지 두루 다니며 활동했다. 정노식은 「조선창극사」(1940)에서 송흥록이 진주에 와서 목사, 병사와 같은 고관들 앞에서 소리했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 동편제는 송흥록이 이후 김세중, 정춘풍이 별도의 계열을 이루어 송흥록, 김세중, 정춘풍의 세 계열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다. 이 세 계열 가운데 송흥록 계열이 가장 전승이 활발하다. 송흥록의 소리는 그의 아우인 송광록을 거쳐 그의 조카인 송우룡에게 이어졌고, 송우룡의 소리는 송만갑과 유성준에게 전해진 것만 전승되고 있다.

동편제 소리의 특징은 흔히 서편제 소리와 대비해서 설명된다. 그중 정노식이 쓴 「조선창극사」의 내용이 가장 대표적이므로 인용해 보겠다.

“동편은 우조를 주장하여 웅건청담하게 하는데 호령조가 많고 발성초가 썩 진중하고 구절 끝마침을 꼭 되게 하여 쇠망치로나 내려치는 듯이 하고, 서편

“동편제는 대충 거뜬거뜬하고, 서편제는 곱상곱상 차근차근하며, 동편제는 남자 소리고 서편제는 여자 소리다.”



● 부침새
판소리와 산조(散調) 농악처럼 리듬의 변화가 다양한 음악에 쓰이는 여러 가지 리듬적인 변주 기교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

● 시김새
소리꾼의 소리에 나타나는 꾸밈음

제는 계면을 주장하여 연미부화하게 하고 구절 끝마침이 좀 질르르 끌어서 뽕지가 붙어 다닌다.”

(정노식, 「조선창극사」, 10쪽)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정노식은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를 조(우조와 계면조), 악상(호령조와 애원성), 구절단락법을 들어 가며 설명했다.

한편 판소리 연구가나 명창들은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를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지낸 정병옥은 “동편제는 대충대충 거뜬거뜬하고 서편제는 곱상곱상 차근차근하다.”고 했다. 판소리 인간문화재인 박송희 명창은 “동편제는 남자 소리고 서편제는 여자 소리다.”라고 했다.

위의 표현들을 곱곰이 곱씹어 보면, 동편제는 우조를 주장하여 웅장하고 씩씩한 남성적인 소리로 부침새나 시김새 같은 기교가 적어 담백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편 소리는 계면조를 주장하여 애조를 띤 여성적인 소리이고 기교를 많이 쓰는 서편제 소리보다 훨씬 더 지식층에게 호응을 받기 수월했다.

19세기, 양반들이 판소리의 주된 청중으로 등장하면서 판소리는 양반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무뚝뚝하고 담백한 동편 소리가 양반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었고 19세기는 동편제가 서편제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억눌린 한을 품고 살아가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 애조 띤 계면 선율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 결국 동편 소리는 서편 소리에 우위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동편제 명문가 출신인 송만갑이 자기 집안 소리를 떨쳐 버리고 서편제에서 주장하는 계면조를 적극 수용하여 신동편제를 개척한 것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례와 하동을 주름잡던 동편제 명창들

동편제는 송흥록이 운봉에 살며 창시한 후 그의 조카인 송우룡에게 전해지면서 전남 구례, 순천, 경남 하동 등으로 점차 퍼져 나갔다. 다행스럽게도 섬진강 동편 지방에는 동편제 명창들이 살던 집이나 집터가 남아 있어 동편제 고장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을 꼽는다면 남원 운봉 비전마을의 송흥록이 살던 생가 터, 구례 백련리 위 땅 고랑의 송우룡과 송만갑 부자가 살던 생가 터, 구례 광의면 연파리와 하동 악양면 신대리의 유성준 생가를 꼽을 수 있다.

송우룡, 동편제 법통을 자식의 목숨보다 중히 여기다

송우룡(1825~1897)은 동편제의 창시자인 송흥록의 조카다. 그는 전북 운봉 비전마을에서 태어나 전남 구례읍 백련리 위 땅 고랑으로 옮겨 가

살았다. 그는 송흥록에서 출발하는 송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받았지만 중년이 되어 성대가 상하고 말았다. 비록 자신은 목이 상해 소리를 제대로 못 하게 되었지만 아들인 송만갑이 송씨 가문 소리의 법통을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송만갑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소리를 모색하려 하자 크게 격분한 나머지 송만갑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 송우룡은 학문에도 관심이 많아 운봉향교에 나가 글공부를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아들인 송만갑에게 천자문을 비롯한 한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철두철미하고 학구적인 성향 때문이었던가, 송우룡의 문하에서는 송만갑을 비롯하여 이선유, 유성준과 같은 걸출한 제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 세 사람은 판소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송만갑, 새로운 소리제(신동편제)를 개발하다

송만갑은 구례 백련리 위 땅 고랑 출신이다. 그는 동편제 명문가 출신이지만 자기 가문 소리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소리제(신동편제)를 개발했다. 그 결과 그는 부친과 선배, 동료들에게 ‘송씨 가문의 법통을 부살하는 패러 자손이다’라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중앙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수많은 제자를 남겨서 현재 송만갑 소리가 가장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송만갑은 “극창가는 포목상과 같다. 비단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비단을 주고 무명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무명을 주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선유, 동편제 법통을 온전히 지켜 내다

이선유(1873~1949)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출신으로 송만갑보다 여덟 살 아래요 유성준과는 동갑이다. 이선유는 10여 세에 소리 공부를 시작했다. 15세경에는 전남 구례 백련리에 살던 송우룡에게 3년 동안 배웠고, 그 후 무려 10여 년 동안 독공(獨工)을 했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된 이선유는 서울에서 대원군의 총애를 받고 활동하다 전북 순창에 내려와 살고 있던 김세종에게 가르침을 받아 비로소 득음(得音)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이선유가 송우룡과 김세종 두 스승에게 배운 소리는 양반 취향의 고상한 동편제 소리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판소리의 향유층이 양반사대부에서 일반 대중으로 바뀌면서 이선유 소리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명창들은 청중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여 활동을 이어 나간 부류와 아예 활동을 포기하거나 활동을 축소한 부류로 나뉘었다.

전자는 송만갑이고 후자는 이선유가 대표적이다. 이선유는 끝까지 동편제 소리의 지조를 지켰다. 그 결과 이선유는 대중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고 진주 권번 소리 선생을 하며 제자 양성에 애썼지만 정작 자기 소리를 잇는 제자를 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선유는 인생 말년에 가

서 자기 소리의 가치를 인정받아 송만갑 다음으로 많은 음반을 남겼고, 판소리 명창으로는 최초로 자신이 부른 판소리 다섯 마당이 온전히 담겨 있는 「오가전집」이라는 창본을 남겼다. 이선유의 말년에 비로소 탄생한 음반과 창본은 옛 동편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셈이다. 유성준은 하동군 악양면 출신으로 이선유와 마찬가지로 동편제 법통을 지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성기 음반을 들어 보면, 상당히 속조(俗調)로 기울어져 있는 점으로 봐서 그는 상황에 따라 동편제 법통을 충실하게 따르기도 했고, 대중적 취향에 맞게 변신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융통성을 발휘했기에 유성준은 지방에 살면서 자기 소리를 잇는 제자를 여러 명 남길 수 있었던 것 같다.

풍류가 살아 있는 동편제의 소리

이선유와 유성준의 고향인 하동군 악양면은 하동군에 속하는 13개 면 가운데 전남 구례군과 접해 있는 화개면에 붙어 있다. 마을 뒤쪽으로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한가운데 있는 악양천이 십전강으로 흘러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산수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악양면에는 중국 악양현(웨양 현)에 있는 동정호(동팅 호), 한산사, 악양루(웨양루) 등과 같은 이름의 호수, 절, 누각 등이 있어 마치 중국의 악양현을 우리나라에다 옮겨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악양이라는 지명은 중국 악양현의 악양에서 따왔다고 한다. 중국 악양현 소상강(샤오상 강) 일대의 유명한 명승지를 소상팔경(샤오상팔경)이라고 하듯이 악양의 경치가 빼어난 여덟 곳을 악양의 소상팔경이라고 한다. 이처럼 악양면은 경치가 아름다웠기에 오래전부터 악양면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사는 양반이 많았다. 조선조에 와서는 태조, 정종, 태종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조준의 직계 후손인 조재희(1861~1942)와 순종의 시종관을 지낸 이은우(1881~1938)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환갑 잔치 때 광대를 불러다 놀 정도로 풍류를 즐길 줄 알았고, 판소리에 대한 조예가 깊어 판소리 명창들을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보면 양반 출신의 판소리 후원자가 살던 하동 악양에서 이선유와 유성준같이 걸출한 동편제 명창이 두 명이나 배출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오랫동안 동편제 소리가 끊겼던 하동 악양에 이선유와 유성준을 위한 기념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반갑기 그지없다. 앞이 돈고 꽃이 피는 봄날에 악양루에 올라 동정호를 바라보며 이선유가 남긴 〈심청가〉〈소상팔경〉을 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망망헌 창하오이며 탕탕한 물결이로구나”로 시작하는 이선유 명창의 〈소상팔경〉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

천 년도 더 된 오래전,
노래를 잘하는 스님이
있었다. 그의 노래 솜씨는
빼어나 당나라의 「고승전」
에까지 실릴 정도였다.
그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섬진강 기슭, 지금의
쌍계사에 머물자 금세
소문이 나서 나라 안
승려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에게 불교
노래인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일권기를 그의 범패는
섬진강의 은어가
유유히 물속을 헤엄치는 듯
유려했다고 한다.
그는 진감선사다.

섬진강 물결에 씻어 내린 해탈과 깨달음의 노래 화개동천에 울려 퍼진 범패

쌍계사는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세 개의 능선 중 화개골에 들어앉았다.

한동안 타작마당에서는 굶눌이가 밃은 것 같더니 별
안간 경풍 들린 것처럼 켤과리가 악을 쓴다. 빠르게
드높게, 켤과리를 따라 징 소리도 빨라진다. 깨깁
깨애깁! 더어응응응- 장구와 북이 사이사이에 끼어
서 들려온다. 신나는 타악 소리는 푸른 하늘을 빙글
빙글 돌게 하고 단풍 든 나무를 우쭈우쭈 춤추게 한
다. 웃지 않아도 초생달 같은 눈의 서금돌이 앞장서
서 놓고 있을 것이다.

박경리 소설 「토지」는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된다. 1897년 한가위. 구한
말 천 년 이상 이어 온 가을 추수 후의 풍성한 풍경이 섬진강 주변의 풍
경과 함께 어우러져 물려온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는 섬진강 하구
진월에서 25km, 진월에서 섬진강 안으로 쏙 들어온 하동에서 섬진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평사리에는 평사리문학관, 「토지」
영화 촬영지 최참판댁이 자리 잡고 있다.

「토지」에 나온 ‘허구’지만 한국 근대사를 잘 그려 낸 대서사시의
현장으로 섬진강변 평사리 모습이 새삼 다가온다. 평사리에서 섬진강
을 따라 서북쪽으로 7~8km 더 올라가면, 가을에 주변 지리산 자락에서
수확한 밤이 가득 쌓여 풍성해 보이던 곳, 화개장터가 나온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갈라진 섬진강의 지류 화개천을 따라 6km 벚꽃길이 화개십
리로 유명한 쌍계사길이다. 1931년 화개면 주민들이 벚꽃나무 1200그
루를 심어 비롯된 현재의 벚꽃축제는 섬진강 맞은편 전라도 땅의 매화
마을에서 열리는 매화축제와 함께 관광 명소다.

섬진강에서 동북쪽으로 향한 지류 화개천보다 서북쪽으로 3km 정
도 올라가면 화개천과 나란히 동북쪽으로 향한 섬진강 지류 연곡천이
있는데 이를 따라 북쪽으로 7~8km 올라가면 구례 화엄사와 함께 지리
산에 가장 먼저 들어섰다는 연곡사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지리산 제2봉인 반야봉까지 20km 정도의 연곡천 계곡
이 지리산 10경에 드는 피아골이다. 또 섬진강 지류 연곡천 입구에서
섬진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12km쯤 더 가면 화엄천이 나오고, 여기서 북
쪽으로 꺾어 8km 정도 올라가면 544년(진흥왕 5) 인도승 연기가 세웠다는
화엄사가 나온다.

동북쪽에서 서남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지리산 주봉에서 남쪽으
로 펼쳐진 세 개의 능선 사이사이에 각각 화엄사, 연곡사, 쌍계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라도 구례의 화엄사, 경상도 하동의 쌍계
사, 그 접경의 연곡사는 모두 신라 때 지어진 고찰이요, 대한불교 조
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와 제13교구 총림 쌍계사는 여러 말사를
거느린 대찰이다.



진감선사, 범패로 불교의 의식 음악을 전하다

봄철마다 벚꽃축제로 몸살을 앓는 화개십리의 끝자락에 자리한 쌍계사는, 현대의 도심에 자리한 여느 으리으리한 절집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라 성덕왕 21년(722년)에 처음 지어져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승이 거쳐 가며 많은 유적 유물을 남겼다.

대웅전(보물 제500호)과 응진전, 명부전(유형문화재 제123호), 팔상전(유형문화재 제87호), 노전(爐殿), 적묵당(寂默堂, 문화재자료 제46호), 설선원(說禪院, 문화재자료 제153호), 나한전(유형문화재 제124호), 육조정상탑전(유형문화재 제125호)과 청학루(靑鶴樓) 그리고 천왕문(유형문화재 제126호), 금강문(金剛門, 유형문화재 제127호), 일주문(유형문화재 제86호) 등과 함께 진감국사대공탑비(眞鑑國師大空塔碑, 국보 제47호), 부도(浮屠, 보물 제380호), 팔상전영산회상도(보물 제925호), 석등(유형문화재 제28호), 불경책판(유형문화재 제185호)이 있어 그야말로 보물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찰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문화적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진감국사대공탑비에 적혀 있는 진감선사의 범패(梵唄)다. 진감국사대공탑비는 850년에 입적한 혜소(慧昭, 진주, 774~850)를 기리며 887년 진성여왕의 명으로 최치원이 문장을 지어 건립한 탑이다.

780년 선덕왕이 즉위한 이후 155년간은 신라 하대로 무려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계속된 시기다. 진감선사는 이러한 시기에 신라 선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실천적 수행과 포교 활동을 통해 선(禪) 사상과 새로운 범패의 보급에 힘을 썼다. 진감선사와 관련된 역사의 기록은 쌍계사에 있는 진감국사대공탑비문에 기록된 것이 유일한데, 이에 의하여 진감선사의 일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감선사의 법휘(法諱)는 혜소(慧昭), 시호(諡號)는 진감(眞鑑)이며 속성(俗姓)은 최씨(崔氏)다. 선조는 산둥지방의 벌족이었던 한족(漢族)으로 수(隋)와 고구려의 전쟁 시 고구려에 항복하여 고구려민이 되었다가 신라통일기에 이르러 금마(金馬)에 정착한 유민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창원(昌元)은 독실한 불교도로 재가신도이면서도 출가승과 같이 수행했다. 혜소 역시 어머니 고씨가 꿈에 범승(梵僧)이 나타나 유리 항아리를 전해 주며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꿈을 꾸고 난 후 태어났다. 이렇듯 독실한 불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교도인 그였지만 비교적 늦은 31세의 나이로 출가하게 된다.

부모가 죽은 후 혜소는 804년(애장왕 5) 세공사(歲貢使)의 배를 타고 당나라에 이르러 창저우(滄州)

최치원의 사산비문 중 하나인 진감국사대공탑비에는 선사가 범패를 들어왔다고 한다.



쌍계사 마당에 있는 진감국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 국보 제47호)다. 비문은 최치원이 썼으며 그의 사산비(四山碑) 중 하나다.

이미 범패가 있었지만 진감선사의 범패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당풍이어서 새로웠다.

에서 신감대사(神鑑大師)의 제자가 되었고, 그 문하에서 선사상을 수용하고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혜소는 810년(현덕왕 2) 당나라 쑹산(嵩山)에 있는 소림사(少林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더욱 정진하기에 이른다.

그는 각지를 유람하며 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혜소는 그보다 앞서 당나라에 갔던 신라 선종의 도의(道義)를 만나 함께 편력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탐구한다. 도의가 먼저 귀국하자, 혜소는 중난 산(終南山)에 들어가 선정과 지혜를 닦으며 고요히 참선했고 그 뒤에는 길거리에서 짚신을 삼아 3년 동안 오가는 사람에게 보시했다. 이러한 고행을 통해 실천적 불교 사상을 체득한 그는 830년(흥덕왕 5)에 귀국하여 국왕의 환대를 받으며 상주(尙州) 장백사(長栢寺)에 주석하게 된다. 이후 상주를 떠나 지리산으로 옮겨 가서 교세의 확장을 꾀한다. 혜소가 지리산에 처음 도착한 곳은 화개곡(花開谷)으로, 삼법화상(三法和尙)의 활동 지역이었다.

이렇게 지리산으로 옮겨 간 혜소가 지리산에 자리 잡고 교화를 계속하고 있던 838년(민애왕 1) 민애왕이 즉위하여 그를 만나기를 청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는다. 그러자 민애왕은 그가 색과 공을 초월하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원만히 갖추었다고 하며 소성왕(昭聖王)의 이름을 피하여 혜소라는 호를 내린다. 그리고 황룡사(皇龍寺)에 승적을 올리고 서울로 나오도록 청했다.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남령 기슭에 옥천사(玉泉寺: 雙谿寺)를 짓고, 조계 육조의 영당을 세우는 등 교세 확장에 더욱 힘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이곳에서 선사가 새롭게 들어온 범패를 여러 승려들에게 가르쳤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혜소는 850년 그의 나이 76세, 법랍 41세로 입적했고, 헌강왕(憲康王)대에 이르러 진감이라 시호하고, 탑호를 대공영탑이라 했다.

진감선사가 전한 범패는 불교의 의식 음악을 말한다. 현재는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재(齋) 의식에서 주로 전문적인 범패승이 의식을 거행하며 부처를 찬양하고 불교의 교리를 노래하는 범패와 함께 춤(作法)을 추지만, 불교가 성행했던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강경 의식(講經儀式), 백좌도량(百座道場) 등 다양한 불교 의식에서 범패를 노래했다.



팔영루(八詠樓)는 진감선사가 당(唐)나라에서 범패 종장(梵唄宗匠)이 되어 돌아와 12년 동안 여러 사람에게 불교 음악을 가르쳤다고 전하는 곳이다. 범패 교육장의 역할을 했던 누각으로 그는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에 어울리는 범패를 만들어 냈다. 팔영루라는 이름도 진감선사가 섬진강에서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팔음률(八音律)로써 어산 범패(魚山梵唄)를 작곡한 곳이라는 전설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누각은 정면 다섯 칸, 측면 세 칸의 2층 누마루다. 처음 신라 문성왕(文聖王) 2년(840)에 진감선사가 창건했다. 조선 인조 19년(1641) 때 벽암(碧巖)스님이 중수한 후 1978년 혜원(慧元)스님이 중수했다.

진감선사가 가르친 것은 중국화한 불교인 선종(禪宗)과 함께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범패도 역시 중국화한 범패였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인도에서 생성된 인도식 범패는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것이며, 그렇다면 진감선사가 들어와 가르친 범패는 중국식 범패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들어와 있던 인도식 범패를 가르친 것을 새로운 사실로 중요하게 기록으로 남겼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달마에 의해서 중국에 소개된 선(禪)이 중국화하면서 선종(禪宗)을 일으켰고, 이때 중국화한 범패가 새롭게 생겨나, 당시에 당나라에 갔던 진감선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패를 배우기 위해 쌍계사로 모여들다

한편 진감선사와 동시대의 일본 승려인 자각대사는 당나라에 입국하여 여러 절에 구법(求法)하러 다니면서 겪은 일들을 일지식으로 기록하여 남겼는데, 그가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산둥 반도 덩저우(登州)에 있는 신라인의 절 적산원(赤山院)의 불교 의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신라인들의 불교 의식에서 불리는 범패에는 고풍(古風), 당풍(唐風), 신라풍(新羅風)의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고풍(古風)은 자각대사가 일본에서 들어 본 것이므로 가장 먼저 전래된 인도식 범패로 생각되며, 당풍(唐風)은 중국화한 중국식 범패, 신라풍은 신라화된 향풍(鄕風)의 범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승되어 불리는 범패에는 짓소리, 홑소리가 있지만, 그 음악적 특징은 주로 낮은 음부터 ‘미-솔-라-도-레’로 구성되는 메나리토리로 된 것이 가장 많아 그 구분이 불확실하며, 각 지역에 따라 지방의 음악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떤 소리가 인도식 고풍(古風), 중국식 당풍(唐風), 신라식 향풍(鄕風)의 범패의 전승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불리는 범패에는 인도의 범어(梵語)로 불리는 진언(眞言)이 있고, 4언 혹은 5언, 7언의 한시(漢詩)나 한문 문장으로 된 계송(偈頌)이 있으며, 한국어로 된 화청(和淸) 등의 노래가 불리고 있어 현재 전승되는 범패의 근원이 신라시대에 불렸던 범패들과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진감선사가 경상남도 하동 옥천사(쌍계사)에서 범패를 가르쳤고, 그 이후로 범패를 하는 승려들이 넘쳐났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후자는 이 진감국사대공탑비문의 기사에 의하여 마치 이 지역이 우리나라 범패의 진원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감선사의 범패가 우리나라 범패의 시원이 아닌 바에는 이곳을 우리나라 범패의 발원지로 볼 수는 없다. 범패, 적어도 인도풍 범패는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혹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전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진감선사에 의해서 새로운 당풍의 범패가 퍼지기 시작한 곳이 경상남도 옥천사인 것은 사실이며, 그 맥이 이 지역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왔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진감선사는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한다. 중국의 「고승전」에도 그의 노래 실력이 빼어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차(茶), 선종(禪宗)과 함께 범패를 전파한 진감선사의 범패 소리가 뛰어나서 이미 불교의 전래와 함께 전문 범패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승려들이 진감선사의 범패를 배우기 위해 구름같이 쌍계사로 모여들었다. 그의 범패는 마치 섬진강의 은어가 유유히 물속을 헤엄치는 듯했다고 전해지는 것은, 그만큼 가락의 흐름이 유려하고 기절 것이 없으며 현재의 범패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느릿하고 장인굴곡(長引屈曲)한 특징이라 여겨진다.

고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삶의 질곡, 그 끊임없이 계속되는 절망에 포기하지 않고 면면히 세월을 지탱하며 삶을 이어 온 우리 민족의 끈기가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를 도도하게 흘러 나가는 섬진강의 물결과도 같고, 선(禪)을 통해 누구보다 앞선 깨달음을 터득한 진감선사가 쌍계사에 자리하여 범패를 노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불교의 깨달음을 섬진강의 물결을 모방하여 가락으로 풀어낸 진감선사 범패의 장인굴곡한 가락이 박경리가 그려 낸 평사리 한가위의 농악 소리와 어울려 지금도 낫가에 쟁쟁 울린다. ㉞

진감선사가 경상남도 하동 옥천사(쌍계사)에서 범패를 가르쳤고, 그 이후로 범패를 하는 승려들이 넘쳐났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후자는 이 진감국사대공탑비문의 기사에 의하여 마치 이 지역이 우리나라 범패의 진원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진감선사의 범패가 우리나라 범패의 시원이 아닌 바에는 이곳을 우리나라 범패의 발원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진감선사에 의해서 새로운 당풍의 범패가 퍼지기 시작한 곳이 경상남도 옥천사인 것은 사실이며, 그 맥이 이 지역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왔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인
<두바쿠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人文 風景

이상향은 마음속에 있고, 돌길 곁에는 물길이 있다네 호도협-리장 고성- 봉황고성-쑤저우

16일 동안 중국의 서쪽에서 동쪽 상하이까지 움직였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움직여야 하는 거리가 5000km에 가까웠다. 머릿속으로는 들르는 고성마다 펼쳐진 물길을 따라 살살이 걸을 요량이었지만 시간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몇 군데만이라도 걸으며 느낀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의 풍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문의 풍경 또한 어마어마하니까 말이다. 주마간산 격이긴 하지만 샹그릴라로 가는 흙길과 고성 안의 돌길 그리고 쑤저우의 물길을 걷고 난 후 중국을 더미로 보지 않고 날날이 뜰어서 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80만 무(畝, 1무는 약 666㎡)의 경작지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붉은 수수가 장관을 이루는 뤼핑은 윈난 성 북동쪽이다.





뤄핑에는 부이족(布依族), 이족(彝族), 미아족(苗族), 회족(回族)과 같은 소수 민족이 있고 이 가운데 부이족이 가장 많다.

별은 나의 작은 꿈이었다

윈난 성(雲南省)의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도 구시렁거렸다. ‘소설은 소설일 뿐인 거야’라고 말이다. 쿤밍(Kunming, 昆明)에 다다라 ‘꽃의 바다(花海)’라고 불리는 뤼핑(Luoping, 羅平)에 다녀온 아침, 리장(Lijiang, 麗江)을 향해 새로 닦은 고속도로를 꼬박 하루 동안 달렸다. 다리(Dali, 大理) 고성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산책을 한 후 출발했지만 어두운 저녁이 되어서야 다다를 수 있었다. 명대(明代)에 지어졌다는 객잔에서 자는 등 마는 등 누웠다가 동이 틀 무렵 서둘러 길을 나섰다. 더 이상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험한 곳으로 향해 가던 길은 점점 거칠어졌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은 코발트블루였고, 그 빛을 담보한 아득히 먼 계곡을 흐르는 물빛은 옥빛 그 자체였다. 이른 봄 햇살은 사정없이 온몸 구석구석을 찢어 뚫고, 건조한 날씨에 일어나는 흙먼지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바람이 불면 먼저 숨을 멈추어야 했으며, 본능적으로 코와 입을 감싼 채 고개 숙이기를 되풀이하며 걸었다.

멀리 산중 객잔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 앉아 해거름의 고즈넉함을 즐긴 지 오래, 뽕죽한 뭇 봉우리들의 꼭대기가 저녁놀에 별장게 달아오를수록 계곡은 깊은 침연에 젖는 듯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 시간 위룽 설산(玉龙雪山, 5,596m)과 하바 설산(哈巴雪山, 5,396m) 사이의 대협곡인 호도협(Tiger Leaping Gorge, 虎跳峡)은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heure entre chien et loup)’에 접어든 것처럼 고요했으며, 나는 별이 뜰 때까지 꿈쩍도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저물자 금세 추위가 엄습했다. 비록 꽃이 피긴 했지만 산중은 2500여m에 달하는 높이인 탓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그래도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을 뿐 자리를 뜨지 않았다. 청량한 밤, 별빛을 마주한 적이 언제였는지 아득했기 때문이다. 열아홉 살 때였다. 그해 겨울이 시작된 어느 날 밤, 나는 설악산 울산암 위에 텐트를 쳤다. 어느덧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태 그날 봤던 별을 잊지 못한다. 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남은 무수히 많은 별들은 이불이 되어 나를 덮었고, 그중 유난히 큰 별 하나는 당시 내가 처음 사랑했던 동년배의 눈망울처럼 빛났다.







협곡 건너 봉우리에는 아직 해가 남아 있지만 산길에는 그들이 드리웠다. 이때부터 높은 곳에 올라 앉아 '개와 늑대의 시간'을 즐겼다. 낮선 곳에서 맛닥뜨리는 자유는 길 떠난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다. 큰 바위 위에 누워서 봉우리가 붉게 물들었다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가 달빛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을 잊지 못하겠다. 달빛에 창백해진 봉우리 위에 별이 뜰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호도협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간혹 산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보인다. 사진에 보이는 굽은 길은 걷는 길이 아니라 자동차길이며, 가느다란 길이 걷는 길이다. 겨우 차 한 대 지나 다닐 정도이며, 이른 아침에는 갓가지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가 산에서 내려간다. 계곡까지 수백 미터에 가까운 급경사여서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가까운 시가지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산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자동차는 그저 낡은 것일 뿐 SUV가 아니다.



굳이 꽃 이름을 몰라도 좋았다. 3월이 이제 막 시작인데 해발고도 2600m 남짓한 곳에 꽃이 피어서 잠시 놀랐지만 둘러보니 한두 곳이 아니었다. 윈난 성은 고대 인류의 요람지로서 400만 년 전부터 '동방인(東方人)'인 위안머우원인(元謀原人)이 살았으며, 187만 년 전에 이미 직립보행을 한 위안머우인(元謀人)이 거주했던 곳이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마고도(Ancient Tea Route, 茶馬古道)는 실크로드보다 200여 년 앞서 형성된 고대의 교역로를 말한다. 차마고도가 문명, 문화, 경제 교역로로 번성하던 당송시대에는 차가 중요한 운송품이고, 말 또한 중요한 운송품이자 운송 수단이었다. 지금도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차마고도는 교역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말이 주요한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트레커나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기도 한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등근 것은 불쏘시개인 쉼을 쌓아 놓은 것이다. 산중 사람들은 제각각 쉼을 굽어모아서 자량이라도 하듯이 집 앞에 쌓아 놓았다. 그 더미가 서넛이나 되는 집도 있었는데 아마 그 주인은 부지런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또 쉼의 가장 위에는 생 소나무 가지를 꽂아서 그 끝을 표시해 두었고, 위에서부터 헐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굴을 파듯 사용하며 저절로 허물어져 내리게 한다.



차마고도의 주요 경로는 대략 여덟 개 정도다. 그중 윈난 성(雲南省)의 시창반나(西雙版納)-푸얼(普洱)-다리(大理)-리장(麗江)-더친(德欽)-차위(察隅)-방다(邦達)-린즈(林芝)-라썸(拉薩)-네팔-인도의 경로와 쓰촨 성(四川省) 야안(雅安)-다두하(大渡河)-강딩(康定)-더거(德格)-시창-네팔-인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마방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전한다.



사람들이 빗어 놓은 인문의 풍경은 자연을 극복하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바꾸려 애를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문의 풍경은 사람들이 애를 쓴 만큼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다. 길을 가다가 발을 가는 농부를 보았는데 그의 발끝은 천길 낭떠러지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줌 땅이라도 더 경작지로 만들려 애를 쓰는 모습은 차라리 거룩하기까지 했다. 그의 삶에 정의라도 표해야 할 것 같다.



예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길 위에는 염소를 치고 말을 방목하는 목자들이 오가곤 했다. 목자는 여인인 경우도 있지만 남자도 많았다. 전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권했고 그는 나에게 해바라기 씨를 비롯한 각종 씨앗을 주었다. 양들을 풀어 놓고 무묘한 시간에 그것을 씹으며 지내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는 염소를 산에서 키우면 산양이라고 불렀다.



그날 주먹만 한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앉은 선배는 바다를 바라보며 바이런(Baron Byron, 1788~1824)을 노래했고, 밤바다에는 오징어잡이 배의 불이 꽃처럼 피어 있었다. 별은 그때부터 나의 작은 꿈이 되었다.

내 마음 속의 샹그릴라

사실 몇 해 전, 사경을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회복하고 난 후 모든 일을 접을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별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잔뜩 사 가지고 산야를 누빌 요량으로 썸을 해 보기도 했다. 열아홉 살 때부터 별은 나에게 마치 샹그릴라(Shangri-La, 香格里拉) 같은 존재였으니까 말이다. 물론 샹그릴라는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어서 별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영국의 소설가인 제임스 힐튼(James Hilton)은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1933)에서 말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 뻥히 보이는 저곳이 지상에 존재하는 평화롭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라고 말이다. 그렇게 샹그릴라가 그에게 이상향이었던듯이 별은 나에게 이상향이었다.

객잔에서의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다시 길을 나섰다. 소설 속의 그곳, 샹그릴라를 찾아갈 참이었지만 문득 티베트 사람들이 샹그릴라를 부르는 말이 떠올랐다. ‘마음속의 해와 달’이라는 것 말이다. 그 때부터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산양을 치는 목동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눈에 띄게 느려지고 말았다. 마음속에는 비행기를 탈 때부터 되뇌었던 ‘소설은 소설일 뿐인 거야’라는 말이 스멀스멀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채 스물이 되지 않았던 날의 별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태 간직하고 있듯이, 그렇게 이상향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일 뿐 그것이 과연 특정한 장소일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인 피안(彼岸) 또한 차안(此岸)의 대안일 뿐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산 구비를 넘어갈 때마다 생각의 구비 또한 넘어섰고, 이윽고 몸이 날아갈 정도로 모진 바람이 몰아치는 바람 모퉁이에 섰다. 그곳에서 만만치 않은 바람을 견디며 우뚝 서 있었다.

이윽고 몸이 날아갈 정도로 모진 바람이 몰아치는 바람 모퉁이에 섰다. 그곳에서 속진을 쫓았다.

옷이 찢어질 것처럼 불어 대던 바람을 수십 분이나 버틴 것은 모진 바람에 그동안 나에게 묻었던 속진(俗塵)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불현듯 바람이 그치면 잔뜩 웅크린 채 가누고 있던 몸이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리기를 여러 차례, 별을 내 안에 품고 살아왔듯이 샹그릴라 또한 마음속에 품은 채 돌아서기로 했다.

내가 서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샹그릴라이고, 내 마음 속이 유토피아인데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돌아서면서 또 구시렁거렸다. ‘그래, 소설 속 이야기일 뿐이야.’ 하고 말이다.

여명에 빛나는 아름다운 돌길

중국의 고성들 중 유일하게 성곽이 없는 리장 고성으로 돌아온 새벽,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아직 깨어 나지 않은 거리에는 여명이 스미고 있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뻔 수가 없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장면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길에서 윤이 났다. 마치 일렁이는 강물의 윤슬처럼 길이어스름 새벽 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다. 길은 돌이었고, 헤아리지조차 못할 만큼 술한 사람들이 그위를 지나다녀 닳아 있었다. ‘반질반질’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맞는 모습을 한 돌길은 어쩌면 여태 내가 찾고 있었던 그런 ‘인문의 풍경’이자 ‘흔적’이었다. ‘인문’이란 거대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거대하게 이뤄져 가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이 거대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인문은 비록 소소하더라도 제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긴 세월을 견뎌온 것들은 대개 아름답게 마련이다. 하필 새벽 시간에 맞닥뜨린 돌길에게서 놀란 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지나다닌 무수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남겨 놓았을 흔적들 때문이었다.

고성의 중심지이자 명청(明清)시대부터 차 교역의 중심지였던 시광지에(四方街)의 돌바닥은 붉은색 우화슬(五花石) 무늬까지 아름다웠으며, 고성 내 모든 돌길 곁으로 난 물길에는 맑은 물이 냇물처럼 흘렀다.

내가 서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샹그릴라이고, 내 마음 속이 유토피아인데 어디에서 또 무엇을 찾는단 말인가.



이른 아침 여명에 반짝이는 고성 안의 돌길



巷里 精品私房菜馆

毛肚火锅
海鲜
烧烤
私房菜

云南名烟



고성 안의 돌길 곁으로는 물길이 있다.



원난에는 소수 민족(racial minority, 少數民族)이 많다. 그중 리장 고성에는 차 교역의 중심지인 시팡지에가 있는가 하면 차의 종류 또한 소수 민족의 수만곱이나 많다. 다리 고성에 살고 있는 바이족은 향뢰차(響雷茶)를 즐기는데 이는 차의 종류라고 하기보다 차를 마시는 방식을 일컫는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은 신선한 찻잎을 단지에 넣고 굽기 시작한다. 단지 안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차는 순식간에 구워지는데 잎이 구워졌다 싶을 때 열른 끓는 물을 부으면 단지 안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에 따라 손님의 웃음소리 또한 커졌다가 작아지곤 하는데 이 지역 사람은 웃음소리와 함께 나는 소리가 길상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소수 민족은 대략 원어섯 종족이라고 알려졌지만 그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 소수 민족은 인구수에 비해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그들이 머무는 땅은 대개 고산 지대이거나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다. 리장의 시팡지어나 물레방아가 있는 광장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각 소수 민족들의 춤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다. 스스로 흥이 나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춤을 추다가 잠시 쉬던 할머니는 사진 찍는 나에게 다가와 사진을 보여 달라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 물은 마을 북쪽의 상 산(象山) 아래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 고성 안으로 흘러든다. 그러곤 고성 내 모든 집 앞으로 돌고 돌아 빠져나가니 이는 고성의 주인인 나시족(納西族)의 지혜다. 며칠 전 지나온 다리 고성 바이족(白族)도 창산(倉山)에서 내려오는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시족은 세 갈래의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가장 위쪽 물은 마시는 물로, 가운데 흐르는 물로는 밥을 지으며, 가장 아래로 흐르는 물은 빨래와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이다.

‘쭈저우에서 나고 향저우에서 살다’

물이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아주 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문득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 중에 물을 길으러 가는 길이 가장 먼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길이란 내가 머무는 곳과 또 다른 특정한 장소를 반복하면서 생겨나게 마련이다.

내가 본 아름다운 길 중 하나는 15여 년 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 어느 야산에 있었다. 아직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은 불과 20m 남짓할 뿐이다. 당시 그곳에는 어머니 묘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던 이가 있었는데 길은 자신이 사는 여막에서 어머니 묘까지 참배 가는 동선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세 차례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 3년을 그렇게 다니고 나니 절로 길이 생긴 것이다. 어머니 묘 앞에는 그이가 서 있었던 발자국 또한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길은 어머니 묘 앞을 지나 산으로 향하다가 뚝 끊어졌다. 그 길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이는 화장실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때 생각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길이란 필요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말이다. 아직 농경을 시작하지 않아 수렵이나 유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농경 생활로 인하여 정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지 않을까 싶다. 농사는 천수답이었을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물은 언제나 삶터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득 인간이 만든 길 중에 가장 먼저인 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장 고성은 성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성 안은 모두 돌길이다. 그 돌길 걸음로는 설산에서 내려온 물이 흐른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강물이나 냇물 혹은 천연 샘이 물을 조달하는 장소였을 테지만 후에는 인공적인 힘이 가해진 우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내가 사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까지 혹은 경작지가 있는 곳까지 또 갖가지 먹거리를 채취할 수 있는 산으로 가는 길이 생겨난 것이리라.

중국의 물길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 전체에 걸쳐 작은 고성에서 이뤄지는 이와 같은 물길의 운용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당대운하(隋唐大運河),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와 절동대운하(浙東大運河)를 총칭하는 중국대운하 건설에서 받은 영향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개 수당대운하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당대운하 구간에 이미 운하가 존재했다고 하는데 바이고우(白溝)와 홍고우(鴻溝)가 그것이다. 홍고우는 고대 황하(黃河)와 회하(淮河)를 연결했으며, 바이고우는 삼국시대 조조가 군사 목적으로 뚫었다고 전하는 운하지만 그 흔적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듯 고대부터 운하를 파기 시작하여 물길을 만들었으니 수양제 또한 그렇게 축척된 기술을 바탕으로 대운하를 팔 엄두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고성들의 물길이 하찮게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번에 길을 나선 까닭은 바로 그 물길을 보기 위함이었다. 대뜸 대운하로 달려가 큰 물을 보는 것도 좋았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그 운하의 문화적 근원이거나 아니면 그로 인하여 생겨난 또 다른 문화들을 보고 싶었다. 전에도 더러 고성을 찾아가는 일은 있었다.

그러나 묘하게도 단 한 차례도 물길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3일 동안 리장 고성에 머물며 골목골목 물길을 따라 걸어 보지 않은 돌길이 없다. 마치 해자(壕子)처럼 물길을 건너야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부터 300여 개에 가까워 미처 헤아리지도 못한 돌다리들은 집에서 골목으로 드나들게 해 주고, 골목과 골목을 잇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으니 구석구석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물길을 가진 고성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대운하가 완공되고 난 후의 일이다.



리장 고성의 중심지인 시팡지에 서쪽에 자리한 3층으로 된 커궁팡(Kegongfang, 아치형으로 된 황제 감시소) 앞에 있는 수문은 독특한 도시 위생 시설이며, 길을 청소하기 위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두 개의 물길을 이용하고 있다. 광장은 붉은색 우회슬로 포장되어 있고, 물은 그곳에서 세 개의 지류로 나뉜다. 이 세 지류는 각 마을의 집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시 땅 위의 물길과 땅속의 물길로 나뉘어 흐르며, 마을에 있는 많은 샘과 우물에 물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복잡한 수로 체계 때문에 리장에는 형태가 각기 다른 크고 작은 다리 354개가 있다. 이것이 리장을 ‘다리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다. 물론 그러한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산이 아름답고, 물이 아름답고, 노래가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봉황고성

그러니 물길은 작은 것이 큰 일의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일이 작은 곳으로 응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장 고성만 하더라도 송원(宋元)대에 건립이 시작되어 명청(明清) 시기에 융성했으니 수당대운하가 건설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300~400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산이 아름답고, 물이 아름답고, 노래가 아름답고, 사람이 아름답다(山美, 水美, 歌美, 人更美)’는 튀장 강(沱江)에 에워싸인 것 같은 후난 성(湖南省)의 봉황고성(鳳凰固城) 또한 마찬가지다. 봉황고성은 원나라 때 토성으로 시작하여 명나라에 이르러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쑤저우(蘇州)와 항저우(杭州)는 다르다. 이 두 곳은 수당대운하가 개통될 당시부터 강남 쌀(江南米)의 수송지로 활기를 띠었던 곳이다. 그러니 당연히 물길의 크기부터 앞에 말한 고성들과는 다르다. 앞에 말한 것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길이었다고 한다면, 쑤저우와 항저우의 물길은 일상생활도 생활이려니와 그보다는 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운송에 더 알맞게 만든 물길이였다. 쑤저우는 항저우와 더불어 ‘하늘엔 천당,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天上天堂 地下蘇杭)’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다. 또 ‘쑤저우에서 나고 항저우에서 살다가, 광저우(廣州) 가서 먹고 류저우(柳州) 가서 죽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 덕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원들은 물러난 관료들이 만들어 낸 문화의 단편일 수도 있다. 쌀이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땅이 넓고 기후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농사를 지을 땅이 넓으면 지주(地主)들이 득세하게 마련이고, 관직에서 물러난 퇴직 관료들이 대개 지주가 되곤 했다. 그들이 지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투여하여 저택을 짓고 꾸민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명원(名園)일 것이다.

쑤저우와 가까운 루즈진(甬直鎮)에 가면 물길 바로 곁에 쌀을 운송하던 부두가 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배를 타는 장소로 전락한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쑤저우





박제된 인문의 풍경

쭈저우와 가까운 곳들의 물길을 찾아다니던 중 낯선 풍경 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리장 고성의 아름다운 돌길 앞에서 얼어붙었던 것과 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다. 쭈저우 시내에서 한 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소문난 관광지인 퉁리(同里)의 물길을 따라 길을 때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상춘객들이 돌길을 가득 메우고 물길에도 관광객을 태운 배들이 꽉 찬 듯이 흘러 다녔다. 투이쓰위안(退思園)과 같은 곳들을 먼저 둘러보고 삼교(三橋)에 다다라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가마우지 낚시 때 문이었다. 새를 가진 어부는 평상시 가만히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울 뿐이었다. 그러다가 관광객이나 뱃사공들이 박수를 치거나 뱃전을 두드리면 그제야 일어나 새들이 실려 있는 배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흥정을 시작했다. 한 마리는 얼마이고, 두 마리는 얼마다 이런 식이었다. 흥정을 마치자 배를 타고 있던 관광객들은 긴장하며 어부를 보고 어부는 익숙하게 가마우지들을 물속으로 몰아넣었다. 가마우지 또한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았고, 어부는 흥정한 만큼 물고기를 잡은 가마우지를 배로 끌어올려서 잡은 물고기를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관광객들은 박수를 치고 어부는 또 무심히 의자에 앉아 담배를 빼 물었다. 30분이 넘도록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가 절대 아니다. 과거의 생업이 또 다른 형태의 직업이 된 새로운 인문의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박제된 풍경이었을 뿐 살아 있는 풍경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까마득하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의 생생한 풍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문의 풍경일지는 자신하지 못하겠다. 천 년이 지나면서 더욱더 아름다워진 돌길에 반추되는 가마우지 낚시의 잔향은 돌아오는 내내 마뜩치 않아 스스로에게 구시렁거렸다. ‘네가 고지식한 거야. 세상은 변하는 거지, 그냥 두면 모두 스스로 알맞은 자리를 찾아간다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그때는 그것이 맞는 거야’라고 말이다. ㉠

퉁리에서 이뤄지는 가마우지 낚시는 슬픈 모습이지만 세월 따라 변해 가는 현상을 어쩔 것인가.



퉁리



통리 삼교에서의 가마우지 낚시



나시족을 뜻하는 동파문자

현명한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쓴 문자 아름다운 글씨 동파문자

동파문자는 중국 윈난 성
리장 고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수 민족인
나시족(納西族)이
천 년이 넘도록
사용해 오는 고유한
문자이며, 2003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물을 본떠서 그리며
거기에 인간의 관념을
포함시키는 문자인
상형문자의 일종이다.
초기의 한자들과 이집트
문자들이 대개 상형문자
였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시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자를 고집하며
사용한다. 등바(東巴)는
나시어로 ‘현명한 사람’이
라는 뜻이다.



동파의 성지인 백수대의 르수완 촌에 살았던 시아뉴 대동파, 동파는 종교적 제의를 주관하는 사제를 일컫는다.



보다



독서



염소를 치다



밭을갈다



임신하다

중국 남쪽, 윈난 성에 살고 있는 나시족은 동파 문화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세계문화유산인 리장의 고성,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삼강병류지역, 인류의 마지막 낙원이라 불리는 상그릴라 일대는 모두 나시족이 대대로 살아온 지역이다. 차마고도의 중요한 역참이며 티베트 고원으로 들어서는 문턱이기도 한 리장의 고성만년설로 뒤덮인 위룽 설산을 마주 보고 수로와 석판길이 종횡으로 이어져 있다. 이곳에 들어서면 성안 곳곳에서 만나는 상형문자에 다시 신화 속의 세계로 들어서는 느낌을 갖게 된다. 상점의 간판이나 벽에 쓰여진 그림문자, 여행 상품으로 팔리는 티셔츠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 의미를 지닌 아름다운 문자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 상형문자를 동파문자라고 한다. 사물의 형체를 본떠서 그대로 그려 내고 있으므로 그 형체를 보면 의미를 알 수 있는 글자들이 많다. 동파문자의 태양은 둥근 해의 형상에다 뻗어 나오는 빛을 그려 놓았으며, 달은 이지러진 모습에다 달에서 보이는 흑점을 작고 둥근 원으로 그려 달의 특성을 표시하고 있다. 별은 둥글고 작은 원 세 개를 삼각형으로 그려 놓았으며,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을 표시하려면 주위에 작은 점들을 찍어 놓아 많다는 것을 표시했다. 여자의 배 부위에 아기를 그려 놓으면 임신했다는 말이고, 옷이나 꽃처럼 사물을 그대로 그려 보면 알 수 있도록 했다.

나무와 돌의 기록, 스쥬노쥬

문자가 그림과 다른 것은 모양과 의미, 소리의 3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동파문자는 비록 회화성이 강한 상형문자지만 나시족이라는 특정한 사회 안에서 사용되는 약정된 부호로 누구든 그 그림을 보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음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그림으로 그려진 동파문자는 인간의 회로애락은 물론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동파문 혹은 나시상형문이라고 한다. 나시족은 이 문자를 스쥬노쥬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나무와 돌의 기록, 나무와 돌에 남아 있는 흔적이라는 의미다.



고달프다



호랑이



말



옷



먹다

동파는 이런 상형문자를 이용하여 수만 권의 동파경을 세상에 남겨 놓았다. 이 안에는 창세기를 비롯한 신화와 전설은 물론 종교 의례, 천문역법, 사회생활 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서양의 탐험가나 학자들은 동파경을 인류 계몽 시기의 원시그림문자가 담긴 진본이라고 여겨 이를 수집하고 연구했으며, 이미 1만여 권이 넘는 동파경의 고본들은 세계 각국의 박물관에 흩어졌다. 동파문은 형태를 있는 그대로 그리거나 일부분의 특징을 부각시켜 구분해 내기도 한다. 동물은 몸 전체 혹은 머리 부분을 그려 표시하는데, 말은 갈기, 코끼리는 코, 호랑이는 얼룩무늬라는 특징을 잘 나타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상형문자들은 동파들이 농사를 짓거나 방목을 하는 틈틈이 땅 위나 바위 위에 그리면서 연습을 하여 지역과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풍경의 이체자가 많이 존재한다. 동파가 경전을 기록하거나 제단에 올릴 신의 형상을 그릴 적에는 가는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죽필에다 천연 염료로 그리며, 종이도 자연에서 채취한 원료로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종교에 사용되는 신비한 문자라는 특성 때문에 이처럼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문자에도 여러 가지 채색을 함께 사용하고 그림과 문자가 혼합되어 있어 강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동파문자를 수록한 사전 「나시상형문자보」에 수록되어 있는 글자는 1340글자이며, 이 중에서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을 본뜬 명사가 975자로 전체 글자 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상형문자에서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인 동작 혹은 사물의 형용을 묘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동사는 258개로 19% 정도이고 형용사는 단지 49자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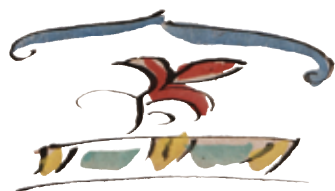
쟁기로 밭을 가는 그림이나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양을 모는 모습, 베를 앞에서 베를 짜는 여자의 형상은 각기 경작하다, 방목하다, 베를 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먹는다는 동사는 밥그릇을 앞에 놓고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는 그림으로 누구든 쉽게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음식이 담긴 그릇과 젓가락 한 쌍이 그려진 부호는 그 의미



봄



여름



가을



겨울



별

태양

달

를 연상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자는 고달프다, 괴롭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람이 먹는 밥 한 그릇을 만들어 내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두 눈을 그대로 그려 내면 눈이라는 명사이고 두 눈에서 앞으로 선을 그리면 사물을 본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앞에 책을 펼쳐 놓으면 책을 읽는다, 혹은 공부를 한다는 의미다. 신화 속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만들어진 글자도 있다. 무지개는 양 끝에 용의 머리를 그려 넣고 있어 용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시족의 민족 종교, 동파교

동파문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찾아볼 수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동파문자를 분석해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네 자는 모두 땅을 뒤덮고 있는 둥근 하늘과 그 하늘 아래에 바람, 비, 꽃, 눈을 더하여 서로 다른 계절을 나타내고 있다.

봄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니 바람으로 표시하고, 여름은 비, 겨울은 눈으로 상징을 삼았다. 그러나 가을은 대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계절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나시족이 살고 있는 리장 일대는 가을이 되면 만물이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 계절로 문자처럼 꽃피는 가을과는 지리적 환경과 기후가 다르다. 단지 티베트 고원의 하곡 지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초가을에 꽃이 만발하고 고산에는 흰 눈이 쌓여 있는 지역이 나온다.

그럼 이 글자가 만들어진 지역과 부합되는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살던 시기는 언제였을지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조사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동파의 문자와 경전은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기억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상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나시족의 전통 문화와 사상이 농축된 민족 종교인 동파교는 종교 사제인 동파가 지금도 상형문자를 사용하여 경전을 기록하고 대대로 전승하면서 보존하고 있다.



나시족의 동파문자가 지금까지 이어 올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문자로 자신들이 믿는 경전을 기록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파교는 샤머니즘이 강한 그들의 종교이기도 하며, 제를 집전하는 우두머리를 자신들의 언어로 ‘현명한 사람’을 뜻하는 동파라고 부른다. 사진은 시아뉴 대동파가 향을 사르는 소향대(燒香臺)에서 신에게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장면이다. 앞에 보이는 흙으로 만든 것이 소향대이며, 연기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소향대 바로 왼쪽에 나무로 만든 탑이 있다. 그 나무 탑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동파는 아침마다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를 올려야 한다.

친구	숨다	군인	적군	피리를 불다	아내	싸우다
말하다	노래하다	웃다	걸다	달리다	이끌다	장님
끌고가다	듣다	기대다	뛰어오르다	무릎을 꿇다	들어 올리다	머리를 땀다
곡식을 말리다	씨를 뿌리다	쓰다	옷을 입다	땀을 누다	오줌 누다	다투다

동파는 종교적인 제의를 주관하는 종교 사제를 부르는 말이다. 동파가 사용하는 경전은 동파문이라는 상형문자로 되어 있으며, 19세기 이후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 나시족의 종교적 믿음이었던 동파교는 관광과 문화 산업의 조류 속에서 문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다. 종교로서의 동파교는 이미 외진 산간 마을에서나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5년 동파의 성지라 불리는 백수대의 르수완 촌으로 시아뉴 대동파를 찾아간 적이 있다. 그 당시 아흔두 살이던 시아뉴 노인은 이미 시씨 가문의 14대 동파로 세상에 몇 안 남은 대동파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노인은 열세 살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동파문자와 경서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열여덟 살에는 혼자 의식을 집전할 수 있었다. 이제는 여섯째 아들 아밍 동치가 가업을 이어 동파의 업을 전수받았다. 노인이 사는 집은 나무로 만든 귀틀집이다. 조상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것으로 몇 백 년이 된 집이었다. 이 집에는 누대로 내려온 동파 세가답게 많은 경전과 동파화가 있고 집 안 마당에는 노인이 신에게 향을 올리는 소향대와 신들이 깃들어 있는 목탑이 있었다. 목탑에는 신들의 형상이 퇴색된 그림으로 남아 있으며 소향대에는 동파문자로 모든 신들이 기뻐하며 용이 상서로움을 드러낸다는 글을 빨간 종이에 써서 붙여 놓았다. 집으로 들어서는 대문 위에

종교와 문화관광의 갈림길에 선 동파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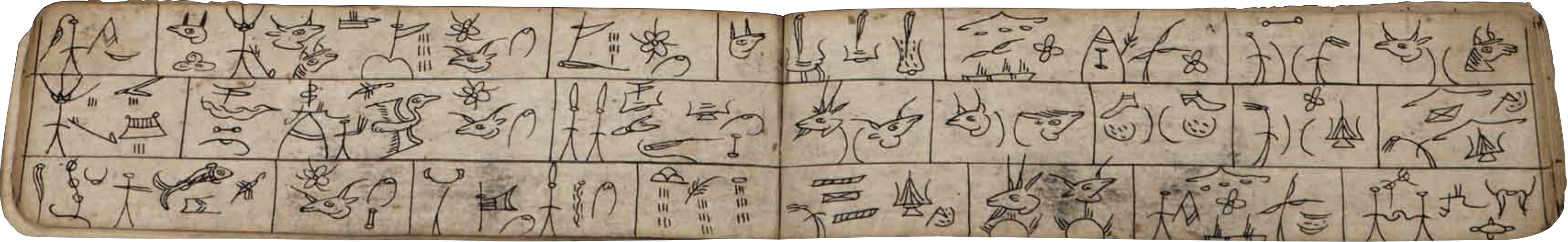
는 동파문자로 집안의 복을 기원하는 글자와 대련이 붙어 있었다. 중간의 동파문은 한자로 번역하면 ‘天地日月吉祥交輝’다. 하늘과 땅에 해와 달이 길하고 상서롭게 갈마들며* 빛난다는 의미다. 양옆의 글자는 왼쪽으로 은으로 된 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금으로 된 문을 연다는 뜻이다.

동파문자는 이처럼 상형문자이면서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이룰 수가 있으며, 동파는 경서에 쓰인 글자를 읽으면서 신을 모셔오기도 하고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한다.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끝까지 동파의 맥을 지켜 오던 노인은 2009년 아흔 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뒀다. ㉔

• 갈마들며
서로 번갈아들다



목패화



동파경

중국 쑤저우 일대의 사가원림은 1997년에 ‘쑤저우고전원림(蘇州古典園林)’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쑤저우원림’ 중 사자림(獅子林), 줄정원(拙政園), 망사원(網師園), 창랑정(滄浪亭), 환수산장(環秀山莊), 예포(藝圃), 우원(耦園), 유원(留園)은 쑤저우 시내에 있으며 퇴사원(退思園)은 쑤저우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퉁리 고진(同里古鎮)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퇴직한 관료들이 중국 강남 일대로 낙향하여 꽃피운 독특한 문화 중 하나다.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산수화, 중국의 정원 예술 쑤저우와 항저우의 사가원림(私家園林)

중국의 원림은 시서화에 버금가는 예술이며, 문인들에게 정신적 휴식처이자 이상향으로 중국 문화의 산실이기도 했다.

중국의 강남 지방을 가면, 개인 원림(이하 사가원림)을 한번쯤 둘러볼 기회가 생긴다. 강남 지방의 사가원림은 보통 살림집 건물과 한데 어우러져 있으며,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특징이 있다. 강남의 사가원림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로 짝짝 뻗어 있는 건물의 처마와 자유자재로 붙여 놓은 태호석인데, 이 뛰어난 건축술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낯설고 놀라운 볼거리다. 그 뿐인가. 갖가지 문양의 누창(漏窓)과 바닥 포장, 구불구불한 형태의 못, 과장된 가산(假山)의 표현까지, 원림 곳곳에는 놀라운 기교가 수도 없이 연출된다. 그래서 때로는 중국의 사가원림이 요란스럽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원림을 이렇게만 경험하고 그친다면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 원림은 시(詩)·서(書)·화(畵)에 버금가는 예술로서 문인에게는 정신적 휴식처이자 이상향이었으며 거대한 중국 문화의 산실이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원림(서양에서는 가든 garden)에는 본래 작물을 키우는 원예적 속성(hortus)이 있다. 한정된 토지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원(園)’이라는 글자가 이를 말해 주는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림에는 과원(果園)이나 채원(菜園)의 속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원림이 도시 원림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도성 안에는 택원(宅園)이, 도성 근교에는 별업(別業)이 발달했다. 개인이 경영하는 택원은 별업과 달리 원림으로 가용할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주로 유상(有償)과 교유(交遊)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못을 파고 산을 쌓고 아름다운 화목을 심는 일을 기본으로 하되, 황실원림과는 다른 문인풍의 아취(雅趣)와 풍류(風流)를 즐겼다.

문인의 우아한 취미와 통하는 사가원림

당대(唐代) 시인 백낙천(白樂天, 772~846)의 글 「지상편(池上篇)」의 병서(竝序)를 보면, 사가원림의 품격이 얼마나 고아한지* 알 수 있다.

*
고아한지
예스럽고 아담하다.
품격이 높고 우아하다.





예원



유원

도성(궐양)에서 주변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성의 동남쪽이다. 그리고 동남쪽에서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이도리’다.

이 동네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은 서북쪽이며, 서쪽의 가장 큰 집이 바로 나 백낙천이 퇴직하여 여생을 보내는 곳이다. (중략) 처음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되었을 때 “큰 주택은 있지만 (식량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동쪽에 양식 창고를 지었네”라고 기뻐서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책이 없으면 그들을 교육할 수 없다.” 하여 못의 북쪽에 서재를 하나 지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손님과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거문고와 술이 없으면 그들을 접대할 수가 없다.” 하여 못의 서쪽에 금정(琴亭)을 지었다. 그리고 정자 중간에는 돌로 만든 술 단지(石樽)를 두었다.

나는 항저우의 자사직을 퇴직할 때 천축석(天竺石) 하나와 화정학(華亭鶴)을 얻었고, 돌아와서는 서평교(西平橋)와 못을 둘러싼 길을 수리했다. 또한 쑤저우의 자사에서 퇴직할 때는 태호석과 흰 연꽃, 마름, 청판방(靑板魴)을 가지고 왔다.

또 중고교(中高橋)를 만들어 못에 있는 세 섬으로 통하게 했다. 형부시랑에서 퇴직할 때는 천 말의 양식과 책 한 수레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비 100여 명을 데리고 왔다. (중략) 못에 봄바람이 불 때면 혹은 못에 가을 달이 비치거나 수중의 연꽃이 피어나는 아침이면, 또한 이슬이 서늘하고 백학이 우는 저녁 무렵이 되면, 나는 양진일이 준 돌 위에서 진효산에게 배워 빛은 술을 들고 최회숙이 준 거문고로 강발이 가르쳐 준 〈가을 생각〉을 연주한다. 고요히 자적하니 완전히 자아를 잊어버리는 듯했다. 술 마시고 연주하며 흥이 다하면, 음악을 연주하는 시자를 섬의 정자로 불러들여 함께 〈예상산서(預襄散序)〉를 연주한다. 음악 소리는 바람 따라 유랑하니, 음악이 끝나기 전에 나는 이미 도취되어 돌 위에서 잠들어 버린다.

(이하 생략)

백낙천은 필지의 삼분의 이를 할애하여 못을 파고 섬을 만들어 다리를 놓아 거닐 수 있게 했고, 정자와 너럭바위를 장만하여 손님을 맞이하기 좋은 장소를 마련했다. 이도리 원림의 정취는 백낙천이 노닐고 있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못에 가을 달이 비칠 때, 연꽃이 피어나는 아침 또는 이슬이 서늘하고 백학이 우는 저녁에 배를 타고 못에서 뱃놀이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음악에 취하고 자연에 취하여 잠이 들거나 자아를 잊은 모습 등은 한쪽의 그림처럼, 한편의 시처럼 고결하다. 3000여 평 규모일 것이라 추정되는 이곳은 지금은

백낙천은 봄바람이 살랑이거나, 못에 가을 달이 비칠 때, 연꽃이 피어나는 아침이면 못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천축석은 항저우 근교의 천축산에서 나는 돌이었는데 색이 맑고 무늬가 아름다워 원림을 꾸미는 데 으뜸이었다.

비록 유지(遺址)만 남아 있지만 위의 글만으로도 중국 사가원림의 아름다운 정취가 충분히 전달된다.

한편, 백낙천이 쑤저우와 항저우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도 흥미롭다. 그는 쑤저우와 항저우에서 자사(刺史)로 머무르다 퇴임 후, 원림을 꾸미는 데 쓸 천축석과 태호석, 못에 심을 흰 연꽃과 마름, 대나무로 만든 배 한 척 그리고 관상용 학 한 마리를 챙겨 궐양으로 돌아왔다. 천축석은 항저우 근교의 천축산에서 나는 돌로, 색이 맑고 무늬가 아름다워 예부터 강남 일대에서 원림을 꾸미는 데 사용한 원림석이다. 태호석은 중국의 4대 돌 가운데 하나이며 타이후(太湖)라는 자연 호수 아래의 석회암이 장기간 침식되어, 구멍이 뚫리고 울퉁불퉁하게 주름이 잡혀 있는 돌을 말한다. 강남의 사가원림에서 즐겨 사용하는 태호석은 그 자체가 예술품이기도 하지만, 여러 조각을 임의로 붙여서 크고 작은 인공의 산을 만들 때도 많이 이용된다.

하늘에는 낙원,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

중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남송대 문인인 범성대(范成大, 1126~1193)가 남긴 “하늘에 낙원이 있다면,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글귀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쑤저우 출신인 범성대는 아름다운 환경과 경제적 번영, 삶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두 도시를 하늘의 낙원에 비유하며 칭송했다.

그리고 그의 글귀 덕분에 쑤저우와 항저우는 서로 짝이 되어 오늘날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도시는 꽤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장쑤 성(江蘇省)의 도시 쑤저우는 춘추시대 오(吳)나라의 도읍지(당시 이름은 고소姑蘇)로, 강남의 대표적인 수향(水鄉)이다. 거대한 타이후를 끼고 있으며 창장(長江)의 중하류에 걸쳐 있어서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하다. 경향대운하와 도시 곳곳으로 이어진 수로로 인해 비단과 소금으로 상업 경제가 발달했고 도시가 크게 번성했다. 도시의 번영은 인구를 집중시켰고 퇴직 관리와 부상(富商)이 저마다 화려한 사가원림을 꾸몄다.





줄정원(拙政園)은 쑤저우 고성의 동남쪽에 있으며, 쑤저우 일대의 원림을 대표하는 원림 중 하나다. 명나라 정덕제(正德帝, 1505~1521) 재위 기간에 어사(御史) 벼슬을 지낸 왕헌신(王獻臣)이 낙향해 대홍사(大弘寺)라는 절을 허물고 조성했다고 전해지며, 넓이가 5만 1950㎡에 이른다. ‘줄정(拙政)’이라는 명칭은 진(晉)나라 때의 시인인 반약(潘岳)의 〈한거부(閑居賦)〉에서 비롯되었다. 반약은 “원림에 물을 주고 채소를 키워 밤낮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세태에 따르지 않고 우직함을 지키는 수출(守拙)하는 자의 위정(爲政)”이라고 노래했는데, 이 구절에서 ‘줄정’이라는 명칭을 가져왔다. 오늘날에는 베이징의 이화원(頤和園), 청더(承德)의 퍼서산장(避暑山莊), 쑤저우의 유원(留園)과 함께 ‘중국의 4대 원림’으로 꼽힌다.



다음은 ‘줄정’이라는 명칭을 따왔다고 전하는 반약의 〈한거부〉 구절이다. “부귀를 뜯구름처럼 여기는 공자의 뜻을 따라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 소요하며 자득한다. 못과 소는 고기 잡고 낚시질할 수 있고 방아 찧어 받은 세리(稅利)는 경작을 대신할 수 있다. 전원에 물을 대고 푸성귀를 팔아 아침저녁 반찬거리를 공급하고 양을 길러 터럭을 팔아 복일(伏日)과 납정(臘享)의 비용을 댈 수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니, 이 또한 줄렬한 자(拙者)의 정사 행함이다(庶浮囊之志 築室種樹 逍遙自得 池沼足以漁釣 春稅足以代耕 灌園鬻蔬 以供朝夕之膳 牧羊酤酪 以嫠伏臘之費 孝乎惟孝 友于兄弟 比亦拙者之爲政也).”





유원



유원



유원



사자립



우원

죽정원과 비슷한 시기인 1525년(명 가정 4)에 조성을 시작하여 1593년에 완공되었다. 청대 관리 유서(劉璣)가 소유하면서 수면이 진녹색을 띠다 하여 ‘한벽산장(寒碧山莊)’으로 불리기도 했다. 총면적은 3만㎡이며 기석, 정자, 고목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준 길의 배치가 조화롭다. 원림은 크게 중원, 동원, 서원, 복원 등 네 부분으로 나뉜다. 중원은 본래 한벽산장이었던 곳이고, 세 부분은 확장하여 새롭게 지은 것이다. 한 덩어리의 태호석으로 된 동원의 관운봉(冠云峰)은 그 높이가 6.5m에 무게가 약 5톤으로 쭈저우원림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 좌병(坐屏), 어화석(魚化石)과 함께 유원삼보(留園三寶)라고 부른다.

죽정원이 규모의 원림이라면 유원은 아기자기한 조화의 원림이다. 원림 안의 각기 다른 높낮이의 정자와 누각이 적당한 곳에 자리하고 있고, 꼬불꼬불한 회랑은 700여m나 이어져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다. 건물은 원림 총면적의 사분의 일을 차지하고 대개가 청대의 대표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명대 조성 당시에는 평범하고 간결했으나 청대 유서가 소유하면서 많은 건물이 지어졌는데 긴 회랑 또한 이때 지어진 것으로 전체 규모는 지금과 비슷했다. 1954년 이전까지 황폐해 있던 것을 이후 건물을 복원하고 나무를 심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1342년 원나라 혜종(惠宗) 때 선승들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사자림이라는 이름은 원림 안에 사자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전설 속의 맹수 산예(狻猊)를 닮았다 하여 사자림보리정종사(獅子林菩提正宗寺)라 명명했다고도 하고, 원림 안 가산의 대나무가 사자와 닮았다고 하여 사자림이라고도 한다. 또 사자림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천어범사 유척(維則)이 천자산(天自山) 사자암(獅子岩)에서 득도해 스승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사자림이라고 지었다고도 한다. 태호석이 쌓여 산봉우리를 이룬 구사봉(九獅峰)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총명한 사람은 아홉 마리 사자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쭈저우 성 동부의 성벽 끝에 있는 원림으로 수로와 맞닿아 있다. 청대 초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말기에 이르러 완성된 원림이다. 동과 서 양쪽으로 나뉜 두 곳이 짝을 이루는 원림이라 하여 우원(耦園) 또는 우원(耦園)이라 한다. 원림은 크게 중원, 동원, 서원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중원은 문청·교청·대청 및 누각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고, 서원은 중정(中庭) 형식으로 된 두 곳의 원림이 직령노옥(織簾老屋)을 중심으로 배치해 있다. 동원은 우원이 처음 만들어져 있던 곳으로 한때 황폐했다가 청말에 중건된 원림이다. 성곡초당(城曲草堂)과 애월지(愛月池)가 이들 원림이다. 애월지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성곡초당이 남쪽에 산수간이 있다. 사진의 산수간은 사방이 트여 있는 정자로 우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다.

줄정원, 유원, 망사원(網師園) 등 현존하는 쑤저우의 원림은 송·명·청대를 거치며 조성, 증축, 개축된 것으로, 문화대혁명 기간에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개혁 개방 시기에 복원 사업을 통해 원형을 되찾아 1997년과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쑤저우의 사가원림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지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다. 높고 육중한 석고문(石庫門)을 넘어 겹겹이 배치된 건물을 지나면 비로소 원림이 보이는데, 이것은 마치 호리병 속 별천지와 같다. 회랑을 따라 원림을 거닐면 눈길 닿는 곳마다 가산과 못, 다리와 정자, 수목과 화훼류가 각양각색으로 펼쳐진다.

사가원림의 최고 묘미는 태호석으로 만든 가산의 감상이다. 가산은 보통 물과 함께 어우러져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는데, 이때 돌에서 뿔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쑤저우의 고온다습한 더위를 잠시 잊게 하며 산을 오르고 다리를 건너며 원로(園路)를 거닐고, 건물에 머물기를 반복하다 보면, 원림의 경계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명 말엽의 조원가(造園家) 계성(計成, 1582~?)은 원림 꾸미는 것을 마치 산수화를 그리는 것처럼 했는데, 그는 ‘회화에 표현된 그윽한 정취를 가산을 만들 때 반영하고 실제 산수의 풍부한 정경을 가산에 붙여넣고자’ 했다. 또한 화가가 산을 그리듯이 “산의 본성을 알고 가산을 만들면 가산에서 진짜 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으니, 쑤저우의 사가원림에서 한폭의 산수화가 연상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항저우는 오늘날 저장 성(浙江省)의 성도(省都)이며 중국 문화의 절정기였던 남송(南宋)의 도읍지(당시 이름은 임안臨安)였다. 본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평지에 인공의 수로가 도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쑤저우보다 도시 경관이 유려하고 부드럽다. 또 도시 가까이에 전단강(錢塘江)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백낙천과 북송(北宋)의 소동파(蘇東坡)가 쌓은 제방[●]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호수 시후(西湖)를 도시에 품고 있다. 시후는 천연의 자연환경과 인공의 원림, 제방, 섬, 다리, 사찰, 탑 등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 있어서, 생동감 넘치는 거대한 산수화 한폭을 감상하는 것 같다. 천연인 듯 천연이 아닌 듯, 시

후는 그 자체가 훌륭한 원림이 되기도 하며 시후에 인접한 사가원림은 호수의 풍경을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여 내 것으로 취한다. 그래서 항저우의 원림은 쑤저우의 사가원림과 달리 개방적이며 서정적이다. 시후에서 보이는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는 그 자체로 훌륭한 모범이 되어 여러 문인과 화가의 작품 주제가 되었고 청대에 건설한 베이징 이화원의 황가원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시후 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자연산수원림인 시후의 진면목을 알고자 한다면, 옛 문인들이 손꼽은 시후 10경(景)을 둘러보는 것이 제 일이다.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영봉산(靈峰山)의 뇌봉탑(雷峰塔), 소제와 백제를 거닐며 만나는 시후의 풍경, 연꽃 가득한 시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곡원풍하(曲院風荷) 등은 10경 가운데에서도 시후의 아름다움이 특히 잘 드러난다.

수면이 반짝반짝 맑을 때가 좋더니
산빛이 어둑어둑 비가 와도 멋지네
시후를 월나라 서시와 빗대고 보니
열은 화장 짙은 분 무얼 해도 어울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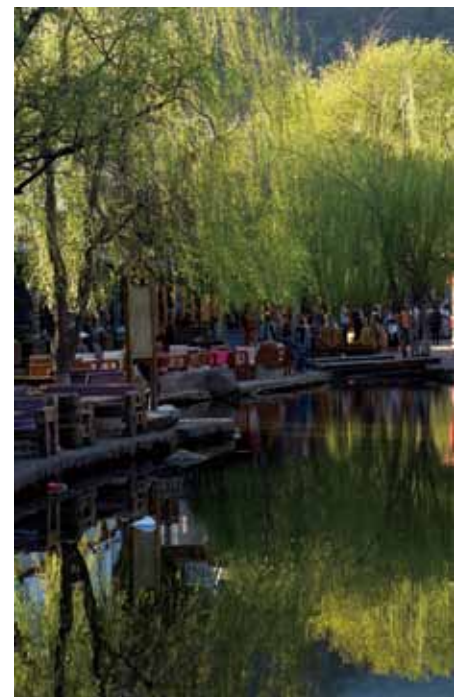
위의 시는 시후를 중국 고대 미인으로 알려진 서시(西施)에 비유하여 읊은 소동파의 작품으로, 시후를 묘사한 시 중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맑은 날에 보는 시후의 모습과 어두울 때 혹은 비가 올 때 드러나는 시후의 아름다움을 한층 심화시켰다. 시후와 같은 실경 산수를 원림에 끌어들이거나, 한정된 원림에서 산수를 재현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생동하는 자연산수의 기운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중국 사가원림이 궁극으로 추구하는 점이다. 그래서 그림을 찬찬히 뜯어 보듯, 느린 속도로 원림을 거닐며 감상한다면, 사가원림의 매력에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원림에서 자연산수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유유자적한 인생을 즐겼던 중국 문인의 아취[●]를 느낄 수 있다면, 중국에서 왜 강남의 사가원림을 예술품으로 간주하는지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㉞

● 유네스코 세계유산
'쑤저우고전원림'에 해당하는 사가원림은
줄정원, 유원, 망사원, 환수산장, 창랑정,
사자림, 예포, 우원, 퇴사원이다.
이 가운데 퇴사원은 쑤저우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통리에 있다.

제방
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따위로
쌓은 둑.

● 아취
고아한 정취





LS Networks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
LS Yongsan Tower, 9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140-702